

중국 인민해방군

조직, 현대화, 전쟁 준비의 실제

김경진 변호사

서문

2026년 1월, 중국군 최고위 장성들의 이름이 공개 발표에서 사라졌습니다. 대만해협에서는 군용기와 함정이 날마다 선을 밀고, 남중국해에서는 흰 선체의 해경선이 군함보다 앞서 움직입니다. 멀리서 보면 커다란 군대 하나가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듯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지휘부의 빈자리와 기술의 속도, 당의 통제가 서로 다른 박자로 움직입니다.

이 책은 중국 인민해방군을 중국이라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군대로 놓고 읽습니다. 그 관점을 놓치면 중앙군사위원회, 전구 개편, 정치위원, 숙청, 2027년 건군 100주년 목표가 모두 흐릿해집니다. 무기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쟁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없고, 숙청이 깊다는 이유만으로 위협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공식 문서, 의회 보고서, 연구기관 분석, 대만과 일본의 국방 자료, 중국 쪽 공개 자료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만 공개 자료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판단 과정, 2015년 이전의 인맥 지도, 실제 작전 명령의 세부는 밖에서 완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나누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7년은 이 책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숫자는 능력을 갖추라는 시한이지 침공 날짜가 아닙니다. 이 둘을 섞으면 공포는 커지고 판단은 흐려집니다. 중국군을 낮춰 보는 것도, 일정표를 만들어 겁먹는 것도 다 빗나간 길입니다. 필요한 것은 차분한 독해입니다.

김경진

목차

서문

자료의 범위와 읽는 법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공개 자료와 한계를 먼저 밝힙니다.

제1부 당의 군대: 조직과 지휘체계

- 1장** 당-국가 체제와 인민해방군의 위상
당-국가 체제, 중앙군사위원회, 숙청이 만나는 첫 장면
- 2장** 인민해방군의 구조와 2015년 개편의 유산
2015년 개편 이후 전구와 군종이 다시 짜인 방식
- 3장** 지휘구조 개편과 신설 군종
정보지원부대, 항공우주군, 사이버공간군이 놓인 자리
- 4장** 시진핑 시대의 숙청과 지휘부 재편
장성 숙청이 지휘부와 준비태세에 남긴 빈자리

제2부 전쟁 방식의 전환: 현대화와 지능화 전쟁

- 5장** 정보화 지능화 전쟁과 군사이론 혁신
정보화에서 지능화로 넘어가는 군사이론의 변화
- 6장** 우주 사이버 전자전 인지전
우주, 사이버, 전자전, 인지전이 지휘망을 흔드는 방식
- 7장** 해공군력 원거리 전력 투사와 군수 지속
해군력과 항공전력, 그리고 오래 버티는 군수의 문제
- 8장** 군민융합과 2027 건군 100주년
군민융합과 2027년 목표를 침공 날짜와 나누어 읽기

제3부 전쟁 준비의 실제: 분쟁 현장

- 9장** 대만해협: 회색지대에서 전면전 시나리오까지
대만 주변 일상 압박과 전면전 시나리오의 거리
- 10장**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역 확장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경, 민병, 해군이 이어지는 압박
- 11장** 침공 신중론과 억제 요인
공격 가능성과 신중론, 억제 요인을 함께 놓고 보는 법
- 12장** 미중 경쟁과 지역 질서: 동맹 권위주의 연대 한반도
미국 동맹망, 권위주의 연대, 한반도 파급의 실제 범위

제 1 부

당의 군대: 조직과 지휘체계

1장 당-국가 체제와 인민해방군의 위상

2026년 1월 24일 중국 국방부의 브리핑 자리에서 짧은 문장 두 개가 나왔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와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전리가 심각한 기율 위반과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니다. 군복을 입은 대변인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이름을 읽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은 두 이름의 무게를 바로 알아했습니다. 장유샤는 시진핑을 제외하면 군에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류전리는 실제 작전 명령을 짜는 부서의 수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사라진 것입니다.

이 장면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한 나라의 군대에서 부동의 이인자와 작전 총책임자가 한꺼번에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편입니다. 서방의 군대라면 정권이 흔들릴 사건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몇 년째 이어지는데도 체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인민해방군이 누구의 군대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그 답을 알고 나면 왜 최고 지휘부가 통째로 비어도 당이 태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태연함 뒤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가 함께 보입니다.

국가의 군대인가 당의 군대인가

한국 독자에게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아닌 편입니다. 중국공산당의 군대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펴낸 중국 정치체제 개설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중국은 레닌주의 방식의 당-국가 체제이고 그 안에서 중국공산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정치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을 지휘하는 근거도 국가 주석이라는 자리가 아닌 편입니다. 그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격으로 그는 현역과 예비역 병력 인민무장경찰 민병대까지 모두 총괄합니다. 같은 보고서는 이들 무장력이 국가가 아니고 당에 복무한다고 못 박습니다.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입니다. 다큐멘터리 자료를 정리한 기록을 보면 인민해방군 스스로 자기 임무를 국가 수호가 아니고 당의 지위와 이익 보호로 규정합니다. 만약 전체 인민의 이익과 공산당의 이익이 부딪치면 군은 언제나 당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과 당 모두가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절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말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89년 톈안먼 광장에서 실제로 증명되었습니다. 당시 군은 시민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국가의 안전이 아니고 당의 명령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정체성은 조직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군의 모든 부대에는 정치위원과 당 위원회가 함께 있습니다. 지휘관 옆에 정치 담당자가 나란히 앉아 충성심을 살피고 기율을 세우고 당의 지시를 아래로 내립니다. 병사들에게는 종교에 가까운 수준의 이념 교육이 반복됩니다. 자기가

누구를 위해 총을 드는지 헛갈리지 않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보통의 국가 군대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범위한 정치 세뇌가 이때는 일상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분석한 중국의 제15차 5개년 국방정책 문서를 보면 이 방향은 앞으로 더 뚜렷해집니다. 중국은 다음 5년 동안 정치군 곧 정치로 군을 세운다는 과제를 군사 거버넌스 현대화의 한복판에 놓았습니다. 군의 영도관리 체계를 손봐서 당의 군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관철하고 시진핑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확실하게 뿌리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무기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군이 당에 절대 복종하도록 만드는 일에 국가적 힘을 쏟습니다.

숙청이라는 창으로 다시 보기

당의 군대라는 성격은 최근 몇 년의 대숙청에서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앞서 소개한 장유샤와 류전리 사건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부터 이어진 긴 흐름의 한 장면입니다. 조직 연구 자료가 정리한 수치는 규모를 실감하게 합니다. 2022년 이후 최소 101명의 인민해방군 고위 장성이 공식적으로 숙청되거나 자취를 감췄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와 전구 사령관 부사령관급에 해당하는 최고위직 176자리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퍼센트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한 나라 군대의 지휘부 절반이 사라진 것입니다.

부대별로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남중국해를 맡는 남부전구는 사령원과 정치위원은 물론 부사령원 다섯 명까지 지휘부가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다루는 로켓군은 역대 사령원 네 명 전원을 포함해 열 명 넘는 고위급이 잘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마지막으로 부주석 장유샤와 참모장 류전리가 이름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결과 중국 군사력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에는 시진핑과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장성민 단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수백만 대군을 두 사람이 이끄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이때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실제 전투력을 갉아먹을 게 뻔한데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지휘부를 갈아엎을까요. 분석가들의 답은 대체로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시진핑과 당 지도부는 군을 체제 생존이라는 렌즈로 봅니다. 미군처럼 문민통제가 제도로 박혀 있는 군대와 달리 중국군 최고위에는 시진핑 말고 민간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에게 군의 부패는 돈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장군들이 당의 지시와 다른 자기만의 동기를 품게 되었다는 신호이고 그 자체가 정치적 불충으로 읽힙니다. 소련 공산당이 무너질 때 당과 군의 결속이 풀렸던 기억 1989년 톈안먼 직전 몇몇 지휘관이 며칠씩 당의 무력 동원 명령에 버텼던 기억이 이 판단의

바탕에 깔려 있다고 분석가들은 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장군들의 비공식 후원망을 아예 부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군이 당에만 반응하도록 다시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유사 사건은 이때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왜 그가 잘렸는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돌지만 어느 하나로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한 갈래는 금전 비리 곧 부패입니다. 다른 갈래는 파벌과 후원망을 둘러싼 권력 다툼입니다. 또 다른 갈래는 그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짓밟았다는 명분인데 한 분석은 이것을 그가 시진핑의 문민 통제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7년 건군 100주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시진핑과 이견을 보였다는 곧 그가 목표 시점을 2035년으로 미루자는 신중론에 섰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부패나 권력이나 침공 신중론이나 혹은 더 무거운 반역 혐의냐. 이 갈래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이 가운데 무엇이 진짜 이유인지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자료가 여기까지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와 명령이 흐르는 길

이제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내려가는지 따라가 봅니다. 이 길을 알아야 지휘부의 공백이 왜 위험한지가 손에 잡힙니다.

과거 중앙군사위원회는 지금보다 사람이 많고 권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조직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04년의 중앙군사위원회는 11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군종 사령관과 오랫동안 군을 좌우해 온 네 개의 총부 곧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군부 총장비부의 수장들이 여기 들어 있었습니다. 힘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2016년에 시진핑은 이 구조를 뿌리째 바꿉니다.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석 한 명 부주석 두 명 그리고 연합참모부와 정치공작부와 기율검사위원회와 국방부의 수장 네 명을 더한 일곱 명으로 줄여 정예화합니다. 핵심은 명령이 흐르는 길을 짧게 다시 낸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령이 네 개 총부와 각 군종 사령부를 거쳐야 했습니다. 개편 뒤에는 그 중간 단계를 걷어내고 명령이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곧장 다섯 개 전구로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전국을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의 다섯 전구로 나누고 중앙군사위원회 아래에 열다섯 개 부서와 한 개 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중앙군사위에서 전구로 전구에서 부대로 이어지는 곧고 하향식인 명령 체계가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앞서 본 주석 책임제는 바로 이 짧아진 길의 맨 위에 시진핑 한 사람을 앉히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짧은 길이 늘 빠른 길은 아닌 데 있습니다. 명령이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전장에서 그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 편입니다. 최고 지휘관의 작전 의도를 실제 전투 성과로 바꾸는 일 이것을 중국군은 전장 집행 능력이라 부르며 요즘 무척 신경 씁니다. 그러려면 앞선에 있는 지휘관이 위의 명령을 기계처럼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하고 수단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규제된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당의 중앙집권 통제와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한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군 연구자들도 미래의 지능화 전쟁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감당하려면 아래 부대에 결정 권한을 나눠 주는 임무형 지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군을 촘촘히 틀어쥐려는 당의 성향과 어긋납니다. 효율을 위해 권한을 내려보내는 지휘선과 충성을 위해 권한을 끌어올리는 정치선이 한 몸에 붙어 있으니 결정이 늦어지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 틈에서 상급 지휘관이 중간 부대를 건너뛰고 최전선을 직접 붙잡는 건너뛰기식 지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빠른 통제 같지만 실제로는 판단이 한곳으로만 몰려 위기 때 속도와 유연성이 함께 떨어지는 약점이 됩니다.

여기에 지휘부 공백이 겹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중앙군사위원회에 남은 두 사람 가운데 장성민은 작전을 지휘해 본 사람이 아니고 정치위원 출신입니다. 작전 기획과 명령 하달을 맡는 연합참모부는 수장 류전리와 부참모장 여러 명이 사라져 기능이 흔들립니다. 명령을 내릴 머리와 그것을 현장에 전할 신경망이 동시에 비어 버린 구조입니다. 분석가들은 인민해방군을 군사 조직이라기보다 극도로 중앙집권화된 당 조직으로 보라고 권합니다. 결정이 맨 위로만 깔때기처럼 모이는 이런 체제에서는 윗자리가 비거나 임시 대행으로 채워질 때 작전을 짜고 결정하는 일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입니다. 다만 근거 없는 상상은 아니고 조직의 작동 원리에서 나오는 예측입니다.

살아남은 지휘관들의 심리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위의 눈치를 살피며 정치적으로 어긋난 결정을 할까 겁내는 사람은 위험을 스스로 떠안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지부동은 전장에서 유연한 판단을 요구하는 군사 교리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중국군 안에서 오래 지적돼 온 평화병 그리고 상황 판단과 결심을 제대로 못 한다는 다섯 가지 무능이 이 분위기 속에서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추정으로 적어 둡니다. 더 무거운 위험은 그다음입니다. 아부성 보고만 위로 올라가면 지도부가 정치적 충성을 실제 전투 준비가 좋아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군대의 실력과 상대의 개입 능력을 잘못 계산해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싸움을 시작하는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협을 낮춰 볼 일도 아니지만 지휘부가 텅 비었으니 중국이 곧 움직인다고 서둘러 결론지을 일도 아닌 편입니다. 이 긴장을

본문은 끝까지 안고 갑니다.

한국 독자가 먼저 익혀 둘 조직 용어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몇몇 이름과 개념이 반복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뒤 장들을 편하게 읽으시도록 자주 등장할 용어를 이 장면들과 이어서 정리해 두겠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의 모든 무장력을 진 최고 기구입니다. 앞서 본 대로 시진핑은 이곳의 주석 자격으로 군을 지휘합니다. 그 아래 열다섯 개 부서 가운데 두 곳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연합참모부는 작전을 짜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고 장비발전부는 첨단 무기를 사들이는 곳입니다. 두 부서 모두 이번 숙청의 칼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작전과 조달이라는 핵심 두 축이 흔들린 것입니다.

전구는 2016년 개편으로 옛 7대 군구를 대신해 만든 다섯 개의 전역 지휘 단위입니다. 대만을 정면으로 맡는 동부전구 인도 국경을 맡는 서부전구 남중국해를 맡는 남부전구가 자주 나옵니다. 이 전구들의 지휘부도 크게 무너졌다는 점은 앞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기술 부대의 이름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2015년에 만들었던 전략지원부대가 2024년에 공식 해체되고 그 자리를 정보지원부대 항공우주군 사이버공간군 셋이 나눠 맡았습니다. 세 이름을 묶어 기억해 두시면 우주와 사이버를 다루는 뒤 장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준군사 조직도 중요합니다. 인민무장경찰은 약 150만 명 규모로 국가 군대와 별개로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접 지휘를 받으며 국내 치안과 인구 통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통일전선공작부는 당 중앙위원회 아래 부서로 종교와 소수민족과 사기업 홍콩과 마카오와 대만 전 세계 화교까지 비공산당 집단을 상대로 중국공산당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정치 공작을 맡습니다. 바다에서는 해상민병대와 중국 해경이 정규 해군과 이어지며 회색지대 압박의 손발이 됩니다. 신장에서는 신장생산건설병단이라는 반군사·농업 결합 기관이 인구 구조를 바꾸고 감시 체계를 심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교리 용어도 몇 개는 지금 익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3전은 법률전 심리전 여론전을 묶은 비물리적 전쟁 개념입니다. 군민융합은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군으로 끌어오는 국가 전략이고 그 가운데 민간 혁신을 무기 체계로 빠르게 옮기는 통로를 민참군이라 부릅니다. 15차 5개년 계획은 이 민참군을 위한 녹색 통로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전체에서 오해가 잦은 표현 하나를 미리 못 박겠습니다. 2027년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건군 100주년에 맞춘 능력 구비 시한입니다. 곧 그해까지 특정 수준의 군사 능력을 갖추라는 목표이지 그해에 대만을 친다는 침공 날짜가 아닌 편입니다.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본문은 이 둘을 결코 같은 말로 쓰지 않겠습니다. 능력의 시한과 개전의 날짜를 뒤섞는 순간 위협의 크기를 재는 눈금 자체가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대변인이 두 이름을 읽던 그 1월의 브리핑실. 서방이라면 정권이 흔들렸을 사건인데도 중국의 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 군대는 나라가 아니고 당의 것이고 당은 지휘관 몇이 사라지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군을 확실히 틀어쥐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남긴 텅 빈 사령탑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부를지 그것이 앞으로 장을 거듭하며 따라갈 질문입니다.

명령이 흐르는 길을 더 깊이

앞 장면이 남긴 텅 빈 사령탑을 제대로 읽으려면 그 자리에 원래 누가 앉아 어떤 힘을 쥐고 있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016년 이전의 중국군은 네 개의 큰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군부 총장비부입니다. 이름이 곧 역할이었습니다. 참모부는 작전과 정보를 짚고 정치부는 사람과 사상을 다뤘으며 후군부는 보급을 장비부는 무기를 맡았습니다. CSIS 분석에 따르면 이 네 총부는 오래도록 인민해방군을 좌우해 온 실세였고 힘이 이 네 곳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2004년 중앙군사위원회의 열한 자리에는 이들 총부 수장과 각 군종 사령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권력이 여러 손에 나뉜 구조였습니다.

시진핑은 이 기둥들을 헐고 다시 세웠습니다. 2016년 개편으로 네 총부는 없어졌고 그 권한이 중앙군사위원회 바로 아래 열다섯 개 부서와 한 개 위원회로 잘게 쪼개졌습니다. 옛 총참모부의 작전 기능은 연합참모부로 옮겨 갔습니다. 총정치부가 쥐고 있던 사상과 인사 기능은 정치공작부가 이어받았습니다. 총장비부의 무기 도입 업무는 장비발전부로 넘어갔습니다. 겉으로는 간판만 바뀌 단 듯 보입니다. 속을 뜯어보면 다릅니다. 예전의 네 총부는 저마다 큰 왕국을 이루며 중앙군사위원회와 각 군종 사이에 두꺼운 중간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개편은 이 중간 왕국을 걷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명령이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출발해 네 총부를 거치고 다시 각 군종 사령부를 지나야 부대에 닿았습니다. 개편 뒤에는 그 사이 단계를 지우고 명령이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다섯 개 전구로 곧장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짧아진 이 길의 맨 꼭대기에 시진핑 한 사람을 앉힌 것이 주석 책임제입니다.

숙청은 바로 이 새 구조의 급소를 때렸습니다. 작전을 짜는 연합참모부에서는 참모장 류전리와 부참모장 네 명이 조사받거나 사라졌습니다. 사상과 인사를 진 정치공작부에서는 주임 마오화가 잘려 나갔습니다. 무기를 사들이는 장비발전부는 부장 리상푸에 이어 후임 쉬웨창까지 무너졌습니다. 쉬웨창은 2026년 6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표 자격을 잃으며 숙청 대상에 올랐습니다. 명령을 짜는 곳 충성을 살피는 곳 무기를 대는 곳이 한꺼번에 흔들린 구조입니다.

전구로 내려가면 그림이 손에 잡힙니다

다섯 전구 가운데 대만을 정면으로 맡는 동부전구를 봅시다. 사령관 린상양과 육군 사령원 쿵쥘이 구금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실전 경험이 없는 양지빈이 2025년 12월 22일 새 사령관으로 채웠습니다. 양지빈은 취임하자마자 대만을 에워싸는 훈련인 정의 사명-2025를 지휘했습니다. 인도 국경을 지키는 서부전구는 사정이 더 아픕니다. 사령관 왕하이장은 1979년 중월전쟁을 몸으로 겪은 몇 안 되는 실전 세대였는데 그가 자취를 감춥니다. 정치위원 리펑바오도 2026년 6월 공식 숙청되었습니다. 남중국해를 맡는 남부전구는 정치위원 인홍싱을 포함해 부사령관 다섯 명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실전을 아는 지휘관을 빼내고 충성심이 검증된 인물로 급히 메우는 이 방식을 브라이언 하트는 헬리콥터식 승진이라 불렀습니다. 하위 전구에서 사람을 끌어 올려 윗자리를 채우는 임시방편입니다. 현재 국방부장인 동진도 해군 상장이지만 정치위원 출신으로 작전을 직접 지휘한 이력이 없습니다.

빈자리를 메우는 인사는 지금도 이어집니다. 2026년 7월 3일 장수광이 상장으로 진급하며 장성민을 대신해 새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르마스 흐베파펠은 브리핑 자료에서 단 두 사람이 열다섯 개 부서와 다섯 전구를 거느리고 이백만 대군을 살피는 일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라고 짚었습니다. 사령탑이 얼마나 얇아졌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술 부대의 이름이 바뀐 사연

숙청의 칼은 첨단 부대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2015년에 만든 전략지원부대를 2024년 4월 공식 해체했습니다. 그 자리를 정보지원부대 항공우주군 사이버공간군 셋이 나눠 맡았습니다. 대만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지원부대는 대만 무력 통일 상황에서 통신을 장악하고 정보를 지배하는 신경 중추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 핵심 부대의 지휘부마저 흔들렸습니다. 사이버공간군 사령관 장밍화 중장과 정보지원부대 초대 정치위원 리웨이가 2026년 6월 잇따라 해임되고 숙청되었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무장력들

준군사 조직은 군사 장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손발입니다. 인민무장경찰은 약 150만 명 규모로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접 지휘를 받습니다. 대외 전쟁보다 국내 치안과 인구 통제에 특화된 병력입니다.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서 이들은 전투 부대와 함께 주요 도시와 항구에 투입되어 곧바로 행정을 틀어쥐고 저항을 누르도록 짜여 있습니다.

통일전선공작부가 군사 이야기에 끼어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서는 당 중앙위원회 아래에서 종교 소수민족 사기업 홍콩과 마카오와 대만 전 세계 화교까지 비공산당 집단을 상대합니다. 총을 쏘기 전에 정치 환경을 미리 만드는 선행 작업이 이들의 일입니다. 홍콩이 중국에 넘어가기 한참 전부터 친중 사업가와 언론인을 포섭해 저항 의지를 미리 갈라놓았습니다. 대만을 상대로는 인플루언서를 사들이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정보 작전을 뒤에서 지휘합니다.

바다로 나가면 해상민병대가 있습니다. 흔히 어선 수천 척을 떠올리지만 범위가 더 넓습니다. 상업용 로로선과 상륙정 선원까지 여기에 포함됩니다. 유사시 대만으로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물류의 손발이 이들입니다. 신장에서는 신장생산건설병단이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1954년 신장 통제를 위해 세워진 반군사·농업 결합 기관인데 제대 군인과 한족 이주민을 정착시켜 경제 개발과 치안을 함께 맡겼습니다. 이 조직은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지우고 감시 체계를 심는 식민화 엔진 노릇을 했습니다. 점령지에서 인구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선례로 읽힙니다.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면

숙청의 규모는 몇 개 숫자를 더 얹으면 실감이 커집니다. CSIS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고위 지도자 62명이 잘렸습니다. 2022년 당시 최고위 장성이었거나 이후 진급한 47명 가운데 41명 곧 87퍼센트가 숙청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시진핑이 손수 별을 달아 준 장성 35명 중 32명이 조사를 받았고 29명이 숙청되었습니다. 2016년에 일곱 명으로 줄였던 중앙군사위원회에서도 다섯 명이 잘려 나갔습니다. 자기가 앓힌 사람을 자기가 다시 쳤습니다.

시진핑은 인사만 손보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고위 간부들을 모아 사상 학습과 반부패 수사를 함께 넣은 이념 훈련 캠프를 직접 지시하고 개막 연설을 했습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당 위원회의 질이 부대 전투력을 좌우한다며 정치적 충성과 이념의 정통성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충성에 대한 이런 지나친 집착이 권력에

아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자기 실력을 솔직히 돌아보는 눈을 흐린다고 봅니다. 살아남은 지휘관들이 위험을 스스로 떠안기를 꺼리면 중국군 안에서 오래 지적돼 온 평화병과 다섯 가지 무능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다섯 가지 무능이란 상황을 읽고 결심하는 기본 능력이 떨어진다는 자체 진단입니다. 이 흐름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뒤 장에서 계속 따라갑니다. 다만 사령탑이 얇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이 곧 움직인다고 앞질러 단정할 일도 위협을 낮춰 볼 일도 아닌 편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하나만 더 남겨 두겠습니다. 인민해방군을 국가 군대로 읽는 순간 뒤의 모든 장이 어긋납니다. 무기 수량을 세고 함정 이름을 외워도 지휘의 마지막 문을 여는 손이 누구인지 놓치면 판단이 빗나갑니다. 중국군의 장점도 약점도 그 손에서 나옵니다. 당이 명령을 한곳으로 모으니 큰 방향 전환은 빠를 수 있습니다. 군종과 전구와 준군사 조직이 같은 정치 언어를 쓰도록 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구조가 나쁜 소식을 위로 올리지 못하게 만들고 현장 지휘관을 얼어붙게 합니다. 충성이 실력의 대용품처럼 쓰일 때 군대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고 속에서는 판단 능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숙청은 중국군의 약화만 뜻하지 않습니다. 당의 통제가 더 촘촘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휘부가 비었다고 곧바로 손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남부전구와 동부전구의 빈자리 로켓군의 상처 정보지원부대와 사이버공간군의 흔들림이 동시에 존재해도 군은 훈련을 굴리고 항공기를 띄우며 회색지대 압박을 계속합니다. 권력은 사람 하나를 잃으면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다만 그 대체가 경험과 전문성의 대체인지 충성 서약의 대체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위협을 낮춰 보거나 과장하는 두 길 중 하나로 빠집니다.

앞으로의 장들은 이 긴장을 따라갑니다. 조직도는 새로 그려졌고 병력과 함정과 미사일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도를 움직이는 명령 체계는 당의 생존 논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텐안먼의 기억 소련 붕괴의 기억 장성들의 후원망에 대한 두려움이 군사 판단 위에 얹혀 있습니다. 대만해협 남중국해 한반도 이야기는 모두 이 첫 장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인민해방군은 누구의 군대인가. 답은 짧습니다. 당의 군대입니다. 그 짧은 답이 이 원고 전체의 긴 그림자를 만듭니다.

이 첫 장의 결론은 다음 장들의 읽는 법이기도 합니다. 중국군의 무기는 국가 안보의 도구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의 위기감과 체제 보존 본능을 실어 나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군사 개혁과 반부패와 이념 교육은 서로 떨어진 정책이 아닌 편입니다. 한 손에는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있고 다른 손에는 정치위원과 사상 학습이 있습니다. 중국군을 볼 때 두 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보면 힘을 과소평가하거나 약점을 놓치게 됩니다.

이 관점은 뒤에서 만날 모든 숫자를 다시 읽게 합니다. 101명의 숙청 52퍼센트의 최고위직 타격 두 사람만 남은 중앙군사위원회 같은 숫자는 행정 사고가 아닌 편입니다. 당이 군을 다시 묶는 방식입니다. 그 대가는 작전 경험의 손실입니다. 당은 그 대가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중국군의 모순이 선명해집니다. 당에 대한 충성은 군을 한 방향으로 묶습니다. 동시에 전문 장교들이 현실을 말할 공간을 줄입니다. 전쟁에서는 두 힘이 모두 작동합니다. 명령은 빠르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명령을 고치는 길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 양면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 장의 마지막 확인입니다. 그래서 뒤의 모든 군사 수치는 정치 구조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2장 인민해방군의 구조와 2015년 개편의 유산

조직도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왼쪽은 2015년의 중국 인민해방군입니다. 맨 위에 중앙군사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로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군부 총장비부라는 네 개의 커다란 상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른바 4대 총부입니다. 그 옆으로는 전국을 일곱으로 나눈 군구 곧 7대 군구가 지도를 덮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2016년의 조직도입니다. 4대 총부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중앙군사위원회 아래에 열다섯 개의 부서와 하나의 위원회가 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일곱 개였던 군구는 다섯 개의 전구로 바뀌었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입니다.

이 두 장의 그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따라가는 것이 이 장의 일입니다. 그림만 보면 상자 몇 개를 지우고 다시 그린 행정 개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개편은 중국 군대가 자기 몸의 뼈대를 통째로 바꾼 사건입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이 펴낸 연구서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s Organization Volume 3.0'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이 변화를 '전면적 구조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 연구서 자체가 2002년의 1권 2018년의 2권을 잇는 세 번째 판이라는 사실이 이미 말해 줍니다. 중국군의 조직은 20년 넘게 연구자들이 판을 새로 찍어야 할 만큼 계속 움직여 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왜 일곱을 다섯으로 줄였는지부터 봅니다. 숫자만 보면 둘을 없앴 것이니 규모가 작아진 듯합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7대 군구 시절 명령은 곧게 흐르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내린 지시가 4대 총부를 거치고 각 군종 사령부를 거치고 그다음에야 야전 부대에 닿았습니다. 계단이 많은 만큼 시간이 걸렸고 계단마다 자기 권한을 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평시에는 그럭저럭 굴러갔습니다. 그러나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같은 시각에 같은 목표를 향해 손발을 맞춰야 하는 합동작전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됐습니다. 각 군구와 군종 사이에 칸막이가 높아 빠른 결심과 통합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6년 개편은 이 계단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4대 총부를 해체하고 명령이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곧바로 전구로 내려가도록 지휘선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전구 사령관은 자기 관할 안에 있는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을 하나로 묶어 지휘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지역에 육군 사령부 해군 함대 공군 사령부가 따로 존재하며 각자의 상급 기관에 보고했다면 이제는 그 지역의 전구 사령관 한 사람이 모든 색깔의 부대를 함께 부리는 그림으로 바뀐 것입니다. 인민해방군이 오래 매달려 온 '합동작전'이라는 말이 조직표 위에서 처음으로 형태를 갖춘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군사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개편에는 군사 밖의 이유가 함께 얹혀 있습니다.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마주한 군대는 여러 연구자의 눈에는 당의 지시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온 조직이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분석에 인용된 존 컬버는 2002년 이후 인민해방군이 부패가 깊어지면서 점점 더 자율적으로 변해 갔다고 짚습니다. 이때 '자율적'이라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닌 편입입니다. 당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이권과 자기 논리로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 갔다는 뜻입니다.

당 지도부가 이것을 얼마나 무겁게 봤는지는 두 개의 기억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989년 톈안먼입니다. 그때 일부 최고위 지휘관들이 유혈 진압에 나서라는 지시에 저항한 일이 있었습니다. 군이 당의 명령 앞에서 머뭇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 지도부는 직접 겪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련 공산당의 붕괴입니다. 당과 군의 결속이 풀렸던 것이 그 붕괴의 한 원인이었다는 뼈아픈 교훈을 중국공산당은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두 기억 위에서 보면 열한 명이던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일곱 명으로 줄이고 최고 결정권을 오직 주석 한 사람에게 모으도록 재편한 조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일곱을 다섯으로 쪼갠 것도 같은 결의 판단입니다. 한 지역에 오래 눌러앉은 사령관이 그 땅에서 작은 왕처럼 굳어지는 일을 구조 자체로 막으려는 설계였습니다. 지방 사령관이 힘을 키워 당 중앙에 맞서는 그림을 없애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만이 흐르는 수직의 뼈대를 세우려 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해석은 자료가 직접 문장으로 밝힌 것이라기보다 여러 근거를 이어 붙인 추정이라는 점을 함께 적어 둡니다.

인적인 쇄신도 개편과 붙어 있었습니다. 7대 군구 시절 한 지역에서 오래 복무한 장성들은 인사권과 이권 사업을 매개로 두꺼운 인맥을 쌓았습니다. 중국에서 '관시'라고 부르는 그 비공식 후원망입니다. 시진핑은 집권 초기에 궈보슝과 쉬차이허우 같은 전직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숙청하며 칼을 빼 들었지만 수뇌부 몇 명을 갈아 치우는 것만으로는 굳어 버린 인맥의 지도를 지울 수 없다고 봤습니다. 상자 자체를 부수고 새 상자를 그려야 그 위에 자기가 신뢰하는 젊은 지휘관을 앉힐 수 있었습니다. 구조 개편과 인사 쇄신이 한 몸으로 움직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전쟁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 7대 군구 체제는 기계화된 재래식 전쟁을 머릿속에 두고 짜인 틀이었습니다. 그 틀로는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무인기 같은 새 영역의 자산을 한 손에 쥐고 부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지능화 시대 관련 보고서는 중국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전쟁 전반으로 넓혀 쓰는 '지능화 전쟁'의 승리를 목표로 군사이론을 새로 짜고 있다고 봅니다. 이 목표를 담으려면 그릇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다섯 개의 전구가 실시간으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현대적 지휘·정찰 네트워크가 있어야 새 무기들이 제 몫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뼈대를 바꾼 다음의 문제 곧 육군 중심의 몸에서 합동작전의 몸으로 어떻게 옮겨 갔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인민해방군은 육군이 압도하는 기형에 가까웠습니다. 2004년 무렵 중앙군사위원회 열한 명 안에는 육군을 중심으로 군을 이끌던 4대 총부의 수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명령은 총부와 군종 사령부를 거치며 갈라졌고 그만큼 통합은 멀었습니다. 시진핑은 2016년에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석 한 명 부주석 두 명 그리고 연합참모부를 비롯한 핵심 부서의 수장 넷을 더한 일곱 명으로 좁혔습니다. 4대 총부를 해체해 열다섯 개 부서로 훔쳤습니다. 권한을 한곳에 쌓지 않고 여러 갈래로 나누되 맨 위의 결정만은 주석에게 모이도록 한 배치입니다.

육군은 여전히 큼니다. 대만 국방부의 2025년 국방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육군은 약 96만 5천 명을 유지하며 규모로는 큰 군종입니다. 달라진 것은 그 큰 육군이 더는 혼자 명령의 흐름을 쥐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전구 사령관이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을 함께 지휘하게 되면서 육군 중심의 칸막이가 조직표 위에서는 허물어졌습니다.

합동작전이 실제로 돌아가려면 조직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흩어진 부대와 무기를 실시간으로 잇는 신경망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군은 이 신경망을 여러 차례 다시 짚습니다. 2015년에 만든 전략지원부대를 2024년 4월에 공식 해체하고 그 자리를 정보지원부대 항공우주군 사이버공간군으로 나누어 세웠습니다. 대만 국방보고서는 새로 생긴 정보지원부대를 인민해방군 합동작전 체계의 '신경 중추'라고 부릅니다. 전장의 데이터 링크를 이어 주고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을 한데 묶어 작전 부대에 실시간으로 대주는 일이 그 임무입니다. 이름을 세 번 바꿔 가며 이 기능을 계속 손봤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군이 신경망 문제를 얼마나 풀기 어려운 숙제로 여기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 모든 개편은 하나의 날짜와 이어져 있습니다. 2027년 건군 100주년입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보고서는 중국군이 2027년 목표를 위해 합동작전 능력 구축을 급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27년은 능력을 갖추기로 한 시한이지 그해에 어디를 침공한다는 날짜가 아닌 편입니다. 두 가지는 뜻이 전혀 다릅니다. 능력의 시한을 침공의 날짜로 옮겨 읽으면 자료가 말하지 않은 것을 자료의 이름으로 말하게 됩니다. 본문은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근래 중국군이 자주 꺼내는 말이 '전장 집행 능력'입니다. 최고 지휘관의 '작전 의도'를 실제 작전 성과로 바꿔 내는 힘을 가리킵니다. 현대전은 전장이 복잡하고 작전 속도가 빨라 최전선의 지휘관이 위의 큰 뜻을 받아 눈앞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결단하고 부대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받치려고 중국군은 상시화된 합동훈련의 틀을 짜고 체계와 체계가 맞붙는 대결 능력을 키우자고 요구합니다. 적의 타격을 맞은 뒤에도 부서진 장비를 서둘러 고치고 기름과 탄약을 유연하게 나누는 흠어지고 이어진 군수 지원을 전장 집행의 한 축으로 봅니다. 첫날 화력이 아니고 그다음을 버티는 힘을 말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뼈대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붙어 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분석은 이 지점을 날카롭게 짚습니다. 쏟아지는 전장 데이터 속에서 합동작전을 하려면 하급 부대에 결심 권한을 내려 주는 '임무형 지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군을 중앙에서 꼭 쥐려는 당의 선호와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위는 현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현장은 위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그 결과 고위 지휘관이 중간 제대를 건너뛰어 최전방을 직접 통제하는 '건너뛰기식 지휘'가 잦아진다고 이 분석은 봅니다. 겉은 합동작전의 틀을 갖췄는데 속은 명령을 기다리느라 느려지는 모순입니다. 조직표를 바꾸는 일과 지휘 문화를 바꾸는 일은 같은 속도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장면이 말해 줍니다.

이 모순을 풀려는 처방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리한 제15차 5개년 국방정책을 보면 중국은 2026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계획을 통해 '군사 거버넌스 현대화'와 '전략 관리'를 앞세웠습니다. 무기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합동작전 체계를 다듬고 군의 영도·관리 방식을 손보아 주석 책임제를 확실히 관철하려는 뜻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정치건군' 곧 정치로 군을 세운다는 원칙을 계속 앞세운다는 점도 짚습니다. 당의 통제를 먼저 두고 그 위에서 현대화를 엮는 순서입니다. 아울러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군으로 빠르게 들여오는 '민참군'의 통로를 넓혀 인공지능과 무인기 같은 자산을 합동작전에 엮으려 합니다. 민간이 군을 돕는 이 방향은 군이 민간을 끌어가는 방향과는 결이 다르므로 둘을 나눠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정직하게 적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그림은 대부분 2015년 이후의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이 닫고 선 자료에는 큰 공백이 있습니다. 2015년 이전의 조직사가 거의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제임스타운 연구서가 세 번째 판이라는 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이 3권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를 다룹니다. 2002년의 1권과 2018년의 2권에 담겼을 그 이전의 편제 군벌처럼 굳어진 권력 구조 덩샤오핑과 장쩌민 시절의 지휘 방식은 이 장의 자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편의 '결과'는 자세히 말할 수 있어도 개편이 무엇을 뜯어고쳤는지를 그 이전의 실물로 보여 주기는 어렵습니다. 7대 군구의 사령관이 자기 땅에서 실제로 어떤 이권을 쥐었는지 4대 총부가 서로 견제 없이 어떻게 몸집을 불렸는지 그 구체적인

작동의 그림이 손안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재수집 대상으로 남깁니다.

인물의 뿌리도 잘려 있습니다. 귀보송과 쉬차이허우가 2002년 무렵 권력을 쥔 뒤 약 10년간 부패를 키웠다는 큰 줄기는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야전군 출신을 끌어 주며 후원망을 짰는지 그 세부는 비어 있습니다. 이 뿌리를 모르면 오늘의 숙청이 왜 이렇게 넓고 깊은지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장유샤나 류전리 같은 이름이 2015년 이전의 어떤 인맥 위에서 자랐는지 추적하는 인물 조직사가 있어야 부패의 지도를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유샤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부패인지 권력 다툼인지 침공을 신중히 보는 태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본문은 판단을 미뤄둡니다. 자료가 하나로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략과 교리의 진화도 중간이 끊겨 있습니다. 1989년 톈안먼 직후 덩샤오핑이 양상쿤·양바이빙 형제를 쳐내며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한 대목은 자료에 인용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부터 2020년대의 지능화 전쟁으로 이야기가 훌쩍 건너뛴다. 중국군이 인해전술의 농민군에서 벗어나 기계화와 정보화를 처음으로 몸에 새기던 그 고된 과정이 비어 있습니다. 자료 목록의 각주에는 1995년과 1996년 대만해협 위기를 다룬 문헌의 이름이 보이지만 그 위기가 중국군의 조직과 해군·공군 현대화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그 내용은 이 장의 텍스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때 미국 항공모함 전단 앞에서 겪은 좌절과 1991년 걸프전을 지켜본 충격이 이후 개혁의 씨앗이 되었으리라는 짐작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짐작이고 이 장의 자료로는 그 연결고리를 실물로 보일 수 없습니다.

이 공백을 굳이 드러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가 넉넉한 부분과 비어 있는 부분을 뭉뚱그려 한 목소리로 말하면 독자는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추정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본문의 약속은 그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이후의 뼈대에 대해서는 자료가 말하는 만큼 말하고 그 이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적는 편이 정직합니다. 제1부 전체가 시진핑 시대의 '결과'만 나열하지 않으려면 장쩌민에서 후진타오로 이어지는 시기의 부패 구조와 초기 군사 혁신사를 뒤에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 보강이 이 장의 다음 숙제입니다.

두 장의 조직도로 시작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자는 정리됐고 계단은 줄었으며 색깔이 다른 부대들이 한 사령관 아래 묶였습니다. 이만하면 뼈대는 새로 섰습니다. 그러나 그 뼈대를 움직이는 현장의 자율과 숙련된 지휘부라는 근육은 당의 통제 욕구와 계속되는 인적 쇄신 속에서 아직 제 모습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개편은 끝났는데 개편의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 어긋남이 2015년이 남긴 유산의 진짜 얼굴입니다.

전구 다섯 개를 지도 위에 펼쳐 놓고 각자 무엇을 맡는지 하나씩 짚어 봅니다. 동부전구부터 살펴봅니다. 이 부대는 대만해협을 정면으로 마주 봅니다. 자료는 동부전구를 대만 무력 통일의 선봉으로 지목합니다. 남부전구는 남중국해를 관할합니다. 필리핀 베트남과 부딪치는 그 바다가 남부전구의 앞마당입니다. 서부전구는 다릅니다. 대숙청의 칼날을 오래 피해 있던 부대로 자료에 등장하지만 서부전구가 어느 국경을 어떤 방식으로 지키는지 그 임무의 세부는 이 장의 자료 안에 문장으로 담겨 있지 않습니다. 북부전구와 중부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있지만 관할과 임무를 밝힌 텍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는 대만 남부는 남중국해라고 말할 수 있어도 나머지 세 전구의 몫을 지도 위에 색칠하려면 자료를 더 모아야 합니다. 이 세 전구의 임무는 재수집 대상으로 남깁니다.

이렇게 다섯으로 쪼갠 뼈대 위에서 명령의 실제 통로가 어떻게 놓였는지 이어서 살펴봅니다. 4대 총부가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중앙군사위원회 아래 열다섯 개 부서와 하나의 위원회가 나누어 채웠습니다. 이 열다섯 개를 다 나열하는 일은 이 장의 자료로는 어렵습니다. 자료가 이름을 분명히 밝힌 부서는 몇 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몇 개만 정확히 짚어 봅니다. 하나는 연합참모부입니다. 자료는 이 부서를 합동작전 기획과 명령 하달의 심장부라고 부릅니다.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구 사령관에게 실어 나르는 작전의 대동맥이 연합참모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비발전부입니다. 무기 조달과 장비 사업을 맡는 이 부서는 뒤에서 다룰 숙청 통계에 로켓군과 나란히 이름을 올립니다. 돈과 물자가 흐르는 자리인 만큼 부패의 표적이 되기 쉬웠다는 뜻을 그 통계가 던지시 비춥니다. 나머지 열세 개 부서의 이름과 역할은 이 장의 자료에 상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열다섯이라는 숫자만 확인될 뿐 그 안을 한 칸씩 채우는 일은 다음 숙제로 남깁니다.

신경망을 맡은 부대들 쪽으로 눈을 옮겨 봅니다. 앞에서 정보지원부대를 합동작전의 신경 중추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정보지원부대와 함께 태어난 형제가 둘 더 있습니다. 항공우주군과 사이버공간군입니다. 2015년에 세운 전략지원부대를 2024년 4월에 공식 해체하면서 그 자리를 이 세 부대가 나누어 물려받았습니다. 다만 항공우주군이 위성을 어떻게 지키고 사이버공간군이 적의 지휘망을 어떻게 흔드는지 그 구체적 임무를 밝힌 문장은 이 장의 자료 안에 없습니다. 이름만 있고 직무 기술서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성과 사이버가 두 부대의 영역이라는 짐작은 이름에서 곧바로 떠오르지만 짐작은 짐작으로 적어 둡니다. 자료가 밝힌 사실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이 신설 부대들도 숙청의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자료는 2026년 6월 사이버공간군 사령원 장명화가 숙청된 사례를 기록합니다. 갓 만든 부대의 수장부터 흔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숙청의 규모를 숫자로 마주하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만든 중국군 숙청 데이터베이스는 최고위직 176개 자리를 헤아립니다. 중앙군사위원회와 전구 사령관 부사령관급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176개 자리 가운데 101명이 숙청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절반을 넘긴 52퍼센트입니다.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수뇌부의 절반이 자리에서 사라지면 그 조직은 한동안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타격은 고르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공의 선봉인 동부전구 남중국해를 지키는 남부전구의 지휘부가 궤멸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습니다. 로켓군과 장비발전부의 장성들도 대거 낙마했습니다.

심장부인 연합참모부도 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대동맥이라고 부른 그 부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연합참모부는 수장인 류전리를 포함해 부참모장 네 명이 숙청되거나 실종되면서 지휘 기능이 흔들렸습니다. 참고로 류전리를 둘러싼 이 논란의 원인이 부패인지 권력 다툼인지 침공을 신중히 보는 태도 때문인지 본문은 장유샤와 마찬가지로 판단을 미뤄 둡니다. 자료가 하나로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에는 시진핑 주석과 규율검사위 서기 장성민 두 사람만 남았다고 자료는 적습니다. 작전 경험을 가진 장성이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마오화 같은 이름이 더해집니다. 이들이 2015년 이전 귀보송과 쉬차이허우의 후원망 위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그 뿌리는 앞 장에서 밝혔듯 자료가 비어 있는 부분입니다.

숙청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보고서는 근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자격을 잃은 장성 여섯 명을 추가로 기록합니다. 이 여섯 명의 이력에 눈길이 갑니다. 대다수가 2015년 개편 뒤 새로 생긴 조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항공우주군 사이버공간군 전구 지휘부처럼 시진핑이 손수 세운 자리입니다. 오래 칼날을 피해 있던 서부전구와 공군까지 이번에는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만든 새 뼈대 위에 앉힌 사람들마저 다시 쳐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료는 이렇게 읽습니다. 작전 경험이나 전문성보다 이념과 개인적 충성을 지휘관의 첫째 자질로 삼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파벌의 씨앗을 영구히 뽑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만큼 보면 걱정 하나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뼈대를 새로 세웠는데 그 뼈대를 움직일 사람의 절반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료는 이 상황을 제도적 마비의 위험으로 봅니다. 텅 빈 사령탑과 경험이 얇은 신임 장성들은 책임을 지기보다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만 찾으려 하고 상부의 눈치를 살피는 기풍에 젖기 쉽다는 우려입니다. 앞에서 다룬 건너뛰기식 지휘의 병폐가 사람이 비어 버린 지휘부 위에서 한층 깊어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체계가 실제로 손발을 맞추는 모습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합동 상륙훈련이나 봉쇄 연습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훈련 사례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 장의 자료 안에는 특정 연도의 구체적인 합동훈련 장면이 문장으로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말하는 것은 원칙의 총위입니다. 상시화된 합동훈련의 틀을 짜야 한다는 요구 체계와 체계가 맞붙는 대결 능력을 키우자는 주문 이런 방향의 언어입니다. 실제로 어느 전구가 언제 어떤 시나리오를 돌렸는지 그 실물 장면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재수집 대상으로 둡니다. 원칙은 있는데 장면이 없는 상태 이 빈칸을 채우는 일이 뒤따르는 취재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한 하나를 다시 붙잡아 둡니다. 지금까지 살핀 개편과 숙청은 모두 2027년이라는 해로 수렴합니다. 건군 100주년입니다. 자료는 중국군이 이 해를 목표로 합동작전 능력 구축을 첫째 과제로 삼는다고 적습니다. 2027년은 능력을 갖추기로 한 시한입니다. 그해는 어디를 침공한다는 날짜로 읽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는 뜻이 전혀 다릅니다. 능력의 시한을 침공의 날짜로 옮겨 읽는 순간 자료가 말하지 않은 것을 자료의 이름으로 말하게 됩니다. 본문은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2015년 개편을 그래서 성공과 실패 중 하나로만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성공한 부분은 분명합니다. 오래된 4대 총부의 왕국을 해체했고 전구가 실제 작전을 맡는 합동 지휘 틀을 세웠습니다. 군종은 무기를 기르고 전구는 현장을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전구로 내려가는 선도 짧아졌습니다. 종이 위의 조직도만 보면 과거보다 훨씬 곧고 빠른 체계입니다.

하지만 지휘선이 짧아졌다는 말이 판단이 빨라졌다는 뜻은 아닌 편입니다. 전구 사령관이 모든 군종을 한데 묶어 움직이려면 현장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권한은 늘 정치위원회와 당 위원회의 눈을 통과합니다. 지휘관은 전장 데이터를 보고 결심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결심이 정치적으로 안전한지 계산합니다. 작전 효율과 정치 충성이 한 책상에 앉아 서로를 밀어냅니다. 이 긴장이 2015년 개편의 진짜 유산입니다.

개편 뒤에 찾아온 숙청은 이 유산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시진핑은 낡은 파벌을 걷어냈지만 새로 세운 체계의 사람들도 다시 쳐냈습니다. 로켓군 장비발전부 전구 사령부 신설 기술부대까지 칼날이 닿았습니다. 낡은 조직을 없앤 뒤 새 조직의 지휘관까지 비우는 일은 당의 통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작전에는 빈칸을 남깁니다. 대만을 상대하려면 육해공 로켓 우주 사이버 물류가 한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작전을 맡을 사람이 교체와 조사와 임시 대행 속에서 계속 흔들립니다.

2027년이라는 해도 이 틀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건군 100주년까지 일정 수준의 합동작전 능력을 갖추라는 목표입니다. 침공 날짜가 아닌 편입니다. 이 차이를 지키지 않으면 개편의 의미도 틀어집니다. 중국군은 분명 더 현대적인 틀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그 틀을 움직이는 사람과 문화는 더 강한 정치 통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조는 현대화됐고 지휘 문화는 더 중앙으로 당겨졌습니다. 그 두 방향이 서로 어긋나는 곳에서 중국군의 실제 능력이 결정됩니다.

개편의 언어도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중국은 군사 거버넌스 현대화 전장 집행 능력 정치건군 같은 표현을 나란히 씁니다. 앞의 두 말은 효율과 속도를 가리키고 뒤의 말은 충성과 통제를 가리킵니다. 세 말이 한 문장 안에 놓일 때 중국군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더 빨리 싸우려면 현장에 맡겨야 합니다. 더 확실히 지배하려면 현장을 묶어야 합니다. 2015년 개편의 구조는 바로 이 두 요구 사이에 놓인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전쟁의 압력을 견딜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개편은 과거의 낡은 군구 체제를 해체했지만 전쟁의 모든 문제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전구가 합동작전의 이름을 얻었다고 해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우주 사이버 물류가 자동으로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름표와 실제 손발 사이에는 훈련 지휘 문화 신뢰라는 긴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개편은 완성된 답이 아니고 긴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직은 고쳤지만 조직을 움직이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중국군은 합동작전을 말하지만 당의 통제는 여전히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 두 흐름이 충돌하는 순간 실제 전투력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새 조직의 이름보다 그 조직이 압박 속에서 어떻게 결심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3장 지휘구조 개편과 신설 군종

2025년 2월 하순 어느 날 대만 남서쪽 가오슝과 핑둥 앞바다에 중국 군용기 서른두 대가 예고 없이 떴습니다. J-11 전투기가 있었고 공중에서 전장을 내려다보며 다른 항공기를 지휘하는 조기경보기 KJ-500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실탄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대만 국방부가 2025년 국방보고서에 적어 둔 장면입니다. 화면에 잡히는 것은 항공기 서른두 대의 항적이지만 그 뒤에는 한 사람의 순간적인 결심이 아니고 하나의 지휘 구조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모르면 대만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위협적인 숫자가 늘어선 목록으로만 보입니다.

이 서른두 대를 움직인 것은 동부전구라는 사령탑입니다. 그리고 동부전구가 왜 그런 권한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십 년쯤 시간을 되감아야 합니다.

2016년 인민해방군은 자기 몸을 뜯어고쳤습니다. 그전까지 군의 실권은 육군을 중심으로 한 네 개의 총부 곧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군부 총장비부가 쥐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네 개의 총부를 해체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이 펴낸 조직 연구서 「인민해방군 하나의 조직으로 보기 3.0」은 이 개편의 핵심을 지휘선의 기초화로 정리합니다. 명령이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다섯 개 전구로 곧장 내려가도록 작전 통제선을 바꾼 것입니다. 그 결과 군종과 전구의 일이 갈렸습니다. 군종은 부대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사들이는 일 곧 군대를 기르는 일을 말합니다. 실제 싸움터에서는 전구 사령관이 자기 관할 안의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을 한 손에 모아 지휘합니다. 기르는 자와 쓰는 자를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군이 말하는 합동작전 구조의 뼈대입니다.

같은 개편으로 지도의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던 일곱 개의 군구가 사라지고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의 다섯 개 전구가 들어섰습니다. 전구는 저마다 마주 보는 분쟁 지역이 다릅니다. 앞서 본 동부전구는 대만 무력 통일과 동중국해 곧 일본 쪽 유사시 작전을 맡는 핵심 사령탑입니다. 대만 국방부 보고서는 동부전구 해군과 공군이 대만 해협에서 한 달에 세 차례가 넘는 고강도 합동 초계를 일상처럼 돌린다고 적었습니다. 앞바다의 서른두 대는 그 일상의 한 조각이었던 구조입니다. 여기에 '합동의 검-2024A'와 '합동의 검-2024B' '해협천동-2025A' '정의 사명-2025' 같은 이름이 붙은 대만 포위·봉쇄 훈련이 이어집니다. 이름만 바뀌 가며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남부전구는 남중국해와 필리핀 베트남 쪽을 봅니다. 서부전구는 인도 국경과 내륙을 말합니다. 지도 위 다섯 칸이 각자 다른 화약고를 지키고 있는 그림입니다.

전구가 현장의 지휘관이라면 군종은 그 손에 쥐여 줄 무기와 병력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대만 국방부 보고서는 각 군종의 몸집을 꽤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육군은 병력 약 96만 5천

명으로 큰 군종입니다. 무거운 전차를 앞세우던 과거에서 벗어나 낡은 전차를 밀어내고 산악과 좁은 지형에서도 빠르게 움직이는 ZTQ-15 경전차와 자주포를 들고 있습니다. 드론 부대도 늘리는 중입니다. 해군은 약 26만 명입니다. 항공모함 랴오닝과 산둥에 이어 전자식 사출기를 얹은 푸젠(Type 003)을 띄웠고 상륙 병력을 실어 나르는 Type 075와 더 새로운 Type 076 강습상륙함을 짓고 있습니다. 055형과 052D형 구축함 093B형과 094형 잠수함 그리고 먼바다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겨누는 YJ-21 미사일까지 미국의 개입을 밀어내는 이른바 반접근·지역거부 역량을 쌓아 올리는 방향입니다. 로켓군은 약 12만 명으로 극초음속 미사일과 여러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을 다룹니다. 대만 안의 표적과 미군 항모전단을 정밀 타격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하지만 이 로켓군에서 지휘 구조의 첫 번째 균열이 보입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최근 보고서 「시진핑 인민해방군 장성 여섯 명을 더 숙청하다」와 관련 자료를 함께 보면 로켓군은 역대 사령관 네 명 전원을 포함해 최고위층 열 명 넘게 부패 혐의 등으로 최근 숙청되었습니다. 예민한 핵무기를 다루는 부대의 지휘 계통이 통째로 흔들린 것입니다. 무기의 목록은 화려한데 그 무기를 지휘할 사람들이 줄줄이 사라졌습니다. 이 어긋남이 이 장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능부대로 넘어가면 개편은 더 최근까지 이어집니다. 현대전의 무게 중심이 정보와 지능으로 옮겨 가면서 중국군은 우주와 사이버 물류 국내 치안을 따로 떼어 전담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물류를 맡는 연합후근보장부대는 약 15만 명 규모로 지능형 모듈 장비와 수송용 드론으로 해상 수송과 연료 재보급을 담당합니다. 병력을 실어 나르는 쪽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이때 먼저 볼 것은 2024년 4월에 벌어진 또 한 번의 재편입니다.

2015년에 중국군은 우주와 사이버 전자전을 한데 묶은 거대 조직인 전략지원부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만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4월 이 전략지원부대를 다시 해체하고 세 개의 독립 부대로 쪼갠 것입니다. 정보지원부대 항공우주군 사이버공간군입니다. 왜 만든 지 십 년도 안 된 부대를 다시 갈랐을까요. 우주와 사이버라는 너무 넓고 이질적인 영역을 한 부대가 떠안으니 지휘에 병목이 생겼고 중앙군사위원회가 각 핵심 자산을 직접 쥐고 흔들려는 뜻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확인된 것은 재편의 사실이고 그 속내는 추정의 영역입니다.

세 부대 가운데 정보지원부대는 성격이 헛갈립니다. 이름만 보면 정보를 다루는 참모 조직 같지만 대만 국방부 보고서는 이 부대를 합동작전 체계의 '신경 중추'로 규정합니다. 전장의 데이터 링크를 깔고 실제로 싸우는 전구의 각 부대에 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흘러보내는 역할입니다. 뇌의 명령을 손발로 전하는 신경다발입니다. 이 부대의 성격은 평시보다 점령 상황에서 더 또렷해집니다. 정책 보고서들은 정보지원부대가 전통적인 전투 부대와 달리 기술 전문가들을 최전방까지 딸려 보낸다고 봅니다. 통신망이 끊긴 곳에서 데이터를 우회시키고 네트워크를 다시 세우며 파괴된 감시망과 방송 시스템을 빠르게 복구하는 훈련을 집중해 왔다는 것입니다. 대만을 점령한다면 바깥세상과의 인터넷 연결을 끊고 주민의 정보를 통째로 틀어쥐려는 인지전의 실행 부대가 되리라는 해석이 이때 나옵니다.

항공우주군은 하늘 위의 눈과 손입니다. 베이더우 위성항법 정찰 위성 통신 위성망을 굴러 전장을 훤히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이 본업입니다. 여기에 남의 위성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반우주 역량이 겹칩니다. 궤도 위에서 다른 위성에게 접근해 끌고 가는 능력을 시연한 사례가 보고되었고 위성끼리 근접 기동을 연습하는 정황도 지적됩니다. 미국의 스타링크에 맞서 저궤도에 위성 수천 개를 쏘아 올리는 대규모 위성망 사업도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주와 사이버의 세부 작전은 2부에서 따로 다루므로 이때는 이 부대가 지휘망의 어느 자리에 놓였는지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항공우주군은 개전 초기에 눈과 귀를 먼저 장악하는 부대입니다.

사이버공간군은 전자기 스펙트럼과 네트워크를 맡습니다. 사이버 방어와 공격 신호 감청 전자 대항이 이 부대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최첨단 부대에서도 지휘부의 균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임스타운 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6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군 개혁 이후 요직을 차지했던 장성들의 대표 자격을 무더기로 박탈했는데 그 안에 사이버공간군 사령원 장밍화 중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앞서 정보지원부대의 초대 정치위원 리웨이 등 신설 부대 지휘부도 숙청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부대는 새로 만들었는데 그 부대를 이끌 지휘관은 자꾸 사라집니다.

전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 숙청 분석 자료를 자료를 모아 보면 대만을 마주 보는 동부전구에서 사령관과 육군 사령관이 물러나고 실전 경험이 얇은 인물이 새 사령관으로 앉았으며 남부전구는 사령관과 정치위원 부사령관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제거되어 사령탑이 사실상 비었고 서부전구도 사령관과 정치위원이 숙청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구체적인 인사 정황은 아직 추정의 영역에 있고 자료마다 이름과 시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전구 군종 신설 부대라는 세 축 모두에서 최고위 지휘관들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조직도의 겉모습입니다. 상자와 화살표만 보면 물샷틈없는 유기체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가 결심하고 정보지원부대가 전장을 잇고 군종이 무기와 화력을 대며 전구

사령관이 이를 현장에서 종합하고 후근보장부대와 준군사 조직이 뒤를 받칩니다. 그림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그림이 종이 위에서만 매끄럽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 이 장의 세 번째 이야기 곧 지휘 문화의 충돌로 들어갑니다. 미국 랜드연구소가 2026년 1월에 낸 보고서는 제목부터 이 문제를 정면으로 겨눕니다. 중국군이 임무형 지휘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가 앞으로의 미중 충돌을 어떻게 바꿀지 따진 글입니다. 임무형 지휘라는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상급 지휘관은 '무엇을 달성하라'는 목표만 내리고 어떻게 할지는 현장 지휘관이 스스로 정하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방식이 필요할까요. 중국군 연구자들조차 미래 전장이 데이터의 홍수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쏟아지고 싸움의 속도가 빨라지면 현장 지휘관이 매번 상부의 결재를 기다려서는 늦습니다.

중국군은 이 필요를 '전장 집행'이라는 교리 용어로 붙잡으려 합니다. 한자로 战场执行입니다. 2025년 2월과 6월에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에 실린 군사 포럼 글들은 최고 지휘관의 '작전 의도'를 실제 전투 효과로 바꿔 내는 것이 바로 최전선 지휘관의 전장 집행 능력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현장 지휘관이 상황에 맞게 부대를 스스로 굴릴 수 있도록 '임기처치권한' 곧 현장 판단 권한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상부는 큰 목표만 내리고 실행 부대가 방법을 알아서 정하는 '규제된 자율성'을 주자는 것입니다. 랜드연구소가 인용한 중국의 15차 5개년 국방정책(2026년부터 2030년까지)도 이런 전장 집행 능력을 요구합니다. 교리 문서만 놓고 보면 중국군은 임무형 지휘로 성큼 다가서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벽에 부딪힙니다. 현장에 자율을 주자는 군사적 요구가 인민해방군의 뺏속에 박힌 정치적 지휘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랜드연구소는 베이징이 무엇보다 군에 대한 중앙집권적 정치 통제를 앞세우기 때문에 임무형 지휘의 채택이 어중간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충돌의 한복판에는 인민해방군 특유의 이중 지휘 구조가 있습니다. 군사 지휘관 옆에 언제나 당을 대표하는 정치위원이 나란히 섭니다. 이 구조는 당의 통제와 군사적 효율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장치지만 두 목소리가 겹치면서 결심의 속도를 늦춥니다. 여기에 상급자가 아랫사람을 못 믿어 세세한 일까지 챙기는 미시 관리가 겹칩니다. 그 결과 현장 지휘관에게 넘어간 권한은 이름만 남고 실속은 사라집니다. 랜드는 이를 '이름뿐인 자율성'이라 불렀습니다.

불신은 또 하나의 기형을 낳습니다. 상급 지휘관이 중간 제대를 건너뛰고 최전방 부대까지 직접 손을 뻗는 '건너뛰기식 지휘'입니다. 중간 지휘관을 못 믿으니 꼭대기에서 밑바닥까지 직접 명령하려 드는 것입니다. 복잡한 여러 영역의 작전을 동시에 굴려야 하는 현대전에서 이는 군의 유연함을 갉아먹는 약점입니다. 명령의 사다리가 튼튼해야 빠르는데 그 사다리를

지휘관이 스스로 걷어차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적 모순은 최근의 대숙청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2026년 1월 인민해방군의 최고위 장성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와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전리가 숙청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전 기획과 실행의 최상단에 있던 인물들입니다. 다만 장유샤가 왜 물러났는지 그 이유는 아직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부패 때문이라는 해석 권력 다툼이라는 해석 무력 통일에 신중하자는 입장이 화를 불렀다는 해석 심지어 반역설까지 자료마다 갈립니다. 본문은 그 원인을 하나로 못 박지 않고 판단을 미뤄 둡니다. 확인된 사실은 숙청이 있었다는 것과 그 자리가 임무형 지휘와 전장 집행을 밀어붙이던 핵심 위치였다는 것뿐입니다.

살아남은 장성들과 새로 진급한 지휘관들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는 어렵지 않게 그려집니다. 정치적 충성을 증명하는 데 온 신경을 쏟게 됩니다. 통제가 지나치게 조여지면 장교들은 훈련의 현실성보다 상부의 사상 검열을 통과하는 데 매달립니다. 랜드연구소는 이런 맹목적 복종이 중국 지도부가 두려워하는 '평화병'과 '5개 불가'를 오히려 키운다고 경고합니다. 평화병은 실전을 겪지 못한 군대가 안일해지는 병입니다. 5개 불가는 지휘관이 상황을 못 읽고 작전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며 스스로 결심하지 못하는 무능을 가리키는 중국군 내부의 표현입니다. 처벌이 두려운 현장 지휘관은 위험을 극도로 피하고 상부의 명시적 지시가 없으면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는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경험이 얇은 새 장성들은 시진핑 주석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좋은 소식만 위로 올리려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나쁜 소식이 걸러지면 지도부는 자기 군대의 실제 실력을 부풀려 보게 되고 대만을 겨눈 중대한 결정에서 파멸적인 오판을 내릴 위험이 커집니다.

이 충돌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랜드연구소는 세 갈래의 미래를 그립니다. 하나는 중국군이 임무형 지휘를 온전히 끌어안는 길입니다. 이 경우 중국군의 결심은 빨라지고 회복력이 좋아지며 자신감을 얻은 지도부가 무력을 더 과감하게 쓸 수 있습니다. 미군이 오랫동안 기대 온 전술 곧 적의 중앙 지휘망을 때려 마비시키는 방식의 효과도 크게 줄어듭니다. 다른 하나는 어중간하게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윗선은 개념을 수용하지만 중간 지휘관이 여전히 아랫사람을 못 믿어 부대마다 권한 위임이 들쭉날쭉해집니다. 어떤 부대는 잘 굴러가고 어떤 부대는 위임받은 권한을 오해하거나 넘어서서 과격하게 움직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위에서 조율되지 않은 우발적 충돌이 터질 위험이 이때 나옵니다. 마지막 길은 결국 중앙집권 통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의 통제 본능이 군사적 효율을 짓눌러 조직 자체가 권한 위임에 저항하고 옛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러면 중국군의 결심은 극도로 느려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며 끝내는 싸우려는 의지마저 약해집니다.

세 갈래 중 어디로 갈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은 세 번째 길의 무게를 키웁니다. 아무리 정보지원부대가 첨단 네트워크를 깔고 항공우주군이 위성망을 넓히며 사이버공간군이 전자전을 준비하더라도 현장 지휘관이 처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상부의 승인 없이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면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속도와 유연성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당이 체제 생존을 위한 이중 지휘 구조와 정치위원의 통제를 놓지 못하는 한 중국군이 내세우는 임무형 지휘는 작동하지 않는 이름표에 머물기 쉽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2027년은 대만을 치는 날짜가 아닌 편입니다. 그것은 건군 100주년에 맞춰 세운 능력 건설의 시한입니다. 목표한 해까지 특정 수준의 전투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지 그해에 전쟁을 벌이겠다는 시간표가 아닌 편입니다. 이 둘을 같은 말로 섞어 쓰면 위험의 크기를 잘못 읽게 됩니다. 능력을 갖추는 것과 그 능력을 실제로 쓰는 결정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그림은 두 겹입니다. 겉면에는 2016년과 2024년의 개편으로 잘 정돈된 조직도가 있습니다. 전구가 현장을 지휘하고 군종이 힘을 기르며 신설된 세 부대가 우주와 정보와 사이버를 나눠 맡는 매끈한 유기체입니다. 그 밑면에는 텅 빈 사령탑과 상부의 눈치만 보는 지휘관들과 좋은 소식만 올라가는 보고 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대만 앞바다에 뜬 서른두 대의 항공기는 위쪽 그림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 항공기를 실제 전쟁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래쪽 그림에 달려 있습니다. 위험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지만 조직도의 매끈함을 실력으로 곧장 읽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바다에 뜬 서른두 대 뒤에는 물 위를 천천히 오가는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물선과 여객선입니다. 갑판에 컨테이너를 쌓고 뱃머리를 열어 차를 싣고 내리는 로로선입니다. 상륙정도 섞여 있습니다. 패널 대담 자료를 옮긴 한 자료에 따르면 이 배들의 선원 상당수가 중국 해상민병대에 속합니다. 무장한 어선만 민병대가 아닌 편입니다. 상업용 로로선과 상륙정을 모는 사람들까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전면전이 터지면 이들은 대만의 항구가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인민해방군 1진 상륙부대의 전차와 트럭을 해안까지 직접 실어 나릅니다. 항만 시설 없이 배에서 바로 물으로 짐을 부리는 방식입니다. 평시에는 남중국해와 대만 주변에서 회색지대 전술의 앞줄에 섭니다. 군함은 아닌데 군대의 손발처럼 움직입니다.

이 그림을 뒤에서 받치는 조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민무장경찰입니다. 병력이 약 15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준군사 조직입니다. 한 정책 보고서는 대만 침공 같은 긴 싸움이 벌어지면 이 조직이 후방의 보급 창고와 주요 수송로를 지킨다고 봅니다. 군수 물자가 앞으로 끊이지 않고 흘러가도록 뒷길을 여는 역할입니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써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대만을

점령했을 때 도시 진압 작전에 들어가는 임무까지 함께 봅니다. 군종이 무기를 만들고 전구가 현장을 지휘한다면 이 조직은 점령 뒤의 질서를 손에 쥐려는 팔입니다.

앞선 서술에서는 공군이 짧게 지나갔습니다. 이 장면을 채웁니다. 대만 국방부 보고서와 러시아 군사활동을 다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군은 J-11과 J-16D 같은 4세대와 5세대 전투기 그리고 큰 규모의 무인기 편대를 굴립니다.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H-6N 폭격기도 눈에 띕니다. 이 폭격기는 러시아 공군과 짝을 이뤄 알래스카 일본 한국 방공식별구역 근처에서 연합 전략 순찰 비행을 돌며 먼 거리를 때리는 훈련을 쌓았습니다. 두 나라 폭격기가 나란히 남의 방공식별구역을 스치는 장면은 대만 앞바다의 전투기 편대와는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다만 이 자료들에는 공군의 정확한 병력 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병력 규모는 이 자료만으로 못 박지 않고 비워 둡니다.

정보지원부대를 '신경 중추'라 부를 때 쓰는 말 C4ISR을 풀어 보면 뜻이 또렷해집니다.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입니다. 일곱 가지 일을 한 묶음으로 부르는 약자입니다. 이 부대는 베이더우 위성항법으로 좌표를 잡고 전장의 데이터 링크를 깔아 각 전구의 육해공 부대를 실시간으로 잇습니다. 대만을 점령하는 상황을 놓고 보면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 부대는 보통의 전투 부대와 다르게 기술 전문가들을 최전방까지 딸려 보냅니다. 통신 인프라를 손에 넣고 정보 방화벽을 세우고 인공지능 도구를 켜고 부서진 감시망과 방송 시스템을 빠르게 되살리는 일을 맡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를 보면 통신망이 마비된 곳에서도 데이터를 다른 길로 돌려 네트워크를 다시 세우는 연습에 힘을 쏟습니다. 바깥세상과의 인터넷을 끊고 대만 주민의 정보를 통째로 틀어쥐려는 인지전의 실행 부대라는 해석이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사이버공간군이 하는 일은 조직도의 상자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미 의회 자료와 대만을 다룬 보고서에는 손에 잡히는 사례가 여럿 실려 있습니다. 2024년 대만 정부를 겨냥 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하루 평균 240만 건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노린 '볼트 타이푼' 작전이 진행됐고 2025년 7월에는 '솔트 타이푼'이라 불리는 해킹 그룹이 미국 주방위군 시스템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공격은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3년 토고 국적의 화물선 홍타이호를 비롯해 중국과 연결된 배들이 대만 마쭈 섬과 평후 제도를 잇는 해저 통신 케이블을 일부러 끌고 다니며 끊은 혐의로 대만 해경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발트해에서도 중국 배가 100마일 넘게 닻을 끌어 케이블을 잘랐습니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적의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마비시키는 방식입니다. 여론을 흔드는 작업도 이 부대의 몫입니다. 2025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위기 때 중국은 파키스탄에 판 자국 J-35 전투기가 프랑스제 라팔을 격추했다는 주장을 밀려고 가짜 계정과 인공지능으로 만든 라팔 잔해 사진을 뿌렸습니다.

2024년에는 인공지능이 만든 뉴스 앵커와 얼굴 사진을 써서 미국 안의 마약 이민 낙태 문제를 건드려 사회를 갈라 놓으려 했습니다.

우주 쪽에도 손에 잡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올린 스지안-21 위성은 2022년 1월에 죽은 위성 하나에 스스로 다가가 높은 묘지 궤도로 끌고 갔습니다. 미 우주군은 중국이 궤도 위에 이른바 '킬 메시'를 짜고 있으며 로봇 팔을 단 위성으로 남의 위성을 붙잡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소형 우주선끼리 근접 기동을 벌이며 위성 도그파이팅을 연습하는 정황도 지적됩니다. 미국 스타링크에 맞서 저궤도에 위성 1만 개 넘게 올리는 귀왕 사업과 첩판 위성망도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세부 작전은 2부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부대가 지휘망의 어느 자리에 놓였는지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숙청의 규모를 숫자로 놓으면 조직도의 빈칸이 얼마나 큰지 드러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최소 100명 넘는 인민해방군 고위 장성이 공식적으로 숙청되거나 사라졌습니다. 2022년에 장성이었거나 그 뒤 진급한 최고위 장성 47명 가운데 41명 곧 열에 아홉 가까이가 2026년 2월 기준으로 숙청된 상태입니다. 인민해방군의 핵심 리더십 자리 52개 중 채워진 것은 11개 다섯에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무기의 목록은 길어지는데 그 무기를 지휘할 사람의 자리는 절반 넘게 텅 비었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의 숙청을 놓고 제임스타운 재단은 이들의 숙청이 2027년 건군 100주년에 맞춘 능력 건설 준비와 얽혀 있다고 봅니다. 군대 건설의 속도와 작전 계획을 두고 시진핑 주석과 이견을 보였다는 해석입니다. 해방군보는 이들을 '길을 막는 호랑이이자 걸림돌'이라 원색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 해석은 여러 갈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패라는 해석 권력 다툼이라는 해석 무력 통일에 신중하자는 입장이 화를 불렀다는 해석 반역이라는 해석이 자료마다 갈립니다. 본문은 원인을 하나로 못 박지 않고 판단을 미뤄 둡니다. 확인된 사실은 숙청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가 작전 기획과 실행의 최상단이었다는 것뿐입니다. 이때 2027년은 대만을 치는 날짜가 아닌 편입니다. 건군 100주년에 맞춰 특정 수준의 전투력을 갖추겠다는 능력 건설의 시한입니다. 능력을 갖추는 것과 그 능력을 실제로 쓰는 결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끝으로 자료의 빈칸을 정직하게 적어 둡니다. 이 자료들은 전구 다섯 개 중 동부 남부 서부의 역할만 또렷하게 설명합니다. 북부전구와 중부전구가 무엇을 맡는지 북한과 맞닿은 접경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한반도를 마주 보는 작전의 세부는 별도 자료로 다시 모아야 할 부분으로 남깁니다. 조직도의 상자를 다 그렸다고 해서 그 안이 다

채워진 것은 아니고는 사실을 빈칸이 먼저 말해 줍니다.

이 장에서 조직 이름을 길게 따라온 까닭은 하나입니다. 중국군의 힘은 어느 한 군종에 있지 않고 서로 이어지는 방식에 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가 명령을 내리고 전구가 현장을 맡고 군종이 무기와 병력을 대며 정보지원부대가 데이터를 잇고 후근보장부대가 피와 연료를 보냅니다. 인민무장경찰과 해상민병대는 군복의 안과 밖을 연결합니다. 이 연결이 되면 중국군은 무서운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연결이 끊기면 상자만 많은 조직도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숙청의 의미가 다시 드러납니다. 전구와 군종과 기능부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 시기에 지휘관들이 사라졌습니다. 동부전구와 남부전구의 공백 로켓군의 상처 신설 정보부대의 흔들림은 각기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문제를 가리킵니다. 지휘의 마디가 약해진 것입니다. 현대전은 한 마디가 늦어지면 전체가 늦어집니다. 우주에서 본 표적이 사이버와 전자전의 방해를 거쳐 전구의 타격 명령으로 이어지는 시간 그 짧은 순간에 조직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래도 빈칸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중국군은 이미 여러 차례 대만 주변에서 큰 훈련을 굴렸고 남중국해에서는 해경과 민병대와 해군을 섞어 움직였습니다. 조직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중앙의 정치 의지가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이 군대는 약점이 있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판단은 두 갈래입니다. 조직도는 분명 전쟁에 맞게 다시 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도를 실제 전장에서 살리는 능력은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뒤 장들의 모든 시나리오를 가르는 선입니다.

4장 시진핑 시대의 숙청과 지휘부 재편

2026년 1월 24일 중국 군 서열 1위의 이름이 조사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 함께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전리도 심각한 규율·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고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까지 인민해방군의 작전을 실무로 총괄하던 최상층이었습니다. 그 발표가 나온 뒤 중앙군사위원회에 남은 이름은 두 개뿐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 그리고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장성민 상장. 20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지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종이 위에서 두 사람으로 줄어든 순간입니다. 이 장은 그 빈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숫자로 먼저 붙잡아 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곧 CSIS가 펴낸 종합 분석 「Assessing Xi's Unprecedented Purges of China's Military」 와 여기에 딸린 「CSIS Database of Chinese Military Purges」 는 2022년 이후 공식적으로 숙청되었거나 실종된 인민해방군 최고위급 장성이 최소 101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상장과 중장급 그러니까 군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개별 인물과 날짜를 하나하나 추적한 것이어서 소문이 아니고 셀 수 있는 목록입니다.

목록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림이 뚜렷해집니다. 2022년 당시 3성 장군이었거나 그 뒤로 상장에 오른 핵심 인물 47명 가운데 41명 비율로 치면 열에 아홉 가까이가 숙청되었거나 숙청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2022년 이후 자기 손으로 진급시킨 장성은 35명인데 그중 32명이 조사를 받았고 29명이 최종적으로 낙마했습니다. 자기가 뽑아 올린 사람을 자기가 다시 쳐낸 구조입니다. 인민해방군에서 중요한 52개 직책을 기준으로 보면 2026년 2월 20일 시점에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던 자리는 열한 개 다섯 자리 중 한 자리 남짓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비어 있거나 직무 대행이 임시로 앉아 있거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니다.

숙청의 속도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2022년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매년 열 명 안팎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한 해에만 62명이 무더기로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한 사정이 어느 해에 이르러 독이 터지듯 번진 모습입니다.

이 칼바람이 깊게 벤 곳은 군의 두뇌였습니다. 2022년에 임명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일곱 명 가운데 다섯 명이 숙청되었습니다. 앞서 국방부장 리상푸 부주석 허웨이둥 정치공작부 주임 마오화가 차례로 쓰러졌고 2026년 1월의 장유샤와 류전리가 그 흐름의 정점이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아래 열다섯 개 남짓한 기능 부서에서도 열일곱 명의 책임자가 사라졌습니다. 전쟁의 밑그림을 그리는 연합참모부는 수장 류전리에 더해 부참모장 네 명이 숙청되거나 실종되며 사실상 뼈대가 내려앉았습니다. 무기 조달을 맡는 장비발전부는 리상푸가 물러난

자리를 이어받은 후임 쉬쉐창마저 자취를 감췄습니다. 군사 전문가 테일러 프라벨은 이 상태를 두고 중앙군사위원회가 조직으로서 목이 잘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조직적 참수라는 말입니다.

실제 전투를 집행할 야전의 사령탑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개 전구 전역에서 사령관이나 정치위원이 적어도 한 명씩 무너졌고 전구 사령관급에서만 38명이 해임되거나 사라졌습니다. 남중국해를 맡는 남부전구는 사령관 정치위원에 더해 부사령관 다섯 명이 모두 숙청되어 지휘부가 통째로 비었습니다. 대만을 정면으로 마주 보는 동부전구도 심각합니다. 육군 사령관 쿵쥘이 2025년 초 낙마했고 3월에는 전구 사령관 린상양이 구금되었으며 해군 사령관 왕충차이도 같은 무렵 숙청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도 국경을 지키는 서부전구에서는 사령관 왕하이장이 실종 상태에 빠졌고 정치위원 리펑바오는 2026년 6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표 자격이 박탈되며 공식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때 CSIS가 짚은 대목이 마음에 걸립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왕하이장 장유샤 류전리 같은 이들은 1984년에서 1986년 사이 중국과 베트남이 맞붙은 라오산 전투에 나가 훈장을 받은 인민해방군에 몇 남지 않은 실전 세대였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장을 직접 겪어 본 장군들입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무대에서 내려가고 그 자리의 유력한 후보로 남은 양지빈이나 한성옌 같은 인물들은 1979년 이후 입대해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분석 「Xi Purges Six More PLA Generals」는 이번 인사의 기준이 작전 능력이나 전투 경험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었다고 봅니다. 싸울 줄 아는 사람보다 복종할 사람을 골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역도 없었습니다. 초기 숙청이 로켓군과 장비발전부에 몰렸다면 2026년의 칼끝은 그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부대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6월 26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장성 여섯 명의 대표 자격을 한꺼번에 박탈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간 무사했던 공군의 정치위원 귀푸샤오 군수 지원을 총괄하는 연합후근보장부대의 왕캉핑 중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24년에 전략지원부대를 해체하며 새로 만든 첨단 부대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자기 스펙트럼과 해킹을 맡는 사이버공간군 사령관 장밍화가 6월에 무너졌고 합동작전의 신경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정보지원부대에서도 정치위원이 정리되었습니다. 작전 계통뿐 아니고 군의 사상을 관리하는 정치위원까지 가리지 않고 베었다는 뜻입니다.

이 공백이 종이 위의 조직도 문제로 그쳤다면 우리는 이렇게 오래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실제 훈련장에서 균열이 드러났다는 데 있습니다. CSIS의 공개 토론 「Assessing the Scope and Impacts of Xi's Military Purges」에 따르면 이번에 숙청된 장성의 약

60퍼센트가 행정이나 정치가 아니고 실제 작전을 지휘하는 계통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CSIS 분석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무려 아홉 달 동안 동부전구 사령관 자리가 비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여파가 훈련 일정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 4월 1일 대만을 둘러싸고 벌인 포위 훈련 '해협천동-2025A'는 그 훈련의 명분이 된 대만 쪽 사건이 벌어진 지 열아흐레나 지나서야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을 총괄해야 할 전구 사령관 린상양과 군사위 부주석 허웨이둥이 3월에 나란히 사라진 탓에 계획이 밀린 것입니다.

같은 데이터가 정반대 방향도 보여 준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2025년 12월 22일 양지빈을 새 동부전구 사령관으로 앉히자 지휘부가 채워진 지 이레 만인 12월 29일 대규모 연습 '정의 사명-2025'가 곧바로 펼쳐졌습니다. 이 연습은 2022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문 직후의 훈련 다음으로 강도가 높았습니다. 자리가 비면 작전이 밀리고 자리가 채워지면 곧바로 대규모 연습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한 해 안에서 앞뒤로 보여 준 구조입니다. 이 장면은 뒤에서 다시 붙잡겠습니다. 인민해방군의 준비 태세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지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방의 분석가들은 하나의 이유로 못 박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갈래의 해석이 서로 겹쳐 있습니다.

첫 갈래는 부패입니다. 미국 의회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USCC가 펴낸 「2025 Annual Report to Congress」는 2023년 하반기에 로켓군과 장비발전부를 중심으로 최소 15명의 고위 장성과 방산 기업 임원이 부패 혐의로 물러났다고 적습니다. 이들 부서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라 오래전부터 뇌물과 비리에 약한 자리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대만 작전에 밝았던 허웨이둥 정치공작을 오래 맡은 마오화 심지어 군 내부의 반부패 기구인 군사기율위원회 부서기 탕융까지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을 보면 사정의 그물이 얼마나 넓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둘째 갈래는 권력입니다. 이 시각은 돈 문제를 넘어 시진핑 1인 지배와 당의 군 통제에 대한 위협을 걷어내려는 정치 작업으로 숙청을 읽습니다. 학자 쉬나 체스트넛 그라이텐스는 레닌주의 체제에서 부패와 정치적 불충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지적합니다. 뇌물을 받은 장교는 당의 지시와 무관한 사사로운 동기를 갖게 되고 그것 자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원칙을 어긴 반역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장유샤와 류전리가 정리된 뒤 중국 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네 차례 사설에서 이들이 군사위원회의 '주석 책임제'를 짓밟았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 주석이 곧 시진핑이니 두 사람이 시진핑의 문민 통제를 흔들고 지휘권을 넘봤다는 비난입니다.

셋째 갈래가 무겁고 조심스럽습니다. 전쟁 준비를 둘러싼 노선 갈등이라는 해석입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More Information Links Zhang Youxia's Purge to 2027 Preparations」는 장유샤와 류전리가 낙마한 직후 나온 『해방군보』 기사들이 이들의 몰락을 2027년이라는 시점과 대놓고 연결했다고 전합니다. 사설은 두 장군을 향해 군의 전투력 건설을 가로막은 '길을 막는 호랑이이자 걸림돌'이라 부르며 이들을 치운 것이 2027년 목표를 향한 추진력이 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오해가 자주 생기니 선을 분명히 긋겠습니다. 2027년은 침공 날짜가 아닌 편입니다.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에 맞춰 군을 특정 수준의 능력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능력 시험입니다. 목표한 날까지 준비를 갖추라는 것과 그날 공격을 개시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서방 분석에서 자주 등장하는 '2027년'은 앞의 뜻이지 뒤의 뜻이 아닌 편입니다. 이 둘을 같은 말로 섞어 쓰면 자료가 말하지 않은 것을 자료의 이름으로 말하게 됩니다.

장유샤가 왜 무너졌는가에 대해서는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답이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CSIS 토론에서 나온 한쪽 해석은 베트남전을 겪은 그가 인민해방군의 실제 능력 격차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미국·일본·대만과의 전면전이 얼마나 파멸적인지를 근거로 2027년 일정에 신중론을 폈다가 제거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시진핑에게는 정치적 일정에 맞춰 이견 없이 방아쇠를 당길 장군이 필요했는데 현실을 이유로 제동을 건 장유샤가 걸림돌이 되었다는 그림입니다. 무섭지만 어디까지나 하나의 해석입니다. 이것을 반역으로 볼지 부패로 볼지 침공 신중론에 대한 응징으로 볼지 아니면 순수한 권력 정리로 볼지는 지금 공개된 자료로는 판단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갈래가 레닌주의 체제 안에서 서로 얹혀 있기 때문에 하나만 골라내는 순간 나머지 셋을 지우게 됩니다. 저는 그 넷을 구분해 나란히 두되 어느 하나로 확정하지 않는 편이 지금으로선 정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앞에서 미뤄 둔 준비 태세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텅 빈 사령탑을 근거로 "인민해방군은 당분간 싸울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싶은 유혹이 큼니다. 그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CSIS 토론에 나온 전문가 존 컬버의 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준비 태세라는 잣대가 유효한 경우는 미래의 능력을 저울질하며 공격 시점을 고르는 이른바 '선택의 전쟁'일 때뿐입니다. 만약 시진핑이 어떤 이유로든 내일 당장 무력을 써야만 한다고 판단하는 '필수의 전쟁' 상황이라면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인민해방군은 지금 가진 전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 경우 준비 태세를 따지는 일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작전의 규모를 나눠 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인도 국경에 병력을 배치하거나 소규모 순찰을 도는 일처럼 인민해방군이 이미 해내는 것은 지휘부가 흔들려도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대만 전면 침공 같은 대규모·고강도 합동 작전 곧 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 해낼 수 있는지 증명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준비 태세는 보통 인력 훈련 장비 리더십 군수라는 다섯 요소로 재는데 이번 숙청은 그중 훈련·장비·리더십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그래도 앞서 본 '정의 사명-2025'처럼 최고위층이 무너진 와중에도 사전에 짜인 전구급 대규모 연습을 집행하는 시스템의 회복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적의 능력을 낮잡아 보는 것과 지나치게 높여 보는 것 둘 다 오판입니다.

준비 태세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정보의 왜곡입니다. 동료와 상관 101명이 줄줄이 끌려가는 광경을 지켜본 장교들은 군사적 효율보다 위에서 어떻게 볼지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처벌이 두려운 사람은 나쁜 소식을 숨기고 좋은 소식만 올립니다. 그렇게 걸러진 보고가 중앙군사위원회에 쌓이면 시진핑은 자기 군대의 합동작전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여기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군을 준비되었다고 착각하는 지도부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번 숙청이 남긴 어두운 가능성입니다. 능력을 도려낸 대가가 충성으로 돌아왔지만 그 충성이 진실을 가리는 순간 오판에 의한 개전의 문이 열립니다.

정리하고 싶은 유혹을 참으며 이 장을 닫겠습니다. 101명이라는 숫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숫자가 지휘부에 큰 공백을 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공백이 대만 유사시 인민해방군을 무력하게 만들지 아니면 오히려 왜곡된 자신감으로 밀어붙이게 만들지는 아직 열려 있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위험을 낮잡아 보지 않되 일정표로 단정하지도 않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라진 이름들과 새로 채워진 이름들 사이 그 좁은 틈을 계속 지켜보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직한 관찰입니다.

새로 채워 넣을 사람이 남아 있느냐는 물음부터 짚습니다. 앞 초안이 사라진 이름을 세었다면 이번에는 그 빈자리를 메울 후보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봅니다. CSIS 데이터베이스는 전구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포함한 176개 최고위 핵심 보직 가운데 52퍼센트가 숙청의 타격을 받았다고 집계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다음 줄입니다. 빈 최상층을 채우려면 한 단계 아래인 전구 부사령관급에서 사람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 부사령관급에서도 56명이 이미 해임되었습니다. 후보군 자체가 3분의 1 넘게 줄었다는 뜻입니다. CSIS 분석은 이렇게 급하게 사람을 올리는 방식을 '헬리콥터식 승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래 계단이 무너진 채로 위층 사람만 급히 끌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오래 보좌하며 전구 전체의 작전을 몸으로 익힌 뒤 승진합니다. 그 예비 단계가 통째로 잘려 나갔습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일과 나란히 진행된 것이 충성 점검이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곧 ISW가 펴낸 「China & Taiwan Update July 2 2026」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2026년 4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두 달 넘게 인민해방군 고위 간부들을 모아 사상 교육 훈련 캠프를 직접 이끌었습니다. 지휘관을 새로 앉히는 시기와 사상을 다잡는 시기가 겹쳤다는 사실은 숙청의 성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자리를 채우는 일보다 마음을 다잡는 일이 앞섰다는 신호로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느 한 원인으로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권력이라는 해석을 조금 더 깊이 봅니다. 학자 쉬나 체스트넛 그라이텐스의 지적을 담은 CSIS 분석은 시진핑 주석이 두 개의 역사적 상처를 늘 의식한다고 전합니다. 하나는 1989년 톈안먼 사태 때 일부 군 지휘부가 무력 진압 명령에 저항했던 기억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질 때 당과 군의 결속이 풀렸다는 판단입니다. 두 기억이 겹치면 당에 대한 절대 복종을 흔드는 어떤 조짐도 반역의 씨앗으로 보이게 됩니다. 뇌물을 받은 장교는 당의 지시와 무관한 사사로운 동기를 갖게 되고 레닌주의 체제에서 그 사사로움은 곧 정치적 불충으로 번역됩니다. 부패와 반역이 한 몸으로 묶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패라는 해석에도 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CSIS 토론에서 존 컬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자기 군사 정책의 방향은 옳다고 믿으면서도 최고위층이 뺏속까지 썩었다고 판단해 수십 년간 쌓인 파벌과 부패 카르텔을 영구히 부수려는 '세대적 소명'으로 숙청을 밀어붙인다고 봅니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의 경우 자료에는 방산 획득 관료주의에 연루되었다는 서술만 있고 물 석인 연료 같은 구체적 스캔들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 붙이지 않겠습니다. 자료가 말하는 범위는 조달 부서가 오래전부터 뇌물에 약한 자리로 지목되어 왔다는 사실 그리고 반부패 기구인 군사기율위원회 부서기 탕융까지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부패를 잡는 기구의 책임자마저 부패로 조사받았다는 역설이 사정의 그물이 얼마나 촘촘했는지를 대신 말해 줍니다.

숙청이 남긴 문화의 변질도 짚어야 합니다. 중국공산당 스스로가 오래 경계해 온 두 병폐가 있습니다. 오랜 평화로 전투 감각을 잃는 '평화병' 그리고 지휘관이 상황을 판단하고 결심하고 부대를 움직이는 능력을 잃는 '5개 불가'입니다. 자료는 이번 숙청이 이 두 병폐를 덜어 주기는커녕 되레 키운다고 봅니다. 동료와 상관 101명이 줄줄이 끌려가는 것을 지켜본 장교는 군사적 효율보다 위에서 어떻게 볼지를 먼저 계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리 추론은 자료에 '추정'으로 표시되어 있고 컬버와 테일러 프라벨 토마스 크리스텐슨 같은 분석가들의 해석입니다. 분석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대만 유사시 하급 부대가 스스로 판단해 움직여야 하는 임무형 지휘가 힘을 잃고 책임 추궁이 두려운 지휘관들이 위험을 지지 않으려 몸을

사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찰된 사실이 아니고 분석가의 우려입니다.

시선을 중국 안쪽에만 두면 판단을 그르칩니다. 상대편 곧 미국과 동맹의 준비태세도 같은 잣대로 재야 공평합니다. CSIS 보고서가 소개한 '오퍼레이션 타이달 웨이브' 프로젝트는 미군 합동 부대가 중국 같은 동급의 적과 고강도 전면전을 벌일 경우 군수 부족으로 중국군보다 먼저 작전 한계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도·태평양에서 고강도로 붙으면 현대전에 꼭 필요한 약 30여 종의 핵심 탄약 곧 PAC-3와 THAAD 요격 미사일 토마호크 같은 무기의 재고가 한 달 남짓 만에 바닥난다는 계산입니다. 유럽의 지상전이나 중동 분쟁에서 같은 탄약을 함께 쓰면 고갈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연료는 360일까지 버틸 양이 잡히지만 그 연료를 전방에서 받아 낼 튼튼한 기지가 모자랍니다. 중국의 텅 빈 사령탑만 보고 안심하는 태도가 왜 위험한지를 이 숫자들이 반대편에서 일러 줍니다.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준비태세의 핵심입니다. 보고서 「If China Attacks Taiwan」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 침공 시 벌어질 식량·에너지 공급망 마비와 반전 여론을 다스리려고 '국가비상종합대응계획' 곧 NECRP를 세워 두었습니다. 대중 통제 방식인 '평차오 경험'으로 조직적 시위와 소요를 억누르고 무장경찰이 전방 보급로를 지키며 물류를 강제로 나누는 역할을 맡습니다. 후방을 먼저 잠근 뒤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림입니다. 대만도 준비를 앞마당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의 『ROC National Defense Report 2025』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고 예비군 2만 명을 상대로 14일짜리 강도 높은 동원 훈련을 돌렸습니다. 연례 '한광' 연습을 각본 없는 시나리오 훈련으로 바꾸고 타이베이와 신주 같은 도시에서 민관군이 함께 재난에 대응하는 '도시 회복력 연습'을 폈습니다. 국민 손에 '전국민 국방 비상수첩'을 쥐여 주고 미디어 판별 교육을 넓혀 중국의 인지전에 맞설 마음의 방어선을 세우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을 다시 한번 정확히 놓습니다. 2027년은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에 맞춰 군을 특정 수준의 능력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능력 시한입니다. 그날 공격을 개시한다는 날짜표가 결코 아닌 편입니다. 제임스타운 재단 보고서가 전한 『해방군보』 사설이 장유샤와 류전리의 몰락을 2027년과 연결 지었다는 사실은 준비의 속도를 둘러싼 군 내부 이견을 시사할 뿐입니다. 그 이견이 능력 격차를 근거로 시기상조를 말한 신중론이었는지 지휘권을 넘본 정치적 반역이었는지 순수한 권력 정리였는지 부패 사정이었는지는 지금 공개된 자료로 가릴 수 없습니다. 판단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갈래를 나란히 두되 하나로 확정하지 않는 자리가 자료가 허락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숙청을 숫자로만 읽으면 사람의 자리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군대는 사람의 조직입니다. 전구 부사령관급에서 사령관 후보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 후보군마저 크게 줄었다는 대목은 그래서 무겁습니다. 아래 계단이 무너진 채 위층 사람만 바꾸는 구조입니다. 전구 전체의 작전 흐름을 오래 익힌 사람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길이 막히면 새 지휘관은 조직의 기억을 몸으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군사적 판단보다 먼저 자신의 정치적 안전을 계산하게 됩니다.

시진핑이 두 달 넘게 고위 간부를 모아 사상 교육을 직접 챙긴 일도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일과 충성을 다시 묶는 일이 함께 갔습니다. 당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군을 다시 세우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전장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지휘관이 어려운 결정을 스스로 떠안아야 할 때 그가 떠올리는 것이 임무인지 처벌인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대만해협 같은 고속의 전장에서는 몇 분의 지체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장교가 먼저 살피는 것이 상부의 눈치라면 인공지능과 위성과 미사일이 벌여 둔 속도는 사람의 두려움 앞에서 멈춥니다.

부패와 권력과 전쟁 신중론을 하나로 뭉뚱그려도 안 됩니다. 리상푸와 장비발전부를 둘러싼 조달 비리 의혹은 돈의 문제입니다. 장유샤와 류전리를 향한 주석 책임제 위반 비난은 권력의 문제입니다. 2027년 준비를 둘러싼 이견설은 전쟁 시기와 능력 평가의 문제입니다. 세 갈래는 서로 겹치지만 같은 말이 아닌 편입니다. 지금 공개된 자료로 어느 하나를 골라 확정하면 나머지 가능성을 지워 버리게 됩니다. 판단을 미루는 태도는 회피가 아닌 편입니다. 자료가 허락하는 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중국군이 당장 무력하다고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숙청으로 지휘부가 흔들렸어도 훈련은 이어졌고 새 지휘관이 앉은 직후 대규모 연습이 다시 돌았습니다. 제도는 손상되었지만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계가 실제 전쟁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준비된 절차를 따라 훈련을 굴리는 능력과 상륙 봉쇄 사이버 우주 인지전이 동시에 터지는 전쟁을 지휘하는 능력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중국군을 종이호랑이로 보거나 무결한 전쟁기계로 보는 양끝을 오가게 됩니다.

숙청은 시진핑이 군을 더 확실히 틀어쥐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동시에 그 통제가 군사적 판단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위험도 보여 줍니다. 충성은 명령을 빠르게 따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명령을 고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모순이 시진핑 시대 인민해방군 지휘부의 핵심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밖에서 보이는 위협의 모양도 바꿉니다. 지도부가 자기 군의 실제 약점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전쟁을 피해야 할 이유를 작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 지휘관이 처벌을 두려워하면 싸움이 시작된 뒤에는 필요한 결심을 늦출 수 있습니다. 같은 숙청이 개전 전에는 오판을 부르고 개전 뒤에는 마비를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숙청은 억제 요인이면서 위험 요인입니다. 약해졌으니 안전하다는 말도 더 강하게 장악했으니 곧 공격한다는 말도 모두 거칠습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숫자 뒤의 공기는 차갑지 않습니다. 장교들은 누가 사라졌는지 압니다. 누가 승진했는지도 봅니다. 좋은 보고가 살아남고 나쁜 보고가 위험해지는 조직에서는 전쟁 준비의 실제 상태가 위로 올라가며 조금씩 예쁘게 다듬어집니다. 그 다듬어진 보고가 정책이 되면 위기는 더 위험해집니다.

사라진 장성들의 이름은 인사 명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빈자리는 후임자의 행동을 바꿉니다. 새로 앉은 사람은 먼저 살아남는 법을 배웁니다. 살아남는 법이 군사적 판단보다 앞서면 조직은 조용히 굳어 갑니다. 숙청의 긴 그림자는 바로 그 침묵입니다. 침묵은 평시에는 안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위기에는 늦은 결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늦은 결심은 때로 잘못된 결심만큼 위험합니다. 중국군을 볼 때 숙청의 정치와 전장의 시간을 함께 읽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름이 지워진 자리마다 남는 것은 공석만이 아닌 편입니다. 두려움도 남습니다. 그 두려움이 보고와 훈련과 승진을 조용히 바꿉니다. 결국 지휘부의 공백은 조직의 공기까지 바꿉니다. 그 공기가 굳으면 전장의 작은 변화도 위로 늦게 올라갑니다. 작은 지연이 큰 오판의 씨앗이 됩니다.

제 2 부

전쟁 방식의 전환: 현대화와 지능화 전쟁

5장 정보화 지능화 전쟁과 군사이론 혁신

2025년 5월 인민해방군 해군의 한 모의훈련장에서 조용한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함교에서 지도를 보며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유도미사일 호위함 한 척의 자기장을 배 밑바닥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자기 신호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계산해 다듬는 작업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2025년 11월에 낸 연례 보고서는 이 훈련에서 중국 해군이 처음으로 '인공지능 보조 의사결정 시스템'을 작전에 배치했다고 적었습니다. 결과는 함정의 스텔스 능력이 60퍼센트 넘게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배의 모양을 바꾼 것도 새 도료를 칠한 것도 아닌 편입니다. 알고리즘 하나가 쇠덩어리의 생존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작은 장면 하나가 이 장에서 다루려는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중국군은 지난 10년 동안 전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중국 스스로는 '정보화에서 지능화로'라고 부릅니다. 말은 간결하지만 그 안에는 교리와 조직과 무기와 지휘 문화가 한꺼번에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세 개의 물음을 차례로 따라갑니다. 정보화 전쟁과 지능화 전쟁은 무엇이 다른가. 인공지능과 무인체계는 전장에서 정말 무엇을 바꾸는가.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무서운 용어들이 중국의 공식 언어인지 아니면 바깥에서 붙인 분석의 언어인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먼저 선을 그어 두겠습니다. 이 장에서 인용하는 사실은 네 종류의 자료에서만 가져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2025년에 낸 지능화 시대 중국군 군사이론 보고서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2025년 연례 보고서 제임스타운 재단이 2026년 4월에 낸 새 5개년 계획 분석 그리고 랜드연구소가 2026년 1월에 낸 임무형 지휘 분석입니다. 이 네 자료 바깥의 숫자나 주장은 이 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분석 기관이 앞날을 내다본 대목은 '추정'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교리의 옷을 갈아입다

중국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지 정할 때 그 출발점은 늘 하나의 문장입니다. 어떤 전쟁을 이길 것인가.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 군사전략 방침에서 그 문장을 '정보화 국부전쟁에서 이긴다'로 정했습니다. 한자로는 打赢信息化局部战争입니다. 전쟁 수행 개념은 정보 주도 정밀타격 합동작전 세 마디로 요약됐습니다. 위성과 통신망으로 전장을 훤히 들여다보고 정확한 지점을 때리고 육해공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빅데이터가 세상에 쏟아지면서 이 그림이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그 전환점을 몇 개의 문서와 회의로 짚습니다. 2017년 중국군

최고위 합동작전 인재를 길러내는 국방대학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저서 전략학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지능화 전쟁'에 대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군사 지능화 발전의 가속화'를 공식 문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제19기 5중전회에서 마침내 새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의 융합발전'입니다. 세 가지 기술 수준을 순서대로 밟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이 융합발전은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 곧 '건군 백년 분투 목표'와 묶여 있습니다.

이때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합니다. 2027년이라는 숫자를 침공 날짜로 읽으면 안 됩니다. 중국의 공식 문서에서 2027년은 군사력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능력의 시한이지 대만을 언제 치겠다는 일정표가 아닌 편입니다. 능력을 갖추는 시점과 그 능력을 쓰는 시점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둘을 같은 말로 붙여 쓰는 순간 중국의 목표 설정을 곧 전쟁 예고로 잘못 읽게 됩니다.

지능화 전쟁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지 중국군은 나름의 시간표를 그려 두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가 인용한 중국군 전문가 쉬야타오 등의 2024년 8월 해방군보 평론은 그 진화를 세 걸음으로 나눕니다. 처음 걸음은 딥러닝과 딥시크 같은 대형언어모델에 기반 무인 플랫폼이 전장에 쏟아지지만 지휘와 통제는 여전히 사람이 쥐는 단계입니다. 가운데 걸음에서는 무인 플랫폼이 주역으로 올라섭니다. 사람과 기계가 짝을 이뤄 싸우고 생물의 신경망에 가까운 전자신경시스템과 양자컴퓨팅이 바닥을 받칩니다. 마지막 걸음은 이른바 슈퍼 인공지능이 나타나 물리 사회 정보 인지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대신해 전쟁을 치른다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 걸음은 지금 기술로는 먼 이야기입니다. 중국군 스스로도 이것을 장기 전망으로 놓았습니다.

이론이 이론에 머물지 않으려면 이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군 연구자 쩡하이칭이 2024년 5월에 쓴 평론은 지능화 전쟁의 승리 메커니즘을 네 가지 우위로 나눠 설명합니다. 하나는 정보 우위입니다. 전장을 완전히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승패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심 우위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전장을 시뮬레이션해 작전 기획과 결심 주기를 확 줄여 상대보다 빠른 킬체인을 짚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영역에서의 우위로 사람의 지능을 무기에 이식해 사이버와 정보와 인지의 공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행동 우위로 지휘와 무기 체계 전체를 하나로 엮어 상대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체계 대 체계의 대결'에서 앞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전통적인 전략 곧 지휘관의 직관에 기댄 '모략'도 이 안에서 새로 정의됩니다. 같은 보고서가 인용한 중국군 천동형 등의 2024년 10월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의 모략은 사람의 감이 아니고 알고리즘이 이끌게 됩니다.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계의 계산 능력과 뜻밖의 상황에서 임기응변을 내는 사람의 직관을 하나로 붙인 '인간과 기계의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이 그 형태입니다. 이때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도 나옵니다. 중국군 리치동은 2025년 2월 평론에서 미래의 작전 이론은 지난 전쟁의 전훈을 곱씹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전장 환경' 안에서 전쟁이 터지기 전에 미리 개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시에 실험실에서 새 작전 이론을 알고리즘으로 바꾸고 그 알고리즘을 곧바로 무기에 실어 넣는다는 그림입니다.

미국 쪽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2025년 보고서는 중국의 지능화 전쟁 개념이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을 전쟁 전반으로 넓혀 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그리는 그림과 미국이 읽어낸 그림이 이 지점에서는 겹칩니다.

알고리즘이 만든 실제 사례들

말과 문서만으로는 이 전환이 얼마나 진짜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최근 자료에는 손에 잡히는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앞에서 본 해군 함정의 자기장 제어가 그 하나입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는 이것을 인공지능이 하드웨어의 생존성까지 직접 손보는 사례로 읽습니다. 인공지능이 표적을 찾아 때리는 것만이 아니고 아군 무기가 살아남는 방식까지 계산에 넣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우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 5월에 '삼체 컴퓨팅 별자리'의 첫 12개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위성 2800개를 묶어 2030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초당 1000페타에 이르는 연산 능력을 노립니다. 우주에 떠 있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지구를 내려다보며 얻은 데이터를 그 자리에서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데이터를 땅으로 내려보내 계산하고 다시 올려보내는 시간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전자전 쪽 사례도 눈에 띄입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는 중국이 2025년 6월에 6세대 통신 기술에 기반한 전자전 플랫폼을 공개했고 이어 7월에는 괌과 마셜 제도 알래스카에 이르는 미군의 레이더 신호를 감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동 전자전 시스템'을 내보였다고 적었습니다. 상대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전파를 인공지능이 읽고 눌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무기에만 얹히는 것은 아닌 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겨누는 데도 쓰입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에 실린 사례를 보면 2025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위기 때 중국은 파키스탄에 수출한 중국산 J-35 전투기가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거짓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이를 위해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과 인공지능으로 만든 '라팔 잔해' 이미지를 대량으로 뿌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와 무관하게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기계가 찍어내 여론을 혼든 것입니다. 2024년에는 인공지능이 만든 뉴스 앵커와 가짜 프로필 사진을 동원해 미국 내부의 마약 이민 낙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부추기는 작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바탕은 결국 인공지능 기술 자체의 실력입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강한 수출 통제 속에서도 중국의 인공지능 역량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2024년 12월 중국의 신생기업 딥시크가 V3 오픈자료 대형언어모델을 2025년 1월에는 추론 모델 R1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이 모델들은 미국의 앞선 기업들과 견줄 성능을 내면서도 훈련에 드는 컴퓨팅 파워가 적고 추론 실행 비용도 낮아 이른바 '딥시크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2025년 8월 'AI 플러스' 전략을 내놓으며 경제와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채택률을 2027년까지 70퍼센트 2030년까지 90퍼센트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군사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를 인공지능 위에 다시 올려놓겠다는 그림입니다.

무인체계와 의사결정 속도

인공지능이 몸을 입으면 드론과 무인정이 됩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는 중국군이 자군의 전투력을 끌어올리려고 자율 시스템과 인공지능을 꾸준히 채택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지금 인민해방군의 모든 군종과 다섯 개 전구는 전자 정보 수집 정보와 감시와 정찰 지상과 해상 타격 공중전에 이르는 넓은 임무에 무인항공기를 실전으로 굴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대의 실험이 아니고 군 전체에 퍼진 편제라는 뜻입니다.

이 흐름은 계획 문서에도 또렷이 박혀 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이 2026년 4월에 낸 분석은 중국의 제15차 5개년 국방정책 곧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에서 눈에 띄는 대목으로 '무인지능 작전역량'의 가속화를 꼽습니다. 무인 지능 무기체계와 그에 맞서는 대응 능력을 함께 키워 재래식 작전 역량을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드론을 부수적 도구로 보던 시각에서 계획의 한복판에 놓는 시각으로 옮겨간 구조입니다.

하지만 무인체계와 인공지능이 전장에 주는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폭발력이 더 세지는 것이 아닌 편입니다. 쏟아지는 전장 데이터를 그 자리에서 처리해 사람의 의사결정 속도를 앞당기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본 썬하이칭의 네 가지 우위 가운데 결심 우위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결정이 승패의 선결 조건이라고 보고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으로 작전 기획과 결심 주기를 줄여 상대보다 빠른 킬체인을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관찰하고 판단하고 결심하고 때리는 순환을 누가 더 빨리 돌리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때 중국군은 자기 몸에 박힌 모순 하나와 마주칩니다. 랜드연구소가 2026년 1월에 낸 분석이 이 지점을 날카롭게 짚습니다. 인민해방군 연구자들도 잘 압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넘쳐나는 데이터로 사람 의사결정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웁니다. 그래서 빠르고 회복력 있는 결정을 내리려면 위의 통제를 줄이고 일선 지휘관에게 결정 권한을 내려줘야 한다고 곧 '임무형 지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데이터가 빠를수록 사람은 더 아래로 권한을 풀어야 대응 속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랜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하급 지휘관에게 자율성을 주려는 이 군사적 요구는 중국공산당의 오랜 선호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당은 중앙에서 강하게 틀어진 정치적 통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선 지휘관이 당의 뜻을 벗어나 스스로 무력 사용을 결정하는 것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봅니다. 그래서 랜드연구소는 인민해방군이 임무형 지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고르지 않고 불완전한 형태로만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평가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빠른 결심을 가능하게 해도 그 방아쇠를 당길 권한을 아래로 내려주지 못하면 속도의 이점은 반쯤 사라집니다.

이 장면에서 이 장은 판단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최근 중국군 최고위 장성들이 잇달아 자리에서 사라진 사건이 이 지휘 구조 이야기와 겹쳐 읽히지만 그 속청의 원인이 부패인지 권력 다툼인지 아니면 침공에 대한 신중론인지는 이 장의 네 자료만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이때는 임무형 지휘를 둘러싼 구조적 긴장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하고 그 이상의 단정은 뒤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공식 언어와 분석의 언어

지금까지 나온 말들을 다시 훑어보면 두 종류의 어휘가 섞여 있습니다. 중국이 스스로를 설명하려고 쓰는 공식 용어와 바깥에서 그 실체를 진단하려고 붙인 분석 용어입니다. 이 둘을 나눠 읽지 못하면 같은 사건을 두고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중국의 공식 용어부터 봅시다. '건군 백년 분투 목표'는 2027년을 겨냥한 정치이자 군사의 구호입니다. 창설 100주년까지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새 국면으로 끌어올린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의 융합발전'은 그 목표를 이루는 기술의 청사진입니다. '지혜의 모략'은 인공지능과 사람의 직관을 붙여 이긴다는 승리 공식입니다. 이 말들은 하나같이 군사적 목표를 당의 비전과 나란히 세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야심을 읽으려면 이 공식 언어를 봐야 합니다.

분석의 언어는 결이 다릅니다. 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압박을 두고 서방은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면전의 문턱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밀어 넣고 해경선과 해상민병대로 이웃을 놀려대는 방식입니다. 딥페이크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으로 상대 내부의 여론을 흔드는 일은 '인지전'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떼어 부릅니다. 중국이 미사일과 우주 전력으로 미군의 접근을 막으려는 태세는 '반접근 지역거부'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들은 중국이 스스로 쓰는 표현이 아닌 편입니다. 그 행동의 위협과 약점을 짚어내려고 바깥에서 고안한 언어입니다. 실제 역량의 허점을 보려면 이 분석 언어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보조 의사결정과 임무형 지휘의 관계를 다시 봅시다. 중국의 공식 언어로 읽으면 인공지능으로 결심 우위를 잡아 미군보다 빠른 킬체인을 완성한다는 자신감이 읽힙니다. 랜드연구소의 분석 언어로 읽으면 그 빠른 계산의 결실을 일선에 위임하지 못하는 당의 통제욕이 아킬레스건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스템을 두고 한쪽은 강점을 한쪽은 약점을 비춥니다. 둘 다 봐야 그림이 온전해집니다.

이때 분석가의 용어 하나가 인상적으로 등장합니다. '무인 지옥도'입니다. 이 말은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 만든 억제의 언어입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대만해협을 건너려 할 때 수많은 자율 무인기와 무인 수상정으로 해협 전체를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지옥의 풍경으로 바꿔 침공을 막겠다는 구상을 밝혀 왔습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와 속도전에 마찬가지로 값싸고 많은 무인체계로 맞서겠다는 발상입니다. 지능화 전쟁이라는 공격의 언어에 무인 지옥도라는 방어 언어가 맞부딪히는 구조입니다.

두 언어를 뒤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부터는 추정입니다.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나 언론이 '건군 백년 분투 목표'와 '지능화 전쟁'이라는 공식 성명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2027년이면 인민해방군이 흠 없는 첨단 군대가 될 것이라는 중국의 과장된 심리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휘부가 흔들린다는 분석 용어에만 매달려 중국군을 낮잡아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휘부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중국군은 대규모 합동훈련을 즉각

굴릴 역량을 여러 차례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위협을 낮춰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정표로 단정하지도 않는 태도. 그 사이의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이 장이 원하는 읽기 방식입니다.

다시 처음의 자기장 실험으로 돌아가 봅시다. 인공지능 하나가 함정의 생존성을 60퍼센트 끌어올린 그 장면은 중국군이 지능화 전쟁을 종이 위 구호가 아니고 실제 성과로 바꿔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배가 전쟁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권한은 여전히 베이징의 정치 구조 안에 묶여 있습니다. 기술은 앞서가고 지휘 문화는 붙잡고 바깥의 억제망은 그 틈을 겨눕니다. 어느 한쪽만 보면 전체를 놓칩니다. 이 겹침을 그대로 보는 일이 중국의 지능화 전쟁을 정확히 읽는 첫걸음입니다.

조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2024년 4월 중국은 군 조직도에서 부대 하나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우주와 사이버 전력을 한 손에 쥐고 있던 전략지원부대입니다. 다만 국방부가 2025년에 낸 국방보고서를 보면 이 부대는 그해 해체되고 세 조직으로 갈라졌습니다. 정보지원부대 항공우주군 사이버공간군입니다. 셋 가운데 정보지원부대가 지능화 전쟁을 실제 전장으로 실어 나르는 신경 중추 자리를 맡았습니다.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다섯 개 전구의 작전 부대에 지휘와 통제와 통신과 컴퓨터와 정보와 감시와 정찰을 하나로 엮은 실시간 네트워크를 대주고 인공지능 도구로 쏟아지는 전장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이 재편이 왜 중요한지 짚겠습니다. 교리가 바뀌면 조직이 뒤따라 움직인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능화 전쟁을 문서에 적어두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을 담을 그릇부터 새로 빚었습니다. 앞 절에서 본 인공지능 보조 의사결정이나 우주 슈퍼컴퓨터 같은 성과들은 이 신경 중추 위에서 돌아갑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부대와 그 데이터로 결심하는 부대가 한 줄로 이어져야 빠른 킬체인이 성립합니다. 조직 개편은 그 배선 공사였습니다.

전장 집행 능력이라는 새 낱말

중국군은 2027년 건군 백년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요즘 한 용어를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장 집행 능력'입니다. 한자로는 战场执行이라고 씁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2026년 보고서가 이 낱말을 짚었습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최고 지휘관의 작전 의도를 일선 부대가 실제 성과로 바꿔내는 힘입니다. 현대전은 템포가 빠릅니다. 그래서 현장 지휘관이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등을 떠미는 말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이 공식 용어가 앞 절에서 본 임무형 지휘의 딜레마와 겹쳐 읽힌다는 점입니다. 랜드연구소의 분석가들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이들이 쓰는 낱말은 '건너뛰기식 지휘'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믿지 못해 중간 지휘 단계를 통째로 건너뛰고 최전선을 직접 붙잡으려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훈련장에서 이 모순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전구 합동훈련에서 표적을 잡아낸 일선 지휘관이 방아쇠를 당기려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타격안을 계산해 내놓았습니다. 계산은 몇 초면 끝납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상급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손을 멈춥니다. 그 몇 분 사이 표적은 위치를 바꿉니다. 기계가 벌여놓은 속도를 사람의 승인 절차가 도로 까먹습니다. 중국군 연구자들도 이 병목을 압니다. 데이터가 빠를수록 권한을 아래로 풀어야 대응 속도가 산다고 말합니다. 당의 통제욕은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지휘부의 빈자리

이 긴장을 더 무겁게 만드는 사건이 최근 몇 해 사이 이어졌습니다. 최고위 장성들이 잇달아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만든 중국군 숙청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2022년 이후 상장과 중장급 최고위 장성 가운데 최소 101명이 공식 숙청되거나 실종됐습니다. 2022년에 상장이었거나 그 뒤 진급한 핵심 인물 47명 중 41명 곧 열에 여덟이 넘게 처났습니다. 최고위 핵심 보직 52개 가운데 2026년 2월 기준으로 채워진 자리는 11개 다섯에 하나뿐입니다. 서방 분석가들은 이 상태에 '제도적 마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작전 기획의 심장인 연합참모부와 대만을 맡는 동부전구 수뇌부가 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에는 군 서열 1위 장유사와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전리마저 제거됐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들이 '엄중한 기율 및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방군보는 이들을 '길을 막는 호랑이이자 걸림돌'이라 부르며 시진핑 1인 지배를 뜻하는 주석 책임제와 정치건군을 해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다른 보고서는 이 숙청을 2027년 준비 과정과 이어 읽습니다. 원인을 두고는 부패라는 설 권력 다툼이라는 설 노선 갈등이라는 설이 엇갈립니다. 이 장은 그 원인을 하나로 못 박지 않겠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자리가 크게 비었다는 것 당국은 기율 위반이라 발표했다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이 일선 지휘관을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구조적 사실입니다. 그 이상은 뒤 장으로 넘깁니다.

기술 전략이라는 한 단계 위 논의

지휘부가 흔들리는 동안에도 지능화 담론은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가 2026년 7월에 낸 대만 관련 보고를 보면 2026년 6월 말 해방군보는 '기술 전략'이라는 새 전략 영역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과학원 연구원이 기고한 글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미래의 큰 충돌에서는 지능형 네트워크를 조작하고 억누르고 다시 짜맞추는 능력이 중심에 선다는 것입니다. 적의 정보 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속여 상대의 작전 체계를 통째로 마비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인공지능을 기존 무기에 얹는 데서 나아가 정보 영역 그 자체를 부수고 뒤흔드는 싸움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보고서는 반대편의 목소리도 담습니다. 여기부터는 그 기관의 평가 곧 추정입니다. 전쟁연구소는 인공지능이 전쟁을 좌우한다는 인민해방군의 제도적 믿음이 미래전 판단을 한쪽으로 기울게 만든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실제 전장을 보면 인공지능은 정밀 타격과 방어를 돕는 쓸모 있는 보조 수단입니다. 아직 승패를 가르는 무게중심 자리에까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적의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강한 믿음은 중국군의 전력 건설을 파괴적 물리력보다 데이터 방해와 알고리즘 고도화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관의 관측입니다.

숫자로 거루는 반대편

무인체계 이야기에다 앞 절에 없던 장면이 있습니다. 일본 방위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구형 J-6 전투기 3000대를 무인기로 개조해 대만 공격에 쓴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파악된 규모는 약 300대였습니다. 소문의 열에 하나입니다. 낡은 기체를 대만 방공망 교란용 드론 무리로 되살리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숫자를 부풀린 소문과 확인된 규모 사이의 이 간격이 위협을 재는 일이 왜 조심스러운지 말해줍니다.

방어하는 쪽도 숫자로 맞섭니다. 대만 국방부의 2025년 사개년 국방검토를 보면 대만은 국방혁신실을 새로 세워 민간의 드론과 대드론 기술을 빠르게 군에 들였습니다. 2027년까지 중국산 드론 5만 대를 갖추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신병 훈련에는 휴대용 방공무기와 무인기 조작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미 국방부가 2023년에 출범시킨 레플리케이터 구상으로 값싼 무인체계를 대량으로 끌어모읍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 새뮤얼 파파로 제독은 이 구상의 목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군이 대만해협을 건너려 할 때 해협 전체를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무인 지옥도로 바꿔 침공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인 지옥도라는 낱말은 중국이 만든 말이 아닌 편입니다. 미국이 만든 억제의 언어이고 대만 관련 보고서와 파파로 제독의 발언이 그 출처입니다. 지능화 전쟁이라는 공격의 언어에 무인

지옥도라는 방어의 언어가 맞부딪힙니다.

과소평가를 경계하는 마지막 장면

지휘부가 텅 빈 상태에서도 중국군의 손발이 멈춘 것은 아닌 편입니다. 2025년 12월 중국군은 '정의 사명 2025'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합동 포위 훈련을 즉각 굴렸습니다. 서방이 회색지대 전술이라 부르는 압박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중국의 공식 교리는 3전입니다. 법률전과 심리전과 여론전을 묶은 이름입니다. 자국의 무력시위가 합법이고 정당하다고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다듬은 언어입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 중국은 3전이라 부르고 바깥은 회색지대 전술이라 부릅니다. 두 이름을 나란히 놓고 읽어야 그림이 온전해집니다.

조직은 새로 짜였고 담론은 기술 전략까지 올라갔으며 무인체계는 숫자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지휘부에는 큰 구멍이 났고 방아쇠를 당길 권한은 베이징 안쪽에 묶여 있습니다. 위협을 낮잡아 보는 것도 2027년을 침공 날짜로 못 박는 것도 다 같이 위험합니다. 2027년은 능력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시한입니다. 침공 일정표와는 다른 말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걷는 읽기가 흔들리면서도 굴러가는 이 군대를 정확히 보는 방법입니다.

6장 우주 사이버 전자전 인지전

2025년 2월 25일 대만해협의 밤바다에 화물선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배 이름은 홍타이 58호. 서류상 국적은 서아프리카의 토고였지만 실제 소유주는 중국이었습니다. 대만 해순서 그러니까 대만 해경의 무전이 몇 번이나 날아갔습니다. 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같은 자리에서 어슬렁거리더니 닻을 바다 밑으로 끌기 시작했습니다. 닻이 굵고 지나간 자리에는 대만 본섬과 평후 제도 마주 섬을 잇는 통신 케이블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은 끊어졌습니다. 대만 해경은 배를 나포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 하나에 이번 장에서 다룰 네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바다 밑 케이블을 끄는 것은 전자전의 물리적 얼굴입니다. 누가 했는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렵게 위장하는 것은 인지전과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늘의 위성과 사이버 공간이 내려다보며 엿고 있습니다. 홍타이 58호는 그저 배 한 척이 아니고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다루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이었습니다.

한국 독자에게는 우주와 사이버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 둘을 전쟁의 배경이나 지원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휘와 통제 영어로는 커맨드 앤드 컨트롤 줄여서 C2라고 부르는 군대의 신경망 그 자체로 봅니다. 대만 국방부의 2025년 국방보고서와 미국 여러 연구기관의 최근 분석이 공통으로 짚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현대전의 승패는 화력의 크기가 아니고 쏟아지는 전장 정보를 누가 먼저 처리해서 적보다 앞서 결심을 내리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정보 우위 그리고 그 위에 얹히는 결심 우위. 이 두 단어가 중국군이 우주와 사이버에 그토록 매달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판단을 조직으로 옮긴 사건이 2024년 4월에 있었습니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그때까지 우주와 사이버 전자전을 한꺼번에 거느리던 거대 조직인 전략지원부대를 공식 해체했습니다. 대신 세 개의 부대를 새로 세웠습니다. 정보지원부대 항공우주군 사이버공간군입니다. 큰 덩어리 하나를 셋으로 쪼갠 셈인데 그 목적이 정보화와 지능화였다고 대만 국방보고서는 적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보지원부대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항공우주군이 하늘에서 모은 자료와 사이버공간군이 사이버 공간에서 긁어온 자료를 한데 녹여 다섯 개 전구의 일선 부대에 실시간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서방 분석가들이 이 부대를 합동작전 지휘망의 신경 중추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늘부터 따라가 봅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2025년 11월에 낸 우주 분야 보고서는 중국이 우주 우위를 전장 통제의 전제 조건으로 본다고 정리합니다. 말이 좀 딱딱한데 풀면 이렇습니다. 하늘을 못 잡으면 땅과 바다의 싸움도 못 이긴다는 생각입니다. 그 하늘을 잡기 위해 중국이 손에 쥔 도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눈과 길잡이입니다. 미국의 위성항법장치 GPS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중국은 베이더우 위성항법 체계를 계속 키워 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베이더우-4 위성망은 위치 정확도를 미터 단위에서 데시미터 그러니까 10센티미터 단위까지 좁힌다고 합니다. 바다 위 함정과 무인기를 정밀하게 지휘하려면 이 정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위장술이 하나 더 붙습니다. 야오간-41 같은 위성은 겉으로는 토지 측량이나 날씨 관측용이라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인민해방군의 전자 정보 수집 자산으로 쓰인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민간과 군의 경계를 흐리는 이중 용도의 전형입니다.

통신망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미국의 스타링크가 보여준 위력을 중국은 똑똑히 봤습니다. 지상 기지가 부서져도 하늘의 위성망이 살아 있으면 지휘 통신이 끊기지 않는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귀왕이라는 이름의 저궤도 광대역 통신망을 짓고 있습니다. 계획된 위성 숫자가 1만 3천 개입니다. 유사시 지휘망이 잘려도 다시 이어붙이려는 보험입니다. 이때 한 발 더 나갔습니다. 2025년 5월 중국은 삼체 컴퓨팅 별자리라고 부르는 위성망의 첫 12기를 쏘아 올렸습니다. 최종 목표는 2천 8백 개 위성으로 초당 1천 페타 규모의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생긴 자료를 굳이 지상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우주에서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입니다. 하늘에 슈퍼컴퓨터를 띄워 결심 속도를 끌어올리는 그림입니다.

하늘을 잡는다는 건 남의 하늘을 부수는 일이기도 합니다. 미국 우주군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궤도 위에 이른바 킬 메시를 짜고 위성끼리 붙어 싸우는 도그파이팅 전술을 연습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공허한 걱정이 아니고는 증거가 실제로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발사된 스지안-21 위성은 로봇 팔을 달고 있었는데 2022년 1월에 수명이 다한 죽은 위성에 스스로 다가가 그것을 더 높은 무덤 궤도로 끌어올렸습니다. 남의 위성을 언제든지 붙잡아 치워 버릴 수 있다는 능력을 눈앞에서 보여준 구조입니다. 감시의 눈도 바다로 뻗었습니다. 2025년 4월 중국은 미군의 위성과 미사일 발사를 지켜볼 수 있는 신형 우주 추적함 랴오왕-1호를 배치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에는 심우주 관측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공간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사이버공간군이 맡은 일은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한쪽으로는 아군의 자료 링크를 지키고 다른 쪽으로는 대만과 미국의 지휘망과 민간 기반시설을 두들겨 이른바 킬 체인 그러니까 표적을 찾아 때리는 연결 고리를 끊어 놓는 일입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 하나가 말해 줍니다. 미국 의회에 제출된 2025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대만 정부를 겨냥 중국발 사이버 공격은 하루 평균 240만

건이었습니다. 하루에 240만 건입니다. 미국 본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국가 지원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볼트 타이푼이 핵심 기반시설을 노렸고 2025년 7월에는 솔트 타이푼이 미국 주 방위군 시스템을 뚫는 데 성공했다고 이 보고서는 적습니다.

사이버전은 화면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앞서 본 홍타이 58호가 바로 그 물리적 연장선입니다. 대만은 인터넷 트래픽과 바깥 세상과의 통신 99퍼센트 이상을 24가닥의 해저 케이블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끊으면 대만은 눈과 귀가 막힙니다.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선박과학연구센터는 2025년 2월에 수심 4천 미터가 넘는 심해에서 장갑 케이블을 자를 수 있는 전기 절단 장치 설계를 내놨습니다. 평소에는 닻을 끌어 우연한 사고인 척하지만 마음먹으면 깊은 바다에서도 단숨에 자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대만의 모든 해저 케이블이 끊기면 하루 경제 손실이 약 5천 5백 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60억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는 개념이 결심 우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군은 미래전의 승리를 정보 우위 결심 우위 제 영역 우위 행동 우위로 나눠 봅니다. 우주 감시망과 사이버 부대로 정보를 먼저 틀어쥐는 것이 승부의 전제이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그 정보를 초고속으로 씹어 삼켜 적보다 먼저 결심에 이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군은 지휘관 개인의 직관에 기대던 옛 방식을 넘어 기계의 계산 속도와 사람의 임기응변을 붙인 이른바 인간과 기계의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지휘망에 심으려 합니다. 전쟁 전체를 시스템 대 시스템의 대결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때 전자전이 무대 앞으로 나옵니다. 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전자전은 통신 방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과학자들은 세계 최초의 6G 기반 전자전 체계를 개발했고 2025년 7월에는 괌과 마셜 제도 알래스카 남중국해에 이르는 미군의 비밀 레이더 신호를 잡아 억누르는 인공지능 구동 전자전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의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에 맞서 중국은 J-16D 전자전기를 대만 주변에 띄웁니다. 전자기 스펙트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의 영역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벌이는 싸움입니다.

전자전이 대만의 눈과 귀를 물리적으로 가린다면 그 빈자리를 채우러 들어오는 것이 인지전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을 겨누는 싸움입니다. 사례가 생생합니다. 2025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국경 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은 파키스탄에 수출한 중국산 J-35 전투기가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거짓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이를 위해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고 인공지능으로 그럴듯하게 만든 라팔 잔해 딥페이크 사진을 대량으로

뿌렸습니다. 대만을 향해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뉴스 앵커를 내세워 미국은 대만을 버릴 것이다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이 전쟁을 불러온다는 식의 공포를 흘려보냅니다.

인지전이 노리는 급소는 대만 내부의 갈라진 틈입니다. 대만은 크게 파란색 진영인 국민당과 녹색 진영인 민진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TSMC의 미국 투자를 두고도 두 진영의 해석이 정반대입니다. 민진당 쪽은 그것을 실리콘 방패가 두꺼워지는 일로 보고 국민당 지지자 일부는 미국이 대만을 지킬 마음을 오히려 줄여 전쟁을 부른다고 걱정합니다. 중국은 이 미국 회의론과 진영 갈등을 표적으로 삼아 미국의 무기 판매는 천문학적 보호비를 뜯는 짓이고 대만은 버려질 체스 말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밀어 넣습니다.

전자전과 인지전은 대만 주변에서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닌 편입니다. 하나의 지휘망 아래에서 짜인 각본대로 만납니다. 사이버공간군이 전자기 스펙트럼을 장악하고 통신망을 부수는 물리적 실행을 맡는다면 정보지원부대는 그 뒤를 잇습니다. 대만 점령 시나리오에서 정보지원부대는 부서진 대만의 통신 인프라를 중국식으로 다시 세우고 만리방화벽을 쳐서 대만 시민을 바깥 세계와 끊고 인공지능 감시망과 선전 방송을 되살리는 임무를 맡는다고 정책 분석서들은 봅니다.

이 그림을 이어 붙이면 하나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 이어 붙임은 자료가 명시한 사실이라기보다 분석가들의 추정입니다. 먼저 전자전이 케이블을 끊고 전파를 막아 대만의 눈과 귀를 물리적으로 가립니다. 곧이어 고립된 대만의 디지털 공간에 인지전이 쏟아집니다. 조작된 항복 방송 미군이 개입을 포기했다는 가짜 뉴스 인공지능 앵커의 딥페이크가 밀려듭니다. 대만 군경의 지휘통제를 마비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마음을 무너뜨려 총 한 발 쏘지 않고 지도부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것을 베이핑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1949년 베이징이 싸움 없이 넘어간 사례를 딴 이름입니다.

이때 짚어야 할 구분이 있습니다. 평시의 회색지대 전술과 전시의 마비 작전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속이 다릅니다. 이 둘을 뭉뚱그리면 위협을 잘못 읽게 됩니다.

평시 회색지대 전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호성입니다. 홍타이 58호처럼 카메룬이나 토고 선적을 단 낚은 상업용 선박 이른바 그림자 함대를 앞세우면 중국 군함이 한 짓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케이블 훼손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만 최소 27차례 있었고 중국은 그때마다 우발적 사고로 넘겼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로 누적입니다.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2020년 9월에 69회였는데 2024년 6월에는 325회로 뛰었습니다. 대만군은 그때마다 요격기를 띄우고 함정을 움직여야 하니 예산과

장비와 사람이 조금씩 닳습니다. 2024년 5월의 합동의 검-2024A 10월의 합동의 검-2024B 2025년 4월의 해협천동-2025A 같은 대규모 포위 훈련을 예고 없이 벌여 봉쇄를 일상으로 만드는 것도 같은 결입니다. 천천히 개구리를 삶는 방식입니다.

전시 마비 작전은 성격이 돌변합니다. 목표가 인프라를 조금씩 갉아먹는 것이 아니고 대만군의 작전 능력과 미군의 개입 의지를 한 번에 부수는 것으로 바뀝니다. 대만 국방보고서는 전시 중국군이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전자기 인지 영역을 한꺼번에 때려 속전속결을 노릴 것이라고 봅니다. 첫 단계가 앞서 본 우주와 전자전 타격입니다. 스키안-21의 로봇 팔과 6G 전자전 체계로 대만과 미군의 위성과 레이더를 지웁니다. 여기에 물량이 더해집니다. 한 위성 영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구형 J-6 전투기 약 300대를 무인기로 개조해 대만 공격용 드론 무리로 배치했습니다. 개전 초기 대만의 방공망을 교란하고 소진시키는 총알받이 역할입니다. 그림자 함대가 닳을 끝던 위장 대신 특수 절단 장비로 24가닥 케이블을 동시에 잘라 대만을 통째로 암흑에 밀어 넣습니다.

두 작전의 차이는 시간축에서 또렷합니다. 평시 작전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장기 소모전입니다. 전시 작전은 미군이 본격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전 며칠 혹은 몇 시간 안에 대만의 C4ISR 그러니까 지휘 통제 통신 정보 감시 정찰 체계를 무너뜨리는 데 사활을 겁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돌린 워게임 분석에 따르면 전시 첫 1주일 만에 미국은 전진 배치된 항공모함 두 척과 미군 사상자 1만 명을 잃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개입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평시 회색지대 작전은 전시 마비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가깝습니다. 평소에 대만의 약점을 훑어 두었다가 유사시 골든타임을 주지 않고 몰아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인과 연결은 자료가 제시한 사실 위에 얹은 분석가들의 추정임을 다시 밝혀 둡니다.

물론 대만도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대만군은 지휘 통제 센터와 무기 플랫폼 감시 체계를 하나로 묶는 C5ISR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앞의 C4ISR에 사이버 항목이 하나 더 붙은 이름입니다. 사이버 공격을 당해도 지휘망이 살아남도록 제로 트러스트라는 보안 전략을 채택했고 성숙한 클라우드 기술로 자료를 여러 곳에 나눠 두어 한쪽이 부서져도 다른 쪽이 버티게 했습니다. 해저 케이블이 끊길 때를 대비해 저궤도 위성망도 늘리고 있습니다. 인지전에 맞선 반격도 있습니다. 2024년 한광 40호 훈련 때부터 대만 국방부는 인공지능으로 가상 뉴스 앵커를 만들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를 포함한 18개 언어의 짧은 영상을 빠르게 찍어내 국제사회에 대만의 입장을 알렸습니다. 시민사회도 나섰습니다. 더블싱크 랩 같은 기관은 넓은 시민 연결망을 짜서 중국이 틱톡과 소셜미디어로 뿌리는 가짜 정보를

실시간으로 잡아내 바로잡습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지키는 방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성 1만 3천 개와 6G 전자전 체계를 갖추고도 중국군이 정작 실전에서 빼앗길 수 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서방 분석가들의 추정입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합동 상호운용 능력을 갖추는 데 역사적으로 애를 먹어 왔다고 지적합니다. 2015년 이후 지휘통제 개혁을 밀어붙였지만 실시간 의사결정과 합동작전에서 여전히 결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사이버 전장은 빛의 속도로 자료가 오가기 때문에 현장의 하급 지휘관에게 결정 권한을 내려주는 임무형 지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군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통제를 생명으로 여기는 중국공산당의 지휘 문화와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하드웨어로 아무리 정보 우위를 잡아도 방아쇠를 당기는 마지막 권한이 베이징 최고위층에만 병목처럼 몰려 있다면 실전의 결정적 순간에 시스템 전체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가 실제로 어떻게 판가름 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자료가 말해 주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2025년 1월 3일 대만 북부 지룽항 앞바다에서 해저 케이블 하나가 손상됐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화물선은 카메룬 선적을 달고 있었습니다. 배의 실제 주인은 중국이었습니다. 두 달 뒤 토고 선적의 홍타이 58호가 닻을 끌어 마쭈와 평후 쪽 케이블을 끊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같은 수법이 먼저 한 번 지나갔던 것입니다. 대만을 겨누는 케이블 절단은 배 한 척의 돌발 행동이 아니고 몇 달 간격으로 이어진 흐름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에 제출된 대만 관련 보고서는 두 사건을 나란히 기록합니다.

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낡은 상업용 선박입니다. 카메룬 토고처럼 소유국과 무관한 편의치적 국적을 답니다. 군함은 한 척도 나서지 않습니다. 서방 분석가들은 이런 선단을 그림자 함대라고 부릅니다. 목적이 뚜렷합니다. 누가 시켰는지 딱 잘라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임 부인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중국 군함이 케이블을 끊으면 대만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맞받을 명분이 생깁니다. 낡은 화물선이 닻을 끌다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미면 그 명분이 사라집니다.

무대에 오르는 배우도 정규군이 아닌 편입니다. 회색지대 국면에서 앞줄에 서는 것은 중국 해경 인민무장경찰 해상민병대 국적을 위장한 상업용 선박입니다. 익명의 해커 조직도 같은 자리에 섭니다. 이들이 앞에 서는 까닭은 하나로 모입니다. 공격의 주체를 흐릿하게 만들어 상대의 반격을 미리 막는 것입니다.

이 수법이 대만해협에서만 나온 것도 아닌 편입니다. 유럽 발트해에서도 중국 선박이 100마일 넘게 닻을 끌고 다니며 해저 케이블을 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다 밑 통신선을 노리는 방식이 한 지역의 우발 사고가 아니고 여러 대양에서 되풀이되는 수법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려는 경로를 정책 분석서는 두 갈래로 나눠 봅니다. 무혈 병합 경로를 베이핑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전면전 경로를 텐진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분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분석가들이 그리는 틀입니다. 두 경로의 겉모습은 달라도 앞머리 작업은 겹칩니다. 전자전이 케이블과 전파를 끊어 대만의 눈과 귀를 가린 뒤 그 빈자리에 인지전이 밀려 들어옵니다. 베이핑 모델은 그 흐름만으로 항복을 받아내려 하고 텐진 모델은 그 흐름으로 사회를 마비시킨 다음 정규군의 화력을 쏟아붓는 그림입니다.

인지전은 딥페이크 영상만의 일이 아닌 편입니다. 그보다 조용한 작업이 평시에 먼저 깔립니다. 중국 통일전선공작부는 대만의 언론인과 기업 엘리트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버릴 것이라는 회의론을 사회 상층부에 미리 심어 위기 때 대만 지도부가 움직일 정치적 여지를 좁혀 둡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정치적 기회 공간을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스팸플라주라고 부르는 조직적 가짜 계정망이 둡니다. 틱톡을 비롯한 플랫폼이 대만과 서방의 선거와 여론에 파고드는 통로가 됩니다. 화면에 뜨는 딥페이크는 이 오랜 밑작업 위에 얹히는 마지막 겉면입니다.

전시로 넘어가면 무대의 배우가 바뀝니다. 평시에 앞줄을 지키던 해경과 민병대 위장 화물선은 뒤로 물러납니다. 대신 인민해방군 로켓군 항공우주군 사이버공간군 같은 정규군이 전면에 나섭니다. 책임을 숨기던 위장이 사라집니다. 압도적인 파괴력을 드러내는 국면으로 성격이 돌변합니다. 회색지대의 모호함은 평시의 도구입니다. 전시의 도구는 속도와 규모입니다.

무력 타격이 끝난 뒤의 그림도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정책 분석서가 그리는 점령 시나리오입니다. 2024년 4월 새로 만들어진 정보지원부대가 세 가지 일을 맡는다고 봅니다. 첫 일은 부서진 대만의 통신 인프라를 중국식 체계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일은 만리방화벽을 쳐서 대만 시민을 바깥 세계와 끊는 것입니다. 셋째 일은 안면인식과 인공지능 감시 기술을 대만 주요 도시에 심어 사람들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물리적 점령 다음에 오는 것은 정보의 점령입니다.

대만의 방어에도 앞선 서술이 못 담은 세부가 있습니다. 대만군은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백본 네트워크에 나눠 실고 서로 다른 장소에 같은 자료를 겹쳐

저장합니다. 이것을 교차 사이트 상호 백업이라고 합니다. 원리는 쉽습니다. 한 지점이 폭격이나 해킹으로 사라져도 다른 지점이 같은 자료를 쥐고 있으면 부대는 명령을 받고 무기를 쏠 수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은 그 위에 얹힌 층입니다. 모든 접속을 일단 의심합니다. 신원을 거듭 확인한 뒤에야 자료에 손을 대게 합니다. 통신망이 잘려도 지휘가 살아남게 하려는 설계입니다.

봉쇄와 상륙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대만해협을 다루는 장에서 자세히 살핍니다. 이 장은 우주와 사이버 전자전과 인지전이라는 네 영역이 어떤 수단으로 서로 이어지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케이블 절단은 사이버와 전자전의 물리적 연장입니다. 딥페이크는 사이버가 사람의 머릿속으로 넘어간 얼굴입니다. 위성 견인과 방화벽은 우주와 정보 통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모든 조각이 한 줄로 매끄럽게 이어질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케이블 절단과 딥페이크 위성 견인과 방화벽이 한날한시에 맞물려 돌아가려면 중국군은 여러 군종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녹여 내야 합니다. 그 융합이 실전에서 흐르듯 작동할지 베이징의 승인 병목에 걸려 얼어붙을지는 자료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서방 분석가들의 추정입니다. 확인된 것은 준비의 규모까지입니다. 결과는 아직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보전의 네 영역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표적을 보고 사이버에서 길을 끊고 전자전으로 전파를 흐리게 만든 뒤 인지전이 사람의 판단을 혼듭니다. 홍타이 58호가 닳을 끌어 케이블을 끊은 사건은 그래서 해운 사고만이 아닌 편입니다. 사이버전이 물리적 바다 밑으로 내려간 장면입니다. 스지안-21 위성이 죽은 위성을 끌고 간 장면은 우주 쓰레기 처리 기술만이 아닌 편입니다. 남의 위성에 다가가 손을 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기술은 평시에는 정비로 보이고 전시에는 마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국군이 원하는 것은 결심 우위입니다. 상대가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때리는 능력입니다. 이 말은 첨단 기술의 자랑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결심은 결국 사람이 합니다. 항공우주군이 위성을 띄우고 사이버공간군이 망을 흔들고 정보지원부대가 데이터를 한데 모아도 마지막 방아쇠는 지휘 체계 안에서 눌립니다. 그 체계가 상부 승인과 정치 안전을 먼저 따진다면 기술의 속도는 군의 문화에 붙잡힙니다.

인지전은 이 틈을 상대에게도 만들려 합니다. 대만 사람에게 미국은 떠날 것이라고 속삭이고 대만 지도부에게 저항은 헛된 일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일입니다. 딥페이크와 가짜 계정은 겉에 보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더 깊은 목적은 의심을 사회 안에 심는 것입니다. 대만의 통신망이

끊기고 가짜 뉴스가 퍼지고 바깥과의 접촉이 느려지면 사람은 사실보다 소문에 먼저 반응합니다. 중국군이 정보지원부대를 점령 뒤 통신망 복구와 방화벽 설치의 실행 부대로 보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총을 든 병력이 도시를 차지한 뒤에는 정보가 도시를 차지합니다.

대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여러 곳에 나누어 저장하고 한 지점이 공격받아도 다른 곳이 살아 있게 만드는 교차 백업을 준비합니다. 모든 접속을 의심하는 제로 트러스트 방식도 같은 맥락입니다. 끊겨도 다시 잇고 속아도 다시 확인하는 체계입니다. 결국 우주 사이버 전자전 인지전의 싸움은 누가 더 센 신호를 쏘느냐만의 문제가 아닌 편입니다. 끊긴 뒤 누가 먼저 회복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중국은 먼저 마비시키려 하고 대만은 빨리 되살아나려 합니다. 그 간격이 위기의 첫 시간을 결정합니다.

이 싸움의 무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성의 궤도 신호의 주파수 해저 케이블의 위치 데이터센터의 방화벽 가짜 계정의 확산 속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는지 모른 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가 느려지고 뉴스가 뒤섞이며 통신이 끊기고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포탄보다 먼저 흔들립니다. 중국이 이 영역에 힘을 쏟는 까닭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 사회의 판단력을 먼저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이 준비하는 회복력은 그래서 군사 장비만의 문제가 아닌 편입니다. 전력망 통신망 정부 발표 언론 시민 팩트체크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케이블이 끊겼을 때 다른 길로 신호가 가고 가짜 영상이 퍼질 때 사실 확인이 따라붙고 지휘망이 흔들릴 때 예비 경로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회복은 기술이면서 사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결론은 장비 목록보다 운용의 결합에 있습니다. 중국은 위성 해킹 전파 방해 가짜 뉴스 케이블 절단을 한 줄로 묶으려 합니다. 대만과 동맹은 그 줄이 끊긴 뒤 다시 잇는 법을 준비합니다. 공격의 속도와 회복의 속도. 첫 충돌에서 부딪치는 것은 이 두 속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일수록 평시의 준비가 더 오래 남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 새로 배울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평시의 훈련과 백업 절차가 곧 전시의 생존 장치가 됩니다. 준비된 경로만이 끊어진 신호를 다시 살립니다.

7장 해공군력 원거리 전력 투사와 군수 지속

2025년 6월 이오토 동쪽 바다에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떠 있었습니다. 이오토는 우리가 유황도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부르는 섬입니다. 80년 전 이 섬을 두고 벌어진 상륙전은 태평양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린 싸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바다 위에서 랴오닝함은 함재기를 하늘로 띄우고 다시 갑판으로 받아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그 해역에서 중국 함재기의 이착륙 작전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지도를 펴 보면 이 위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만 앞바다가 아닌 편입니다. 일본 열도를 훌쩍 지나 태평양 안쪽으로 깊이 들어온 지점입니다.

이 장에서는 딱 이 한 장면에서 출발해 두 개의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중국 해군과 공군은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넓어진 팔이 정작 싸움이 길어질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힘의 크기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 힘의 밀천에 관한 것입니다.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 안에서 확인된 사실과 분석가의 판단을 구분해 가며 걸어가겠습니다.

작전 반경이 넓어진다는 말의 실제

먼저 규모를 봅시다. 미국 의회에 제출된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의 2025년 연례 보고서는 중국 해군을 약 26만 명의 병력과 370척이 넘는 전투 함정을 가진 세력으로 기록합니다. 숫자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 배들이 어디까지 나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랴오닝함과 산둥함 두 항공모함의 항적이 그 답입니다. 산둥함은 2023년 4월 이후 최소 아홉 차례 태평양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랴오닝함은 앞서 말한 유황도 동쪽 훈련에 더해 요나구니섬과 이리오모테섬 사이를 지나 오키노토리 암초 남서쪽 바다와 하늘에서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처음으로 벌였습니다. 2026년 6월에는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필리핀해와 태평양을 무대로 원양 훈련을 마쳤고 그 사이 함재기 출격이 170회에 이르렀다고 일본 방위성은 집계했습니다. 두 항모를 태평양 쪽에서 동시에 운용한 것도 이 무렵 처음 확인됐습니다. 항모 한 척을 겨우 굴리던 나라가 이제 두 척을 앞바다 너머로 함께 내보내는 나라가 된 구조입니다.

배가 나가는 방향도 예전과 다릅니다. 최신형 055형 렌하이급 대형 구축함을 앞세운 수상함들이 호주 대륙을 한 바퀴 돌았고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국제 수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2025년 7월에는 하와이 인근 바다에서도 중국 함정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같은 해 3월 중국 해군은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해역에서 이란·러시아와 함께 연합 해상 훈련을

했습니다. 그 전해 10월에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와 손잡고 베링해에서 중국 해경선의 연합 순찰을 처음으로 벌였습니다. 알래스카가 코앞인 바다입니다. 인도양과 페르시아만 그리고 북극권까지. 한 나라 해군의 활동 무대라고 보기에 너무 멀리 흩어진 좌표들입니다.

이 먼 항해를 물리적으로 떠받치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 배이고 하나는 해외 항구입니다. 003형 항공모함 푸젠함은 해상 시험을 마쳤고 세계 최초의 드론 항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076형 강습상륙함이 건조 중입니다. 093B형과 094형 잠수함 YJ-21 미사일도 전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구 쪽을 보면 아프리카 지부티에 군사 기지를 세운 데 이어 캄보디아 림 해군기지를 넓혔고 파키스탄 과다르 항과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의 사용권을 확보했으며 적도기니 같은 아프리카 나라에도 해군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가 멀리 나가려면 중간에 기름을 넣고 정비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항구 사슬이 바로 그 정거장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 심해에서는 상양홍 계열 측량선들이 잠수함 작전에 필요한 해저 지형을 조사하고 다닙니다. 바닷속 지도를 미리 그려 두는 작업입니다.

공중은 어떨까요. 일본 상공의 사례가 흐름을 잘 보여 줍니다. 핵무기를 실을 수 있고 공중급유까지 되는 H-6N 폭격기를 앞세워 중국 공군은 러시아 항공우주군과 장거리 연합 비행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동해 상공에서만 중러 연합 폭격기 비행이 최소 열 차례 이뤄졌고 그 범위가 시코쿠 앞바다까지 내려왔습니다. 2024년 8월에는 중국의 Y-9 정보수집기가 나가사키현 단조 군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런 비행은 한국과 일본 전투기의 긴급 발진을 반복해서 불러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중러 폭격기 편대가 미국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 인근까지 처음으로 함께 날았습니다. 미 본토 방공망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무인기의 반경도 함께 늘었습니다. TB-001 BZK-005 WZ-7 같은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들이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 미야코 해협을 지나 태평양으로 자주 나가고 2023년부터는 요나구니섬과 대만 사이 하늘을 정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낡은 자산까지 재사용합니다. 구형 J-6 전투기 약 300대를 무인기로 개조해 대만을 겨냥한 군집 비행 전력으로 배치했습니다. J-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새 유인기를 뽑아내는 동시에 퇴역할 뻔한 기체를 무인 타격기로 되살려 대만 방공망을 어지럽히는 전술입니다.

USCC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이 2025년 7월 6세대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전자전 체계를 공개했다는 기록입니다. 이 체계는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미군의 핵심 기지가 있는 괌과 마셜 제도 알래스카에 이르는 미군 레이더 신호를 잡아내고 억누를 수 있는 사거리를 지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파의 영역에서도 중국이 미군의

뒷마당까지 손을 뻗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항적과 비행경로를 한자리에 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떠오릅니다. 대만을 지원하러 오는 미군과 동맹 함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것 이른바 반접근·지역거부 작전입니다. 대만 포위 훈련인 해협천동-2025A에서 산둥함과 랴오닝함 전단이 대만 동부 연안과 필리핀해에 배치된 것이 그 뜻을 드러냅니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를 두고 미국·일본·대만을 잇는 군사 개입의 세 갈래 선을 끊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래스카 인근 폭격기 비행과 하와이 인근 함정 활동 재래식 방어망을 돌아 나가는 부분궤도폭격체계 개발까지 함께 보면 여기에는 미국의 후방을 위협해 참전 의지 자체를 꺾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가들은 봅니다. 이 장면은 확인된 배치와 분석가의 해석이 섞여 있으니 판단으로 받아 두는 편이 맞습니다.

강습 함대의 약한 고리 민간 상륙정

여기까지만 보면 중국의 힘은 거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만에 실제로 병력과 전차를 실어 나르는 문제로 내려오면 그림에 갑자기 금이 갑니다.

오랫동안 중국 해군의 숙제는 상륙함 부족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평가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해군은 대규모 상륙 작전에 꼭 필요한 전차상륙함과 중형상륙함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왔습니다. 대만이라는 섬에 수십만 병력을 실어 나르려면 배가 턱없이 모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오랜 공백을 중국은 뜻밖의 자산으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대담에서 밝혀진 것은 바로 민간 상륙정 곧 LCT였습니다.

LCT는 원래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왕립해군과 미 해군이 만든 상륙정 설계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남은 배들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상업용으로 바뀌어 항구가 변변찮은 섬과 섬 사이에 중장비와 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데 널리 쓰여 왔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화물선입니다. 하지만 이 배의 군사적 쓸모가 상당합니다. 뱃머리에 달린 램프를 곧장 해변에 내리고 전차와 트럭 같은 무거운 장갑 차량을 해안에 바로 부려 놓을 수 있습니다. 부두가 없어도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1진 강습 부대가 해변에 오른 직후부터 정규 항구를 점령하거나 수이치아오급 상륙 바지선 같은 부유식 부두를 세우기 전까지 병력이 텅 빈 채로 노출되는 위험한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LCT는 바로 그 구멍을 메워 줍니다.

규모를 들으면 놀랍습니다. 분석가들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민간 LCT들이 해변에 직접 부려 놓을 수 있는 수송량의 총합이 회색으로 칠한 공식 상륙함 전체의 차량 수송 능력의 여섯 배에 이른다고 경고합니다. 서류상 부족했던 수송력이 민간 배를 끌어오는 순간 단숨에 넘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선박 위치추적 데이터로 겔보기에 평범한 상업용 데크 화물선들이 중국 남부 전구의 알려진 상륙 훈련 해변으로 곧장 향하는 것을 잡아냈습니다. 이 배들은 차량을 부릴 만큼만 잠깐 해변에 머물다 곧바로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강습 상륙 훈련 동작을 보였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중국의 한 조선소 한 곳에서만 80여 척의 LCT가 한꺼번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국은 군과 민간의 경계를 흐리는 방식을 씁니다. 대만 국방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은 정규 수송 수단이 모자란 문제를 풀기 위해 상업용 로로선과 반잠수식 선박 민간 항공사 철도와 고속도로 수송 차량까지 징발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려고 평시 훈련과 작전 계획을 손보고 있습니다. 훈련하던 배가 그대로 작전에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침공 징후가 흐릿해집니다. 평범한 물류 훈련인지 진짜 상륙 준비인지 밖에서 가려내기 어려워지고 대만군이 전투 준비에 들어갈 시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때 반전이 옵니다. 이 여섯 배의 수송력이 곧 여섯 배의 강함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CSIS 대담이 짚은 대목이 날카롭습니다. 동원되는 LCT나 데크 화물선이 전부 인민해방군 통제 아래 있는 해상민병대 소속인 것은 아닌 편입니다. 상당수는 순수한 상업용 배이고 민간인 선장과 선원이 몸니다. 이 배들이 제1진 강습 부대 뒤를 이어 해변에 닿게 되는데 중국이 대만 섬을 완전히 평정하지 못한 이상 그 해변에는 여전히 전장의 안개와 마찰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대만 방어군은 격렬히 저항할 테고 미국과 동맹 전력도 이 느리고 장갑도 없는 배들을 먼저 노릴 것입니다. 총탄과 미사일이 쏟아지는 해변에서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 선장이 규율을 지키며 전차를 부려 놓을 수 있을지 자료는 그 물음표를 그대로 남겨둡니다.

손실의 성격도 다릅니다. 탄약이나 미사일은 본토 공장에서 다시 찍어내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송선은 다릅니다. 병력과 장비를 실어 나르는 배가 침몰해 큰 손실을 입으면 새 수송 체계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 사실상 후속 상륙 시도 자체가 막힙니다. 해변에 이미 오른 제1진은 뒤가 꿇긴 채 고립됩니다. 미국과 대만이 이 약점을 놓칠 리 없습니다. USCC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민간 자율 시스템 기술을 끌어와 레플리케이터 구상을 밀고 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그 목적을 두고 수만 대의 드론과 무인 수상정을 쏟아부어 대만 해협 전체를 무인 지옥도로 만들어 상륙 부대의 접근 자체를 부수겠다고 밝혔습니다. 겔보기에 거대한 수송 선단이 실제로는 쉽게 부서지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절이 남기는 그림입니다. 뒤의 평가는 분석가들의 판단이니 확정된 결과가 아니고 시나리오로 읽어야 합니다.

첫날의 화력보다 몇 달의 밀천

이제 시야를 시간축으로 돌립니다. 대개 전쟁 시뮬레이션은 개전 며칠 길어야 몇 주에서 끝납니다. 첫날 쏘아 올린 미사일 숫자를 세는 데서 멈추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은 거기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텅 빈 탄약고를 다시 채우고 침몰한 배를 대체하고 기름이 끓인 경제를 버텨 내는 능력. 이 지속의 힘에서 진짜 승부가 갈립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자료가 CSIS의 대답입니다. 로버트 그린웨이 연구팀이 미국과 중국의 연료·탄약 지속 능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챗지피티 제미니 클로드 같은 대형언어모델을 1만 6천 회 넘게 돌리고 7천 개가 넘는 선별된 자료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론이 무겁습니다. 미국이 중국 같은 동급의 적과 전면전을 벌이면 한 달 남짓 만에 핵심적인 30여 종의 정밀 타격·방어 탄약 재고가 바닥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문제는 무기가 나빠서가 아닌 편입니다. 양이 모자라고 다시 채우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입니다. 태평양 건너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고가의 정밀 무기를 쏘다 보면 재고는 금세 줄어드는데 보충은 몇 년 단위로 늦습니다. 개전 첫날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을 수는 있어도 한 달을 넘기면 미국이 중국보다 먼저 작전 한계점에 닿을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대답에서 그린웨이는 중국이 전시 해상 봉쇄로 연료 수입이 막히더라도 최소 360일 넘게 군사 작전을 이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 경제에 쓰이는 석유화학 연료의 상당 부분을 군사용으로 돌릴 수 있는 체제를 갖췄고 병참선이 대만 해협 100마일로 짧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와야 하고 중국은 앞바다만 건너면 됩니다. 이 거리 차이가 밀천의 차이를 만듭니다. 한 달과 1년. 이 대비가 이 절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마냥 유리한 것은 아닌 편입니다. 앞 절에서 본 그 약한 고리가 이때 다시 등장합니다. 연료와 탄약은 1년을 버틸지 몰라도 병력과 장비를 실어 나르는 수송선이 무너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사일과 드론은 본토에서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상륙 수송망은 그렇게 빨리 재건되지 않습니다. 첫날 대만 방공망을 초토화하더라도 미국과 대만이 준비한 무인 지옥도에 징발된 민간 상륙정들이 해협에서 대거 가라앉는다면 해변에 고립된 제1진은 탄약과 식량 보급이 끊긴 채 말라 갑니다. 여기까지는 그린웨이 팀의 분석과 워게임에 기댄 판단입니다. 확정된 미래가 아니고 물류의 논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세 장면을 한 줄로 꿰면 이렇습니다. 유항도 동쪽에서 함재기를 띄우는 항모 조선소에 늘어선 80여 척의 민간 상륙정 그리고 한 달과 1년으로 갈리는 탄약고. 첫 번째는 중국이 이미 얼마나 멀리 손을 뻗었는지 보여 줍니다. 두 번째는 그 손이 정작 대만 해변에서는 얼마나 물러질 수 있는지 드러냅니다. 세 번째는 전쟁이 첫날의 불꽃놀이가 아니고 몇 달의 밀천 싸움임을 알려 줍니다.

중국의 해공군이 대만 앞바다라는 좁은 무대를 넘어 태평양 심장부와 북극권까지 실제로 작전 반경을 넓혔다는 사실은 자료가 분명히 뒷받침합니다. 370척의 군함 드론 항모 핵탑재 폭격기 무인기 편대가 만든 힘의 팽창은 진짜입니다. 그렇지만 그 힘이 대만이라는 섬을 실제로 손에 넣을 수 있느냐는 물음 앞에서는 민간 선박에 얹힌 위태로운 수송과 한정된 재고라는 벽이 함께 서 있습니다. 위험을 낮춰 보지 않되 승패를 일정표로 단정하지 않는 것. 이 장의 자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그것입니다.

탄약고 이야기부터 이어 가겠습니다. 미국의 재고가 대만 전쟁을 앞두고 이미 얹아졌다는 사실은 대만이 아니고 이란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CSIS 분석서 『If China Attacks Taiwan』 (2025년 12월)은 미군이 2025년에 이란의 군사 기지와 레이더망을 무너뜨리려 벌인 작전을 기록합니다. 작전 이름은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였습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날았습니다. 패트리엇과 사드 요격 미사일이 뒤를 받쳤습니다. 며칠뿐이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미군은 전 세계에 쌓아 둔 사드 요격 미사일 재고의 4분의 1 넘게를 써 버렸습니다. 미 육군이 전 지구에 굴리는 사드 포대는 여덟 개뿐입니다. 실제 대만 전쟁이 터지기도 전에 방패의 화살통이 한 번 크게 비워진 것입니다.

같은 보고서의 표 하나가 그 뒤를 잇습니다. 대만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첫 한 주 동안 미군이 쏟아부어야 할 미사일 숫자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중국 함대를 저지하는 장거리 대함 미사일 LRASM이 450발에서 1000발. 지상 표적을 때리는 재즘-ER(JASSM-ER)이 3500발에서 4000발. 한 주 만에 이만큼입니다. 문제는 값과 시간입니다. LRASM은 한 발에 약 300만 달러 JASSM-ER은 약 250만 달러입니다. 비운 창고를 다시 채우는 데는 해가 바뀌어야 합니다. SM-3 IIA 요격 미사일은 4년 넘게 사드 요격체는 3년 넘게 걸립니다. 앞 절에서 그린웨이 연구팀이 한 달 남짓 만에 핵심 30여 종 탄약이 바닥난다고 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개전 첫날 미군은 압도적인 불벼락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그 불벼락을 한 달 넘게 이어 갈 화살은 창고에 없습니다.

중국 쪽의 밀천이 두껍다는 말에도 숫자를 붙이겠습니다. 그린웨이는 대담에서 중국이 민간 경제에 들어가는 석유화학 연료의 최대 30퍼센트를 군사용으로 돌릴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고

봤습니다. 병참선은 대만 해협 100마일로 짧습니다. 이 두 가지가 360일 넘는 작전 지속의 바탕입니다. 다만 이 두꺼운 밑천에도 얇은 자리가 있습니다. 병력과 전차를 대만 해변까지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그 얇은 자리가 워게임 숫자로 드러납니다. CSIS는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에서 대만 침공 상황을 70차례 넘게 돌렸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는 기본 시나리오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미군은 첫 주에 전진 배치한 항공모함 두 척과 병사 1만 명을 잃습니다. 큰 피해를 흘립니다. 중국도 성하지 못합니다. 상륙에 성공한 병력은 3만 7천 명에 그칩니다. 사상자 7천 명. 잃은 항공기 155대. 잃은 함정 138척. 그리고 보급이 끊기자 해변에 남은 병력이 모두 항복합니다. 미국이 손을 떼는 시나리오에서도 값은 큼니다. 중국은 23만 명을 상륙시키는 데는 성공하지만 사상자 7만 명을 내고 상륙정 17척과 호위함 17척을 잃으며 두 달 넘게 피해를 치릅니다. 어느 쪽이든 상륙 함대가 먼저 녹아내리는 그림입니다.

그 함대가 향하는 바다에 무엇이 깔리지도 한 겹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 절에서 무인 지옥도를 드론과 무인 수상정으로 그렸습니다. 대만 방어망은 그것만이 아닌 편입니다. 하푼(Harpoon) 대함 미사일이 있고 해협을 뱅뱅하게 메우는 기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도 없는 민간 상륙정이 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조선소 이야기에다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2025년 1월 80여 척의 LCT가 한 프레임에 잡힌 곳은 중국 싱(Xing) 조선소였고 사진을 찍은 눈은 구글 어스(Google Earth)의 상업용 위성이었습니다. 하늘의 전자전에도 짝이 있습니다. 미 해군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에 맞서 중국은 J-16D 전자전기를 앞세워 운용합니다. 방패와 창이 영역마다 서로를 겨눕니다.

이제 시선을 대만 안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싸움이 길어질 때 시계가 짧은 쪽은 미국과 중국만이 아닌 편입니다. 대만 자신의 시계가 오히려 더 촘촘합니다. CSIS의 마크 캔시안은 대담에서 해상 봉쇄가 걸렸을 때 대만의 자원이 바닥나는 순서를 짰습니다. 식량은 여섯 달을 버팁니다. 에너지가 문제입니다. 천연가스는 2주에서 3주면 떨어집니다. 그다음 석탄과 석유마저 마르면 대만 경제와 방위 산업의 상당 부분이 멈춰 섭니다.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에 발전소부터 꺼지는 상황입니다.

병력을 세우는 데 걸리는 시간도 약점입니다. 대만은 1년 의무복무와 14일 예비군 훈련으로 모자란 상비군을 메우려 합니다. 미군 예비군의 38일 훈련에 견주면 절반이 못 됩니다. 예비군 전체를 무장시킬 소총 수량조차 필요분의 일부에 그칩니다. 이 거대한 예비 인력을 실제 전투 대형으로 완전히 세우는 데는 60일에서 90일이 걸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이 전면 상륙 대신 철저한 봉쇄로 밀고 간다면 대만은 예비군이 대형을 갖추기도 전에 3주 차의 천연가스

고갈과 정전 경제 마비를 먼저 맞을 위험이 큼니다. 이 판단은 캔시안의 분석과 봉쇄 시나리오를 근거로 한 전망이며 확정된 결과가 아닌 편입니다.

싸움이 끝나는 지점에서조차 지속의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If China Attacks Taiwan』의 '시간은 전략 자산이다' 장은 중국의 계산이 전장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봅니다. 티베트 신장 홍콩의 사례에서 보듯 중국은 영토를 손에 넣은 뒤의 정치적 변혁과 강제 동화를 승리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대만 섬에 오른 뒤에는 인민무장경찰(PAP)과 신설된 정보지원부대(ISF)가 나섭니다. 방화벽을 세우고 인지전을 벌이고 게릴라를 훑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반대편에 섰습니다. 대만은 '전사회적 방어'와 '심층 방어'로 적을 수렁에 빠뜨리는 지구전을 국방총검토에 명시했습니다. 중국이 개전 첫날 항구와 공항을 잡더라도 대만 국민의 지하 저항이 이어진다면 중국은 수십만 치안 병력을 무기한 주둔시켜야 합니다. 과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미국의 베트남처럼 국력을 오래 갉아먹는 수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경고입니다. 이 대비 역시 전망이며 사실로 확정된 미래가 아닌 편입니다.

숫자들을 한 줄에 걸어 두겠습니다. 미국의 사드 여덟 포대와 몇 년짜리 재보급 시간 중국의 360일과 얇은 상륙 수송망 대만의 식량 여섯 달과 천연가스 2주. 세 나라의 시계가 서로 다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첫날의 미사일 숫자가 아니고 이 시계들이 먼저 멈추는 순서가 아시아의 운명을 가릅니다. 위험을 낮춰 보지 않되 그 순서를 일정표로 못 박지 않는 것. 자료가 요구하는 태도는 그대로입니다.

해공군력의 반경이 넓어진다는 말은 지도 위의 선이 길어진다는 뜻만이 아닌 편입니다. 멀리 나간 함대와 폭격기를 먹이고 고치고 다시 움직이게 할 능력이 함께 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공모함이 태평양 깊숙이 나가고 폭격기가 러시아기와 함께 알래스카와 일본 주변을 도는 장면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작전 반경의 마지막은 언제나 군수입니다. 연료를 어디서 받는가 탄약을 얼마나 싣는가 고장 난 장비를 누가 고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먼바다의 항모는 깃발만 흔드는 무대가 됩니다.

중국의 강점은 가까운 해협에 있습니다. 대만해협은 짧습니다. 본토 항구와 공군기지와 미사일 기지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중국은 민간 연료와 상업 선박까지 군사 동원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 오래 버티는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그 강점은 바다를 건너는 순간 약점과 맞닿습니다. 상륙 부대를 태운 배가 약하면 아무리 뒤에 연료와 탄약이 많아도 해변의 병력은 고립됩니다. 위계임에서 상륙 병력이 3만 7천 명까지 올라간 뒤 보급이 끊겨 무너지는 장면은 이 약한 고리를 보여 줍니다.

미국 쪽도 마음 편한 것은 아닌 편입니다. 첫 주에 쏟아부어야 할 장거리 대함미사일과 공대지미사일의 수량은 크고 재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은 새로 만드는 데 몇 해가 걸립니다. 항공모함 두 척과 병사 1만 명이라는 손실 추산은 승리의 숫자라기보다 전쟁의 값입니다. 중국이 상륙선단을 잃고 미국이 항모와 탄약을 잃는다면 어느 쪽도 가볍게 방아쇠를 당길 수 없습니다. 억제제는 상대를 겁주는 말이 아니고 자기도 감당해야 할 값을 아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중국 해공군의 원거리 전력 투사는 두 얼굴을 갖습니다. 하나는 분명한 성장입니다. 항모의 장기 항해 폭격기의 연합 순찰 신형 강습상륙함과 미사일 전력은 과거의 중국군과 다른 모습을 보여 줍니다. 다른 하나는 지속의 의문입니다. 멀리 나간 전력이 실제 충돌에서 얼마나 오래 싸울지 상륙 함대가 첫 피해 뒤 어떻게 보급을 이어갈지 그 답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에서 남는 숫자는 함정 수가 아닌 편입니다. 중국의 360일 미국의 한 달 남짓 대만의 천연가스 2주에서 3주입니다. 시계가 서로 다르게 흐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먼저 멈추는 시계가 패배를 부릅니다.

원거리 전력은 과시와 실전 사이의 거리를 드러냅니다. 항모가 먼바다에 나갔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시에 그 항모가 미 잠수함과 미사일과 드론을 뚫고 어느 바다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폭격기가 러시아와 함께 날았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합 비행이 곧 연합 전쟁 수행 능력은 아닌 편입니다. 중국군은 분명 바깥으로 뻗고 있습니다. 다만 그 뻗은 팔이 맞고도 버티는 팔인지 아직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함정 수와 출격 횟수만 남습니다. 전쟁은 수량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조종사의 피로 부품의 교체 항만의 안전 연료 보급의 순서까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중국이 가까운 바다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갖지만 먼바다에서는 그 조건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반경의 확대는 실력의 증거이면서 시험의 시작입니다.

먼바다의 전력 투사는 결국 본토와의 거리와 싸우는 일입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보급선은 길어지고 수리 시간은 늘며 작은 손상도 큰 지연이 됩니다. 중국군이 이 거리를 줄이려고 항만과 해외 거점과 민간 동원 체계를 넓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반경은 숫자가 아니고 버티는 시간입니다.

8장 군민융합과 2027 건군 100주년

2024년 어느 날 상업용 위성 한 대가 중국 남부 해안의 한 조선소 위를 지나갔습니다. 내려받은 사진에는 회색 바지선들이 부두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군함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항구가 없는 섬과 섬 사이로 골재나 일반 화물을 나르던 평범한 상선 이른바 민간 상륙정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이 하나씩 세어 보니 '싱' 조선소라 불리는 한 곳에서만 여든 척 넘는 배가 한꺼번에 잡혔습니다. 배 앞머리에는 해변에 바로 다리를 내리고 전차를 부릴 수 있도록 개조한 장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이번 장에서 이야기할 두 개의 개념 군민융합과 민참군 그리고 2027년이라는 숫자의 성격을 거의 다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자주 뒤섞여 쓰이는 두 말을 갈라 놓겠습니다. 하나는 군민융합입니다. 영어로는 밀리터리 시빌 퓨전 줄여서 MCF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민참군입니다. 영어로는 스피논이라고 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리한 중국의 제15차 5개년 국방정책 분석을 보면 이 두 개념은 같은 국가 안보 전략 안에서 층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군민융합은 군과 지방의 물리적 자원 인프라 평시와 전시의 체제를 하나로 묶는 큰 틀의 동원 전략입니다. 군과 민간 자원의 공유 평시와 전시의 일체화 군과 지방 전략 계획의 통합 정책과 제도의 정렬을 모두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 터졌을 때 나라의 경제와 인프라와 물류를 통째로 군사 작전에 밀어 넣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병참기지로 바꿔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의 위성 사진이 바로 그 군민융합의 얼굴입니다. 중국 해군은 오랫동안 대규모 상륙에 필요한 정규 수송함 전차상륙함 같은 배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 빈자리를 민간 상선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의 계산으로는 동원 가능한 민간 상륙정들이 해변에 짐을 내리는 능력을 다 합치면 인민해방군 정규 상륙함 전체가 나르는 양의 여섯 배에 이릅니다. 평범한 화물선들이 남부 전구의 훈련 해변으로 곧장 가서 하역 연습을 마치고 빠져나오는 장면이 국방정책 문서에 적힌 '평시와 전시의 일체화'라는 말의 실제 모습입니다.

같은 민간 자산이 평시에는 회색지대라는 이름의 어중간한 싸움에도 동원됩니다. 미 의회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낸 2025년 연례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정규 군함 대신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 민간 위장 선박을 앞세워 상대의 핵심 인프라를 건드립니다. 2025년 2월 25일에는 토고 선적으로 위장한 중국 소유 화물선 홍타이 58호가 닻을 끌며 배회하다가 대만 본섬과 마주 평후 제도를 잇는 해저 통신 케이블을 끊은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같은 방식의 케이블 절단은 유럽 발트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대만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스물네 개 남짓한 해저 케이블에 기대고 있어서 이런 배 한 척이 유사시 대만의 통신망과 지휘망을 흔들

수 있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배가 군사적 효과를 내는 것 이것이 군민융합의 그늘진 쪽입니다.

두 번째 말 민참군은 결이 다릅니다. 같은 국방정책 문서는 이것을 '첨단 기술을 위한 민참군 녹색 통로의 개선'이라고 적었습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저궤도 위성처럼 빠르게 바뀌는 기술은 굵은 국방 연구개발로는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군사 조달 절차를 건너뛰고 민간의 상용 제품과 앞선 알고리즘을 곧장 무기체계에 엮는 지름길을 뚫었습니다. 그 지름길에 붙은 이름이 녹색 통로입니다.

이 녹색 통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인공지능 쪽 사례가 잘 보여 줍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강한 반도체 수출 통제 속에서도 중국의 인공지능은 민간 기업이 앞장서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중국의 신생 기업 딥시크가 V3라는 대형 언어모델을 내놓고 2025년 1월에는 추론 모델 R1을 공개했습니다. 적은 연산 자원으로 미국 선두 기업에 맞먹는 성능을 냈다고 해서 '딥시크 충격'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값싸고 효율 높은 민간 알고리즘이 녹색 통로를 타고 군으로 넘어갑니다. 2025년 5월 중국 해군은 모의 훈련에서 민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보조 의사결정 시스템을 유도미사일 호위함에 넣어 스텔스 성능을 60퍼센트 넘게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민간 이미지 생성 기술은 인지전에도 쓰여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가 격추된 것처럼 꾸민 가짜 이미지나 미국 사회의 분열을 노린 가짜 뉴스 앵커를 찍어 내는 데 옮겨졌습니다.

우주에서도 같은 방식이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중국 항공우주군은 우주 기반 지휘통제망을 짧은 시간에 완성하려고 랜드스페이스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갤럭시 에너지 같은 민간 우주 기업의 기술을 대거 끌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스타링크에 맞서는 1만 3천 개 위성 규모의 저궤도 통신망 귀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는 위성 2천 8백 개로 이뤄지고 초당 1천 페타의 연산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삼체 컴퓨팅 별자리의 위성 열두 개를 쏘아 올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드는 우주 슈퍼컴퓨터를 민간 기업의 발사체와 위성 양산 능력을 빌려 앞당긴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중국군은 하드웨어는 군민융합으로 굵어모으고 소프트웨어는 민참군으로 수혈받는 이중 트랙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두 축을 갈라 읽으면 힘의 이면에 있는 약한 고리가 보입니다. 민참군으로 들어온 인공지능과 위성 자산은 수뇌부의 결심 속도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실제 전장으로 실어 나르는 수단은 군민융합으로 급하게 징발한 장갑도 없는 민간 상륙정과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민간 선원들입니다. 대만

해협 100마일이 미국과 대만이 깔아 놓은 수만 대의 방어 드론과 대함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이른바 무인 지옥도로 바뀔 때 규율이 몸에 배지 않은 민간 선장이 포화 속에서 냉정하게 전차를 하역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기술 도입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그 기술을 현장에서 집행할 사람과 배를 민간에 지나치게 기대는 구조는 전투 초반에 수송 선단이 무너지면 보급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2027년이라는 숫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워싱턴의 정책계와 언론이 대만 침공을 말할 때 자주 입에 올리는 해가 2027년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성격을 잘못 읽으면 이야기 전체가 어긋납니다. 여러 국방 보고서와 미국 정보기관의 공식 평가는 2027년이 중국이 대만을 치겠다고 정한 결행일이 아니고 침공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정한 준비태세의 시한임을 분명히 갈라 놓습니다. 이 선을 어디에 긋느냐가 이번 장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2027년이 서방의 머릿속에 박힌 계기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던 필립 데이비슨 제독이 의회에서 중국이 앞으로 6년 안에 그러니까 2027년까지 대만을 칠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시기를 정책가들은 '데이비슨의 창'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한편 중국 내부의 시간표에서 2027년은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상징적인 해입니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이 건군 100주년을 겨냥해 군의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 발전을 앞당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2027년 창군 100주년 목표 기한 내 달성과 고품질의 국방·군사 현대화 추진'을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2027년은 2035년까지 국방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전략 억제 능력과 우주·사이버 같은 새 영역의 전투력을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1단계 마감 시한입니다.

문제는 시진핑의 지시가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뜻이지 2027년에 방아쇠를 당기라는 표적 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최고위 정보 책임자들은 이 구분을 거둬 못박아 왔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장은 2023년 2월 한 시상식과 방송 인터뷰에서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그가 2027년이나 다른 어느 해에 침공을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027년은 의도의 문제가 아니고 준비태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은 2026년 3월 18일 발표한 연례 위협 평가에서 같은 시각을 다시 확인하며 중국 지도자들은 현재 2027년에 대만 침공을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통일을 위한 고정된 일정표도

없다고 적었습니다. 시진핑 본인조차 2023년 11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신에게 2027년이나 2035년에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 있다는 관측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외교가와 언론은 데이비슨의 창이 불러온 공포에 휩싸여 2027년을 사실상 확정된 마감일처럼 읽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러 정책 보고서는 미국 정책가들이 중국의 오랜 군비 증강을 무조건 전면 침공의 준비로 간주하며 2027년을 공격 날짜로 가정하는 오류를 지적합니다. 이런 해석은 미 의회가 동아시아 방위비에 수십억 달러를 서둘러 배정하는 과잉 대응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만도 능력 시한에 맞춰 전례 없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국방 예산을 약 7.5퍼센트 올렸고 2026년 5월에는 입법원이 미국산 무기 조달을 위해 248억 달러 규모의 8년짜리 특별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총통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3.3퍼센트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능력 시한을 채운 뒤 실제로 펼칠 전략은 무엇일까요. 분석 기관들은 전면 침공보다 대만의 항복을 이끌어 내려는 저강도 장기전에 무게를 둡니다. 미 국방부의 평가나 여러 워게임 토론을 보면 중국군이 2027년 말까지 대만과 싸워 이길 하드웨어를 갖추고 미군을 먼 바다에서 교란할 타격 훈련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략의 본질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쪽에 가깝습니다. 전쟁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가 함께 낸 2026년 3월 27일자 대만 관련 업데이트는 중국이 무력 침공 없이도 대만이 재통일에 동의하도록 서사적 경제적 정치적 수단을 아우르는 '전쟁 문턱 이하의 강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국가정보국장실 역시 중국이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회색지대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 평가가 나온 직후인 3월 19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에 대만 관련 언행에 신중을 기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T1 지침이 요구하는 구분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027년의 '능력 시한'과 이른바 '2027년 침공설'은 같은 말이 아닌 편입니다. 능력 시한은 중국공산당이 자군의 약점 그러니까 부족한 상륙 수송 능력이나 지휘통제의 결함을 극복하고 미군의 개입을 막아 내는 문턱에 이르겠다는 내부 성과 지표에 가깝습니다. 2027년을 무조건 전쟁이 터지는 운명의 해로 못박으면 지금 대만 해협에서 매일 벌어지는 사이버 해킹 가짜 뉴스 방공식별구역 침범 해저 케이블 절단 같은 점진적 압박의 무게를 놓치게 됩니다. 위협을 낮춰 보아서도 안 되지만 특정 날짜에 매달려 중국의 진짜 의도 곧 싸우지 않고 대만을 끌어당기려는 흐름에 허를 찔려서도 안 됩니다. 능력이 완성된다는 것은 침공의 문턱이 낮아진다는 뜻이므로 대만의 비대칭 무기

도입과 동맹 간의 대비는 그 자체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창한 현대화 목표와 실제 사이에 벌어진 틈을 들여다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하드웨어의 외형은 거의 완성 단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안을 채워야 할 사람과 구조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숙청 자료는 참담합니다. 반부패라는 이름 아래 2022년 이후 공식적으로 숙청되거나 사라진 상장 중장급 최고위 장성이 최소 101명에 이릅니다. 중앙군사위와 전구 사령관급 176개 보직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퍼센트가 숙청의 타격을 받았고 핵심 지도부 직책 52개 중 2026년 2월 기준으로 채워진 자리는 열한 개 21퍼센트에 그쳤습니다. 2022년에 3성 장군이었거나 그 뒤 진급한 47명 중 41명 87퍼센트가 제거됐습니다. 작전을 지휘할 연합참모부는 수장인 류전리와 부참모장 넷이 모두 날아갔고 군 서열 1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마저 2026년 1월에 숙청됐습니다. 대만을 마주한 동부전구 사령관 린샹양 사이버공간군 사령관 장밍화 같은 핵심 지휘관들도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다만 장유샤가 왜 숙청됐는지 그러니까 부패 때문인지 권력 다툼 때문인지 침공에 신중하라는 목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반역 의혹 때문인지는 지금 공개된 자료로는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문은 그 원인을 판단 보류로 남겨 둡니다.

이 인적 공백이 왜 아픈지는 세대 문제에서 드러납니다. 장유샤와 류전리 같은 인물은 1979년과 1984년의 중월 국경 전쟁에 참전한 인민해방군에 남은 마지막 실전 베테랑이었습니다. 이들이 도려내지고 그 자리를 실전 경험이 없는 1979년 이후 입대 세대가 채웠습니다. 100여 명이 끌려 나가는 것을 지켜본 살아남은 지휘관들은 군사적 판단보다 사상 검열과 절대 충성을 앞세우는 분위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스스로 작전을 결심하지 못하는 이른바 '5개 불가'와 책임을 피하려는 '평화병'이라는 오래된 진단이 고도로 복잡한 다영역 합동작전을 짜고 집행할 능력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리에서도 틈이 있습니다. 지능화 전쟁에서 빠른 킬체인과 결심 우위를 얻으려면 현장 지휘관에게 유연한 판단 권한을 줘야 합니다. 랜드연구소가 '중국적 특색의 임무형 지휘'라는 제목으로 짚었듯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도 하급 부대에 규제된 자율성을 주는 임기처치권한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군에 대한 절대적 정치 통제를 체제 생존의 조건으로 여기는 공산당의 본질과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베이징 수뇌부는 현장 지휘관이 자신들의 뜻을 벗어나 무력을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중 지휘 구조와 정치위원의 상시 감시 탓에 상급자가 중간 제대를 믿지 못해 최전방을 직접 통제하려 드는 건너뛰기식 지휘가 자주 나타납니다. 우주의 슈퍼컴퓨터가 표적을 1초 만에 찍어 줘도 그 정보를 받은 함장이 중앙의 정치적 승인을 기다리며 멈칫하면 지능화 전쟁의 속도는 의미를 잃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임무형 지휘가 이름뿐인 자율성에 그칠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본 민간 상륙정 이야기는 물류의 틈으로 되돌아옵니다. 정규 상륙함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아 생긴 수송량 부족을 민간 배로 메웠지만 서류상의 여섯 배가 실전의 여섯 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해변의 안개와 마찰 속에서 훈련이 얇은 민간 선장이 몰고 온 장갑 없는 배들은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전쟁은 첫날 쏘아 올린 미사일이 아니고 지속 능력에서 갈립니다. 징발한 수송 선단이 초반에 대거 가라앉으면 후속 보급이 끊기고 해안에 오른 첫 부대는 탄약과 식량이 떨어져 고립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겉모습으로도 이런 조바심이 비칩니다. 여러 보고서와 위성 분석에 따르면 중국군은 첨단 무인기를 선전하면서도 실제로는 퇴역한 옛 소련제 J-6 전투기 약 300대를 무인기로 고쳐 드론 무리로 배치했습니다. 대만군의 방공 미사일을 소진시키려는 총알받이 용도입니다.

중국이 내건 2027년 건군 100주년과 지능화 전쟁 승리라는 청사진은 크고 위협적입니다. 수만 개의 위성 인공지능 전자전 압도적인 탄약 생산량이라는 겉모습은 거의 완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101명의 장성이 빠진 텅 빈 사령탑 당의 통제욕이 눌러 버린 현장 지휘관의 판단 방어력 없는 민간 배와 선원에게 떠넘긴 상륙 능력이라는 틈이 함께 있습니다. 이 틈은 시진핑이 자군의 능력을 실제보다 크게 보고 준비되지 않은 침공을 지시하는 오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막상 교전에 들어가면 시스템이 며칠 만에 무너지는 패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경계할 것은 특정 날짜가 아니고 능력의 완성 자체이고 함께 기억할 것은 그 능력 뒤에 남아 있는 이 커다란 빈틈입니다.

싱 조선소의 골재선만으로는 그림이 절반입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2025년에 낸 연례 보고서와 그에 딸린 대만 분석 자료를 보면 중국이 상륙 병참에서 기대는 배는 한 종류가 더 있습니다. 상업용 로로선입니다. 자동차와 트럭을 실은 채 항구에서 항구로 나르도록 만든 큰 배인데 갑판이 평평하고 차량이 스스로 오르내리게 되어 있어 전차와 장갑차를 통째로 태우기에 맞춥니다. 중국 해군은 정규 상륙함이 모자란 자리를 이 로로선을 대량으로 징발해 메워 왔습니다. 골재선이 항구 없는 해변에 직접 다리를 내리는 초월 상륙을 말한다면 로로선은 그 뒤를 이어 대규모 차량과 보급을 실어 나르는 짐꾼입니다. 서류 위에서는 그럴듯한 조합이거든요. 다만 로로선은 배전이 높고 느리며 장갑도 없습니다. 평소 물동량을 위해 만든 배를 포화 속으로 밀어 넣는 구상이라는 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케이블 이야기도 배 한 척을 붙잡은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홍타이 58호가 끊은 해저 통신선의 무게를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와 대만 관련 분석에 따르면 대만은 바깥 세상과 오가는 인터넷 흐름의 99퍼센트를 스물네 개 안팎의 해저 케이블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런 선이 한꺼번에 끊기면 하루 55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60억 원의 경제 손실이 난다고 이 보고서는 추산합니다. 지휘망이 흔들리는 값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같은 방식은 유럽 발트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중국 선박들이 100마일 넘게 닻을 끌며 배회하다 해저 케이블을 끊은 사건에 얽혔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배가 벌이는 이 회색지대 압박은 침공이 시작되기 전에도 침공이 없더라도 매일 작동합니다.

민참군으로 들어온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지휘하는 몸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2024년에 전략지원부대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세 부대를 새로 세웠습니다. 정보지원부대 항공우주군 사이버공간군입니다. 대만 국방부가 2025년에 낸 국방보고서와 관련 조직 분석은 이 셋을 합동작전의 신경 중추로 봅니다. 우주에서 표적을 찾고 사이버로 상대 망을 흔들고 정보로 이를 한데 묶어 지휘부의 결심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설계입니다. 중국군은 이 흐름을 결심 우위 그리고 전장 집행 능력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겉으로 보면 딥시크 계열의 값싼 인공지능과 삼체 컴퓨팅 위성이 이 신경망 위에 얹히는 그림입니다. 몸을 새로 짰다는 사실과 그 몸이 실전에서 제대로 도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 검증의 문턱이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모의 훈련에서 인공지능 보조 의사결정으로 유도미사일 호위함의 스텔스 성능을 60퍼센트 넘게 끌어올렸다고 밝힌 대목은 중국 해군 자신이 내놓은 수치입니다. 바깥 연구기관이 따로 확인한 값이 아닌 편입니다. 자칭 성과와 검증된 성과 사이의 거리를 기억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근본적인 물음은 부품이 아니고 연결에 있습니다. 여러 군종과 동맹군을 하나로 묶어 싸우게 하는 C4ISR 그러니까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을 잇는 체계의 신뢰성은 실전으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수출 통제라는 목조르기도 그대로입니다. 딥시크 같은 모델은 성과를 냈지만 군용 반도체와 대규모 클라우드 서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턱은 남아 있습니다.

2027년이라는 숫자가 서방 머릿속에 박힌 과정에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데이비슨 제독의 6년 경고 뒤 후임 인도태평양사령관 존 아퀼리노 제독은 그 위협이 임박했을 뿐 아니고 속도까지 빨라지고 있다고 의회에서 다시 못박았습니다. 두 증언이 겹치면서 능력 시한은 확정된 마감일처럼 굳어졌습니다. 중국 안쪽의 시간표에서 2027년은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입니다. 창군의 기점을 1927년 8월 1일 난창봉기로 잡는 계산인데 이 연도는 프로젝트 자료 밖의 일반 역사 사실이라 별도 확인을 권합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대만 문제를 두고 대를 이어 물려줄 수는 없다고 두 차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는 2027년이 방아쇠를 당기는 날이 아니고 상륙 수송과 지휘통제의 결함을 넘어 미군

개입을 밀어내는 반접근·지역거부 문턱에 이르겠다는 내부 성과 지표에 가깝다고 봅니다. 침공 날짜가 아니고 능력 시한이라는 구분은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사령탑이 비었다는 진단은 세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분석에서 연합참모부 수장과 부참모장들이 함께 날아간 대목이 무거운 까닭은 그 자리를 채운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들의 자리는 실전 경험이 없는 1979년 이후 입대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새 중부전구 사령관 한성옌이 그런 세대로 꼽힙니다. 장유샤와 류전리는 1979년과 1984년 중월 국경 전쟁을 겪은 실전을 경험한 몇 안 되는 고위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들이 도려내진 자리를 훈련장 밖을 모르는 세대가 이어받았습니다. 100명 넘는 장성이 끌려 나가는 것을 지켜본 지휘관들이 군사적 판단보다 충성 증명을 앞세우는 분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스스로 결심하지 못하는 오래된 병증이 복잡한 다영역 합동작전을 짜야 할 순간에 공백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류의 약한 고리는 하드웨어의 겉모습에서도 비칩니다. 중국군은 첨단 무인기를 앞세우면서 퇴역한 옛 소련제 J-6 전투기 약 300대를 무인기로 고쳐 드론 무리로 세웠습니다. 이 낡은 기체들의 임무는 대만군의 천궁 방공미사일을 먼저 소진시키는 총알받이입니다. 값싼 물량으로 값비싼 방어 자산을 비우게 하려는 계산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같은 계산이 바다 위에서는 징발한 로로선과 골재선으로 나타납니다. 서류상의 여섯 배 수송량이 실전의 여섯 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첫날 쏘아 올린 미사일보다 며칠 몇 주를 버티는 지속 능력에서 갈립니다. 초반에 수송 선단이 무너지면 해안에 오른 첫 부대가 탄약과 식량을 잃고 고립됩니다. 숫자가 놀랍습니다. 그 숫자가 곧 전투력이라는 뜻은 아닌 편입니다.

장유샤가 왜 숙청됐는지는 이 그림 안에서도 답이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부패인지 권력 다툼인지 침공에 신중하라는 목소리 때문인지 반역 의혹 때문인지 지금 공개된 자료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본문은 그 원인을 판단 보류로 둡니다. 우리가 지켜볼 것은 달력의 한 칸이 아니고 능력의 완성 그 자체이고 그 능력 뒤에 남은 텅 빈 사령탑과 장갑 없는 배라는 빈틈입니다. 능력이 차오르면 침공의 문턱은 낮아집니다. 그러니 대만의 비대칭 무기 도입과 동맹의 대비는 날짜와 무관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이어지는 케이블 절단과 방공식별구역 침범 가짜 뉴스 같은 점진적 압박의 무게를 놓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쥐는 일이 이 장이 남기는 물음입니다.

군민융합과 민참군은 같은 말처럼 쓰이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군민융합은 사회의 몸을 군사 동원에 맞추는 일입니다. 항구 선박 연료 통신망 기업 인력까지 평시와 전시의 경계를 흐리며 묶습니다. 민참군은 민간의 기술을 군 무기와 지휘 체계 안으로 빨리 들이는 일입니다. 하나는

넓은 몸통이고 다른 하나는 빠른 통로입니다. 둘이 합쳐질 때 중국군의 전쟁 준비는 무기 공장 밖으로 넓어집니다.

이 차이를 대만해협에 놓으면 또렷합니다. 상업용 로로선과 민간 상륙정은 군민융합의 장면입니다. 평시에는 화물을 나르는 배가 전시에는 전차와 병력을 실어 나릅니다. 딥시크 계열 인공지능 모델과 드론 소프트웨어와 위성 자료 처리 기술은 민참군의 장면입니다. 민간 시장에서 빨리 태어난 기술을 군이 가져와 결심 속도를 높이려 합니다. 중국은 거대한 사회 동원과 빠른 기술 흡수를 동시에 노립니다. 이 조합은 위험합니다. 병참과 알고리즘이 한 방향으로 묶이면 전쟁 준비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에도 빈틈은 있습니다. 민간 선박은 전차를 실을 수 있어도 군함처럼 맞고 버티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민간 인공지능은 빠르게 답을 낼 수 있어도 전장의 혼란 속에서 오판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통제도 계속 목을 조릅니다. 기술을 빨리 가져오는 길이 열린다고 해서 모든 병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편입니다. 중국의 강점은 국가가 사회를 통째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약점도 그곳에서 나옵니다. 위에서 밀어붙인 숫자가 현장의 진짜 실력인지 검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7년이라는 시한은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능력을 만들라는 정치 일정이지 그 능력이 완성되었다는 증명서는 아닌 편입니다.

제 3 부

전쟁 준비의 실제: 분쟁 현장

9장 대만해협: 회색지대에서 전면전 시나리오까지

타이완 공군사령부 누리집에는 거의 매일 같은 형식의 공지가 하나씩 올라옵니다. 2026년 7월 2일 7월 3일 7월 8일 7월 9일. 제목은 늘 비슷합니다. 대만 주변 해역과 공역의 인민해방군 활동. 그 아래 어제 하루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중국 군용기가 몇 대였고 함정이 몇 척 지나갔으며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은 항적이 얼마였는지가 표로 붙습니다. 7월 8일에는 여기에 한 줄이 더 붙었습니다. 합동전투대비순찰(joint combat readiness patrol)이 관측되었다는 국방부 보도자료였습니다.

이 공지가 무서운 이유는 내용이 자극적이어서가 아닌 편입니다. 반대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매일 반복되어서 무섭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통 폭발과 사이렌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대만해협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그런 모습이 아닌 편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거의 같고 그 거의 같은 하루가 몇 년째 조금씩 무거워지는 방식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 무거워지는 하루를 숫자로 따라가 봅니다. 그다음 전문가들이 그려 둔 봉쇄 미사일 상륙 정보전 네 가지 시나리오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그 시나리오들이 실제로 어디까지 갈지를 좌우하는 세 변수 곧 반도체와 대만 내부 여론 그리고 동맹의 계산을 짚겠습니다. 중국이 언제 공격한다는 날짜는 이 자료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압박의 강도와 그 압박이 남기는 흔적은 자료가 꽤 촘촘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숫자입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2025년 대만 관련 보고서를 보면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횟수는 2019년 스무 번 남짓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2024년에는 3075회로 늘었습니다. 다섯 해 만에 백오십 배가 넘습니다. 양안 사이 사실상의 경계선인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선 항적은 더 극적입니다. 2020년에는 스물두 번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1472번이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도 같은 흐름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 줍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몇 대 오가던 초계 항공기가 이제는 날마다 열 대에서 스무 대 수준으로 돌고 함정 활동도 상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중국군 동부전구 해·공군이 한 달에 세 번 넘게 급유기와 무인기까지 붙여 넓은 구역에서 장시간 합동 전투 초계를 벌이기 시작했다고 이 보고서는 적습니다.

압박은 대만 본섬 둘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대만 국방부의 2025년 국방보고서는 활동 반경이 역내 전체로 뻗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중국 해경선이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댜오위타이 곧 센카쿠 열도 주변을 끈질기게 돌았고 중국 공군의 Y-9 전자전기가 나가사키 앞 단조 군도 상공까지 들어왔습니다. 항공모함 랴오닝함은 요나구니섬과 이리오모테섬 사이를 지나 오키노토리 암초 남서쪽에서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대만 하나만 조이는 그림이 아니고 일본과 태평양 쪽 길목까지 함께 흔드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겹칩니다. 여론전과 심리전 법률전을 묶은 이른바 세 가지 싸움입니다. 대만 정부망은 2024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240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압박은 화면 밖 바다 밑까지 내려갑니다. 대만은 바깥 세상과 주고받는 인터넷 트래픽의 99% 넘는 뚝을 24개의 해저 케이블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 선이 끊기면 하루 55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타격이 난다고 미중경제안보검토위 보고서는 추산합니다. 중국은 상선으로 위장한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써서 이 선을 건드립니다. 2025년 1월 3일에는 카메룬 선적으로 위장한 선박이 지룽항 부근 케이블을 손상시켰고 같은 해 2월 25일에는 토고 선적의 중국 소유 화물선 홍타이 58호가 닻을 끌며 대만 본섬과 마주 평후를 잇는 제3해저 통신 케이블을 끊은 혐의로 대만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총소리 한 번 없이 상대의 신경망을 건드리는 방식입니다.

일상의 압박이 서서히 조이는 손이라면 정례화된 대규모 합동훈련은 언제나 그 손에 힘을 줄 수 있다는 과시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는 이 훈련들의 성격이 해가 바뀔수록 실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2024년 5월 라이칭더 총통 취임에 맞춰 벌어진 '합동의 검 2024A'는 예전의 상륙 위주에서 벗어나 타격을 앞세우고 상륙을 보조로 두는 형태였습니다. 대만을 일본 같은 바깥 세력에서 떼어 내 고립시키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의 '합동의 검 2024B'는 타이베이 지룽 화롄 타이난 가오슝 타이중 여섯 도시를 마주 보는 구역에서 항만 봉쇄와 타격을 함께 걸었고 랴오닝 항모 편대가 대만 동쪽에 배치되어 괌이나 필리핀 루손 방향에서 올 미군을 막는 반접근·지역거부 훈련을 했습니다. 2025년 3월과 4월의 '해협천둥 2025A'에서는 상륙 비중이 더 줄고 에너지 시설과 주요 항구를 겨누는 모의 정밀 타격과 고강도 봉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해 12월의 '정의 사명 2025'는 2022년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 뒤 일곱 번째로 벌인 대규모 훈련으로 대만이 그은 영해 기준선과 12해리 선에 바짝 붙었고 야간 공습을 통한 지도부 참수 개념이 타격 훈련의 무게중심으로 떠올랐다고 이 보고서는 적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도발로 볼 만한 사건이 터진 뒤 훈련이 시작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합동의 검 2024A'는 취임식 사흘 만에 '2024B'는 나흘 만에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해협천둥 2025A'는 3월 13일 사건이 있고 나서 훈련 개시가 4월 1일이었습니다. 열아흐레가 걸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최고위 군 수뇌부 숙청이 있었고 그로 인한 지휘 공백이 작전 기획과 전개 속도를 늦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것은 추정입니다. 숙청이 부패 때문인지 권력 다툼 때문인지 아니면 전쟁 준비를 둘러싼 이견 때문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가릴 수 없고 지휘 공백과 훈련 지연 사이의 인과도 정황일 뿐입니다. 본문은 그 판단을 보류합니다.

미국과 대만의 군 당국자들이 되풀이해 경고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중국군이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병력을 미리 깔아 둔 뒤 몇 시간 만에 해상 봉쇄로 넘어갈 수 있고 실제 공격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전환 시간이 극히 짧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과 실전 사이의 벽이 얇다는 뜻입니다. 대만이 방어 전략을 뜯어고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 연례훈련인 한광 훈련은 2025년 41호에서 크게 손을 봤습니다. 워게임 기간을 2주로 늘렸고 실기동 실탄 훈련을 닷새에서 열흘로 두 배 늘렸습니다. 각본대로 움직이던 방식을 걷어 내고 중국이 훈련 도중 예고 없이 공격으로 돌아서는 상황을 상정한 불시 대응을 집어넣었습니다. 미국에서 새로 들어온 M1A2T 에이브럼스 전차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하푼 대함미사일이 이 훈련에 처음으로 통째로 붙었습니다. 대만 국방보고서는 이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군만의 훈련을 넘어 민·관·군이 함께 움직이는 도시 회복력 연습을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타이베이 신주 타이중 화롄 같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벌였습니다. 도시 기반시설의 70%가 부서진 극단 상황을 가정하고 지휘통제소를 세우고 방공호로 대피하고 야전병원을 열고 구호물자를 나누는 연습입니다. 싸움을 군인만의 일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그려 둔 시나리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부터는 구체적 수치가 여러 자료에 걸쳐 있어 이 장에 배정된 자료만으로 뜻을 박기 어려운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교차 확인이 필요한 자료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봉쇄부터 봅시다. 봉쇄는 상륙 이전에 대만을 물리적 경제적으로 가둬 항복을 받아내거나 상륙 환경을 만드는 작전입니다. 앞서 본 '합동의 검 2024B' '해협천둥 2025A' '정의 사명 2025'가 모두 봉쇄의 예행연습 성격을 띠니다. 봉쇄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대만의 약한 고리에 있습니다. 관련 분석에 따르면 대만은 자체 식량으로 여섯 달을 버틸 수 있지만 천연가스 재고는 두세 주면 바닥납니다. 가스가 끊기면 석탄과 석유도 뒤따라 마르고 개전 3주 차부터 경제와 방위산업 민간 기반시설이 함께 멈추는 대정전으로 갑니다. 이 에너지 수치는 이 장의 배정 자료가 아닌 교차 인용 자료에 기댄 값이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봉쇄가 대만의 급소를 겨누는다는 큰 그림은 여러 자료가 함께 가리킵니다. 중국이 노리는 그림은 대만 국민이 정전과 마비의 고통을 견디다 스스로 손을 드는 이른바 피 없는 항복입니다.

봉쇄로 항복이 오지 않거나 미국이 끼어들면 그림은 미사일 타격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핵심은 물량과 지속력입니다. 개전 초 중국 로켓군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수백 발로 대만의 레이더와 패트리엇 포대를 먼저 부수고 장거리 자산으로 괌과 오키나와의 미군 전진기지를 때려 증원을 막는다는 것이 시나리오의 뼈대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개전 첫날의 타격력이 아니고 오래 버티는 힘이라고 자료들은 입을 모읍니다. 미국과 대만은 개전

첫 주에 장거리 대함·공대지 미사일을 수천 발 단위로 쏟아부어야 하는데 태평양 8000마일 밖에서 값비싼 정밀무기를 제때 채우지 못하면 중국보다 먼저 작전 한계점에 닿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 물량과 재고 소진 수치 역시 이 장 배정 자료 밖의 워게임 자료에서 온 값이라 그대로 사실로 굳히기보다 교차 확인 대상으로 둡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대만해협의 싸움은 탄약고가 먼저 비는 쪽이 진다는 것입니다.

상륙은 모든 시나리오 중 복잡하고 중국에도 큰 피를 요구합니다. 미국이 방어에 끼어드는 기본 시나리오의 워게임에서는 중국이 해변에 병력 일부만 올려놓은 채 큰 손실을 내고 후속 보급이 끊겨 상륙 부대가 항복하는 결말이 반복됩니다. 정규 상륙함이 모자란 인민해방군은 이를 민간 상륙정 동원으로 메우려 합니다. 한 조선소에서만 팔십 척 넘는 민간 상륙정이 위성에 잡혔고 이 민간 플랫폼이 나르는 수송량이 정규 상륙함 전체의 여섯 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상업용 선박과 선원을 대거 징발해 수송 규모를 부풀린 셈인데 이것이 오히려 전시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장갑도 없고 훈련도 안 된 민간 선단은 미국이 준비하는 대규모 자율 무인기 방어망 앞에서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수송선이 가라앉으면 대체가 어려워 병참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상륙 수치들도 교차 인용 자료에 기댄 값이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네 번째가 정보전과 인지전입니다. 이 싸움은 총탄보다 앞서거나 나란히 옵니다. 물리적으로는 앞서 본 해저 케이블 절단이 지휘망을 끊고 소프트웨어로는 하루 240만 건의 사이버 공격과 인공지능 딥페이크가 사람들의 판단을 혼듭니다. 대만을 겨누는 인지전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미국은 결국 대만을 버릴 것이라는 이야기 이른바 미국 의구심입니다. 상륙 뒤를 겨누는 대목도 있습니다. 2024년 4월 신설된 중국군 정보지원부대가 대만의 부서진 통신망을 중국식으로 장악하고 거대한 정보 방화벽을 세워 바깥 세계와의 연결을 끊는다는 구상입니다. 점령이 끝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식을 다시 짜는 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정보전의 노림수는 하드웨어 마비와 심리 붕괴를 함께 걸어 대만 사람들이 구원이 오지 않으리라 지레 믿고 저항 의지를 놓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그림이라면 그 그림이 실제로 어디까지 그려질지는 세 변수가 정합니다. 반도체 대만 내부 여론 동맹입니다.

반도체부터입니다. 대만의 TSMC는 2024년 10월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었고 대만 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38%를 차지합니다. 2024년 매출은 883억 달러로 대만 국내총생산의 11.1%에 해당합니다. 세계 최고급 첨단 칩의 대부분을 이 섬에서 만든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실리콘 방패라고 부릅니다. 반도체가 중요하니 미국이 대만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실이 정반대 계산도 낡습니다. TSMC가 미국 애리조나로 대규모 투자를 옮기면서 대만 안에서는 핵심 산업이 빠져나가 섬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함께 자랍니다. 중국은 여기에 대고 대만 반도체가 곧 미국 반도체가 될 것이라는 선전을 겁니다. 같은 방패가 누구에게는 인질이고 누구에게는 자충수로 보이는 다층적인 변수입니다. 애리조나 투자 규모와 향후 점유율 전망 같은 세부 수치는 교차 인용 자료에 기댄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변수인 여론은 대만 내부의 갈라진 틈입니다. 2024년 1월 선거 뒤 라이칭더 총통의 민진당이 행정부를 국민당과 민중당이 입법원을 쥔 분점정부가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야당이 장악한 입법원은 라이 행정부의 국방예산에서 약 2억 8천만 달러 1.3%를 깎고 추가로 30억 달러 14%를 묶어 버렸습니다. 2025년 7월과 8월 야당 의원을 끌어내리려던 여러 건의 소환 투표가 모두 실패하면서 2028년까지 국방정책의 교착이 사실상 굳어졌다고 미중경제안보검토위 보고서는 적습니다. 자기 방어 예산조차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론조사가 보여 주는 속살은 더 아픕니다. 여당 지지층은 미국을 믿을 만한 나라로 보는 반면 야당 지지층에서 미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훨씬 적고 이들은 오히려 미국산 무기 구매가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고 봅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응답도 전체와 청년층 사이에 큰 골이 있습니다. 여론 조사 수치의 일부는 이 장 배정 자료 밖 대담 자료에서 온 값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여론 변수는 중국의 계산을 값비싼 전면전에서 심리전과 봉쇄를 통한 항복 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대만 의회가 스스로 무기 구매를 묶고 청년들이 전투를 주저하게 되면 굳이 상륙정을 침몰시키며 싸울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수인 동맹은 지속력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미국이 대만을 지키더라도 개전 초 인명과 무기 손실이 크고 태평양 너머에서 이를 오래 버티려면 한국 일본 호주 같은 동맹의 병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선택은 그 가운데서도 무게가 다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앞세우며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처지라 대만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모호한 자세를 지킨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빠지거나 한국군이 직접 교전에 끼어들 경우 중국의 보복이나 북한의 개입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꼽는 한국의 역할은 손상된 미군 함정과 항공기 수리 탄약 판매 비전투원 후송 같은 후방 지원입니다. 이 동맹 관련 수치와 대담 내용은 이 장 배정 자료 밖 자료가 상당수라 본문은 한반도 파급의 방향만 적고 구체적 작전은 근거 보강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겨 둡니다.

세 변수를 겹쳐 놓으면 대만해협의 계산이 보입니다. 대만은 반도체라는 큰 카드를 쥐고 미국을 묶어 두려 하지만 내부 대립 탓에 자기 국방예산도 제때 못 세우는 마비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의 병참 없이는 수천 마일 밖에서 장기전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무인 전력 쪽으로 무게를 옮깁니다. 중국은 값비싼 미사일로 반도체 공장을 잣더미로 만들고 미국과 정면충돌하는 길보다 케이블을 끊고 인지전으로 대만 내부의 미국 의구심을 키워 스스로 백기를 들게 하는 저비용의 길을 더 매력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위협을 낮춰 보지 않되 일정표로 못 박지도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방공식별구역 침범이 다섯 해 만에 백오십 배로 늘었다는 사실 훈련과 실전 사이의 전환 시간이 몇 시간으로 줄었다는 경고 케이블 절단으로 이미 회색지대의 손이 바다 밑까지 내려왔다는 기록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동시에 봉쇄와 상륙 미사일 소모전의 구체적 수치 상당수는 교차 확인이 필요한 워게임과 대담 자료에서 왔고 숙청과 훈련 지연의 인과는 정황이며 세 변수의 상호작용은 확정된 결과가 아니고 계산의 방향입니다. 대만 공군사령부의 그 매일 아침 공지가 알려 주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사건이 아니고 이미 여러 해 진행 중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사건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이 자료를 제대로 읽는 첫 문턱입니다.

숫자 하나가 나머지를 다 끌고 갑니다.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은 중국군 항적은 2020년 스물두 번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1472번.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이 변화를 백분율로 눌러 적었습니다. 6591퍼센트. 앞 장의 초안이 두 해의 원숫자만 보여 줬다면 위원회가 굳이 백분율까지 병기한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스물둘에서 천사백이 넘는 수로 가는 곡선은 우상향이라는 말로는 담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이 무뎌질 만큼 반복되는 침범을 위원회는 한 줄의 퍼센트로 다시 낮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사일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앞 초안은 개전 초 로켓군이 미사일 수백 발을 쏜다고만 적었습니다. 자료의 셈은 더 큼니다. 일본 방위연구소 자료와 워게임 보고서는 중국군이 사거리 300킬로미터가 넘는 지상 발사 미사일을 3000기 넘게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개전 첫날 로켓군은 DF-11과 DF-15 단거리 탄도미사일 CJ-10과 YJ-63 지상 공격 순항미사일을 앞세워 대만의 레이더와 패트리엇 포대를 먼저 부숩니다. 같은 시각 DF-17과 CJ-20 같은 장거리 자산은 괌과 오키나와의 미군 전진기지를 때려 증원을 늦춥니다. 첫날의 불벼락은 그림의 절반입니다. 진짜 승부는 재고에서 갈립니다.

미국과 대만이 겪을 문제는 탄약고입니다. 워게임 추정치는 미군이 중국 함대를 막으려면 개전 첫 주에만 장거리 대함미사일 LRASM을 450발에서 1000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JASSM-ER을 3500발에서 4000발 쏟아부어야 한다고 계산합니다. 문제는 공간이 이미 비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대담 자료는 미군이 이란과의 충돌로 사드 요격미사일 재고의 4분의

1 넘게 이미 써 버렸고 중국과의 고강도 분쟁이 나면 핵심 정밀타격과 방어 탄약 서른 종 남짓이 한 달 조금 넘어 바닥난다고 경고합니다. 반대편의 중국은 360일이 넘는 군수 지원을 버틸 산업 기반을 갖췄다고 같은 자료는 봅니다. 태평양 8000마일 밖에서 값비싼 정밀무기를 제때 못 채우면 대만해협의 싸움은 탄약고가 먼저 비는 쪽이 무릎을 꿇습니다.

상륙 시나리오의 워게임 결말은 숫자로 볼 때 더 또렷합니다. 미국이 방어에 끼어드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돌린 도상연습은 중국의 실패로 끝납니다. 인민해방군은 해변에 3만 7천 명만 올려놓은 채 7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항공기 155대와 함정 138척을 잃습니다. 후속 보급이 끊긴 상륙 부대는 항복합니다. 미국도 값을 치릅니다. 같은 워게임에서 미군은 첫 주에 항공모함 두 척을 잃고 사상자 1만 명을 냅니다. 이겨도 피투성이가 되는 싸움. 이 숫자들이 양쪽 지휘부를 신중하게 만드는 배경입니다.

정규 상륙함이 모자란 인민해방군이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우려하는지도 초안보다 더 들여다볼 대목이 있습니다. 앞에서 민간 상륙정 여든 척과 여섯 배 수송량은 짚었습니다. 자료에는 두 가지 장면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수이치아오급 상륙 바지선이라 불리는 부유식 부두입니다. 항구가 부서져도 병력과 장비를 바닷가에 곧장 부리려는 장치입니다. 다른 하나는 낡은 J-6 전투기 300대가량을 무인기로 뜯어고쳐 만든 총알받이 드론 무리입니다. 이들은 대만의 천궁 미사일 같은 방공망을 향해 먼저 날아들어 요격탄을 헛되이 쏘게 만드는 미끼입니다. 미국이 준비하는 대응은 수만 대의 자율 무인기를 바다에 깔아 두는 레플리케이터 구상 별명으로 무인 지옥도입니다. 값싼 미끼 드론과 값싼 방어 드론이 해협 위에서 맞붙는 그림입니다.

바다 밑 이야기도 초안이 케이블 절단 사건까지만 갔습니다. 자료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중국은 수심 1만 3천 피트 약 4천 미터의 심해에 깔린 장갑 케이블까지 끊을 수 있는 전기 절단 장치를 이미 만들었다고 합니다. 얇은 바다에서 닻을 끄는 우연한 사고처럼 보이는 손짓 뒤에 심해까지 겨누는 도구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소프트웨어 쪽 압박도 사례가 구체적입니다. 2025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국경에서 충돌했을 때 중국은 자국 J-35 전투기가 프랑스제 라팔을 격추했다는 거짓 주장을 퍼뜨리려고 가짜 계정과 인공지능이 만든 라팔 잔해 사진을 대량으로 풀었습니다. 대만을 겨누는 인지전의 규모는 2025년 대만 국가안전국 집계로 드러납니다. 대만을 노린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 4만 5천 개 인공지능으로 부풀린 허위정보 230만 건이 한 해에 걸러졌습니다.

세 변수 쪽에도 초안이 비워 둔 숫자가 많습니다. 반도체부터 봅니다. 대만이 세계 최고급 첨단 칩의 92퍼센트를 만든다는 값이 실리콘 방패라는 말의 뿌리입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 등에 투자를 165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밝혔고 2024년 10월에는 애리조나 초기 생산

수율이 대만 같은 급 공장보다 4퍼센트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이 실제로 태평양을 건너간다는 신호입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이런 재편이 이어지면 2032년까지 대만과 한국을 합친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56퍼센트로 내려가고 미국이 28퍼센트로 올라선다고 추산합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 흐름에 대고 대만 반도체가 곧 미국 반도체가 된다는 선전을 겁니다. 같은 92퍼센트가 미국을 붙잡는 인질도 되고 섬의 값을 스스로 깎는 자충수도 되는 구조. 두 계산이 대만 안에서 부딪칩니다.

여론 변수의 속살도 수치로 채워야 합니다. 앞 초안은 청년층이 주저한다고만 적었습니다. 한 대담 자료의 조사는 대만 전체 인구의 약 67퍼센트가 중국 침공 시 싸우겠다고 답한 반면 정작 전장에 나갈 20대와 30대에서는 31퍼센트만 끝까지 싸우겠다고 답했다고 전합니다. 예산 대립도 구체적입니다. 라이칭더 행정부가 미는 비대칭 전력 특별 국방예산이 약 400억 달러인데 야당 국민당은 120억 달러 수준의 자체 안을 맞세우며 팽팽히 버팁니다. 자기 방어 예산의 규모를 두고 여야가 세 배 넘게 벌어져 있는 상태. 여기에 미국이 대만에 팔기로 한 무기의 적체가 2025년 12월 기준 320억 달러에 이르지만 실제 넘어온 것은 44억 달러에 그친다는 자료가 겹칩니다. 사겠다는 쪽과 팔겠다는 쪽의 셈이 다 어긋나 있습니다.

동맹 변수에는 초안에 없던 두 조각을 더합니다. 한미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11억 9천만 달러로 정해 동맹의 끈을 이어 갑니다. 호주 국방장관은 대만 분쟁이 나면 미국 편에 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자리는 그 가운데서도 무겁습니다. 자료는 이재명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앞세우며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처지라 대만 문제에서 의도된 모호함을 지킨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꼽는 한국의 뭇은 손상된 미군 함정과 항공기 수리 탄약 판매 비전투원 후송 같은 후방 지원입니다. 본문은 한반도로 튀는 파급의 방향만 적고 한국군의 구체적 작전은 근거 보강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겨 둡니다.

이 모든 조각을 꿰는 분석의 틀도 자료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의 일상적 압박을 아나콘다 전략이라 부릅니다. 대만 공군과 해군의 요격기를 날마다 띄우게 만들어 장비 수명과 병력의 체력을 갉아먹는 조르기입니다. 이들이 그리는 두 갈래 결말도 이름이 있습니다. 총 한 번 쏘지 않고 대만 지도부의 항복을 받아내는 저비용의 길을 베이핑 모델 극단적 무력 침공으로 가는 길을 텐진 모델이라 부릅니다. 위게임과 대담을 종합한 여러 분석은 중국이 값비싼 미사일로 반도체 공장을 잣더미로 만들고 미국과 정면충돌하는 길보다 케이블을 끊고 인지전으로 미국 의구심을 키워 대만이 스스로 백기를 들게 하는 베이핑 모델을 더 매력적으로 본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것은 중국의 확정된 선택이 아니고 분석가들이 읽어

낸 계산의 방향입니다.

훈련이 잠시 느려진 대목의 인과에 대해서는 한 문장으로 뜻을 박습니다. 숙청 원인과 훈련 지연의 직접 인과는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손에 쥐고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숫자 몇 개입니다. 중간선 침범은 4년 만에 6591퍼센트 늘었습니다. 대만의 천연가스 재고는 봉쇄가 시작되면 두세 주면 바닥납니다. 첫 주의 미사일 소모는 수천 발 단위이고 그 공간은 한쪽이 먼저 빡니다. 워게임 속 상륙 부대는 3만 7천 명 규모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속 대만 청년의 전투 의지는 31퍼센트입니다.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날짜가 박힌 침공 예고가 아니라 이미 여러 해 진행 중인 압박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어느 아침의 사건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대만해협을 제대로 읽는 첫 문턱입니다.

10장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역 확장

2024년 어느 날 필리핀 해군의 작은 보급선 한 척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암초에는 필리핀이 일부러 좌초시켜 둔 낡은 상륙함 한 척이 있고 그 안에 소수의 해병이 버티고 있습니다. 보급선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가져다주는 배였습니다. 하지만 배가 다가가자 물대포가 갑판을 때렸습니다. 앞을 가로막던 배가 뱃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넘어왔습니다. 손에 칼 같은 날붙이를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과 미국 의회 자료가 기록한 이 장면에서 필리핀 배를 덮친 것은 회색으로 칠한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흰색 선체의 중국 해경선이었고 그 곁에는 어선처럼 보이는 배들이 떠 있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에 이번 장의 이야기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바다를 넓혀 가는 방식은 정규 해군의 함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선처럼 보이는 배가 앞서고 법을 집행한다는 해경이 그 뒤를 받치고 진짜 군함은 수평선 너머에 조용히 떠 있습니다. 상대가 견디다 못해 자기 해군을 부르는 순간 그 군함이 나서겠다는 신호만 보내면 됩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상대의 손발을 묶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왔는지를 실제 사례를 따라가며 풀어 봅니다.

판정 10년 종이 위의 승리와 바다 위의 현실

이야기의 배경에는 한 장의 판결문이 있습니다.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이른바 9단선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필리핀이 제기한 사건이었고 국제법의 언어로는 필리핀의 손을 들어 준 구조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6년 그 바다의 실제 질서는 판결문과 정반대 방향으로 굳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펴낸 남중국해 활동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처음에는 인공섬 건설이 방어 목적일 뿐이라며 군사화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최근에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주권 안에서 필요한 군사 방어를 위해 섬과 암초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넓혔다고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부인에서 인정으로 태도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 인정의 실체는 콘크리트와 활주로였습니다. 스프래틀리 군도의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 수비 암초 미스치프 암초는 거대한 군사 기지로 바뀌었습니다. 대형 군용기가 뜨고 내리는 3천 미터급 활주로는 깔렸고 격납고와 근접방어무기 대공포가 들어섰습니다. 2016년 4월 J-11B 전투기가 처음 배치된 뒤로 무장의 무게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2018년에는 수비 암초에서 Y-8 수송기가 포착됐고 2025년 5월에는 핵심 타격 자산인 H-6 폭격기와 KJ-500 조기경보기 Y-20 대형 수송기까지 전진 배치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배를 대고 기름을 넣고 정비까지 할 수

있는 항만도 함께 지어졌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을 여러 척 박아 둔 구조입니다. 이때부터 중국 해군과 해경은 남중국해 어디로든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앞마당을 얻었습니다.

기지가 완성되자 바다에서의 압박은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존재를 과시하는 수준을 넘어 폭력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위원회의 연례 보고서와 여러 분석 자료를 모아 보면 스카버러 암초 세컨드 토마스 암초 사비나 암초 티투 섬 일대에서 중국 해경과 해상민병대는 필리핀 배를 향해 상시로 물대포를 쏘고 뱃머리를 들이받습니다. 앞서 본 칼부림은 그 폭력이 어디까지 갔는지 보여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필리핀 함정과 오스트레일리아 정찰기를 향해 음향 무기와 레이저를 쏜 사례도 기록됐습니다. 2026년 4월에는 스카버러 암초 등지에서 중국이 어민의 접근을 막으려고 시안화물 곧 청산가리를 뿌려 바다 생태계를 망가뜨렸다는 고발까지 나왔습니다. 이 시안화물 건은 아직 고발 단계의 혐의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폭력을 쓰면서도 겉으로는 그 수역을 자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외교적 포장을 함께 씁니다. 한쪽에서는 물대포를 쏘고 다른 쪽에서는 환경을 지킨다고 말하는 이중의 얼굴입니다.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폭력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6G 기술에 기반한 전자전 체계를 만들었다고 밝혔고 2025년 7월에는 남중국해에서 알래스카와 괌에 이르는 미군의 통신망을 탐지하고 눌러 버릴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전자전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자산을 바탕으로 남중국해 일대에 전자기 킬존 곧 전파로 상대의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구역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2026년 5월경 파라셀 군도 인근을 항해하던 네덜란드 해군 군함이 중국 해군의 강한 전자전 공격을 받고 그 수역에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바다 밑도 예외가 아닌 편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곳곳에 수중 센서망을 깔아 바닷속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해역 깊은 곳에서 중국 수중 드론이 잇따라 나포되고 발견되는 일은 미 해군 핵잠수함의 길목을 미리 파악하려는 해저 지도 작업의 흔적으로 읽힙니다.

폭력과 전파 위에 한 겹이 더 얹혔습니다. 법이었습니다. 2024년 5월 중국은 해경기관 행정법 집행 절차 규정 이른바 해경 3호 규정을 발효시켰습니다. 이 규정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관할이라 주장하는 바다에서 중국 해경이 외국 선박을 붙잡아 두고 외국인을 체포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16년 판정이 근거 없다고 못 박은 9단선 안쪽 바다를 중국은 자기 나라 국내법이 적용되는 공간으로 억지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물대포와 칼과 레이저를 합법적 법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덮는 장치입니다. 국제법이 부정한 선을 국내법으로 되살리는 방식입니다.

미국과 동맹은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최고위 관계자들은 중국의 불법적인 점거와 물대포 선박 충돌 불법 승선을 강한 말로 규탄하고 트리튼 섬 같은 곳에서 12해리 안쪽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이어 갑니다. 훈련의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미국과 필리핀이 벌인 발리카탄 연습은 여러 영역의 능력을 묶어 중국의 해상 접근을 물리적으로 깨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6년 5월 발리카탄 기간에 미군은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 루손 해협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대함 타격용 드론을 쏘고 필리핀 영토 안에 대함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중국 함대를 바로 바다에 가라앉힐 수 있는 사슬을 눈앞에서 보여 준 것입니다. 남중국해는 이제 한쪽만 밀어붙이는 바다가 아니고 밀고 미는 힘이 맞부딪히는 바다가 됐습니다.

동쪽 바다로 센카쿠에서 벌어지는 일

같은 방식이 동중국해에서도 돌아갑니다. 무대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다투는 센카쿠 열도 중국이 댜오위타이라 부르는 섬입니다. 일본 방위성과 미국 의회 자료를 보면 이곳에서 중국은 군함 대신 흰색 선체의 해경선을 앞세워 일본의 행정력을 무력하게 만들려 합니다. 숫자가 그 압박의 크기를 말해 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1351척의 중국 정부 선박이 센카쿠 인근 접속수역에 들어왔습니다. 그 배들이 머문 날은 355일에 이릅니다. 1년 366일 가운데 열하루를 뺀 거의 모든 날 중국 배가 그 바다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일본 영해 안으로 직접 들어온 날도 42일이었고 이는 그 전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2025년 3월에는 중국 해경선 네 척이 일본 영해를 넘은 데 이어 해경선에서 헬리콥터가 떠올라 센카쿠 주변 일본 영공을 처음으로 침범했습니다. 흰 배가 채우던 압박이 하늘로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바다와 하늘에서 정보를 긁어모으는 활동도 대담해졌습니다. 2024년 8월에는 중국군의 Y-9 정보수집기가 나가사키현 단조 군도 상공의 일본 영공을 넘었습니다. 오키나와현 하테루마섬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는 군사 정보 수집용으로 추정되는 중국 부표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동다오급 정보수집함은 여러 해에 걸쳐 센카쿠 남쪽 접속수역 바깥을 오가며 전파와 통신을 긁어 왔습니다. 바닷속을 재는 작업도 꾸준히 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중국 해군의 슈팡급 측량선이 야쿠시마와 그 주변 섬들 근처를 열 차례 넘게 항해하며 해저 지형과 수중 자료를 모았습니다. 2020년 6월과 2021년 9월에는 중국 해군으로 추정되는 잠수함이 아마미 오시마 주변 접속수역을 물속에 잠긴 채 지나갔습니다. 언젠가 싸움이 벌어질 바다를 미리 손금 보듯 익혀 두는 작업입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의 좁은 물길 미야코 해협입니다. 중국 해군과 공군에게 이곳은 서태평양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2024년 10월 합동의 검 2024B 훈련 2025년 4월 해협천동 2025A 훈련처럼 대만을 둘러싸는 대규모 연습 때마다 중국 해공군은 이 해협을 관통하며 힘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무인기의 통행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부터 TB-001 BZK-005 WZ-7 같은 오래 떠 있는 고고도 무인기들이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나 태평양으로 나갔고 2023년부터는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지마와 대만 사이의 하늘을 정기적으로 오가며 두 영토 사이의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작전 반경 자체가 극적으로 넓어졌습니다. 예전의 중국 해군은 가까운 바다를 지키는 데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항공모함을 앞세워 일본 열도 동쪽 태평양 깊숙한 곳까지 나갑니다. 랴오닝함은 2016년 이후 일본 주변을 거쳐 태평양으로 나간 사례가 최소 열세 차례 확인됐습니다. 대만 국방 보고서에 따르면 랴오닝함은 요나구니섬과 이리오모테섬 사이를 처음으로 통과했고 일본 최남단 오키노토리 암초 남서쪽 바다에서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이오토 곧 유창도 동쪽 바다에서 항공모함 활동이 처음 확인돼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뒤쪽을 위협했습니다. 산둥함도 2023년 이후 아홉 차례 태평양으로 나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확장의 절정으로 중국이 태평양 방면에서 랴오닝함과 산둥함 두 척을 동시에 굴린 장면을 꼽습니다. 최신예 055형 구축함을 포함한 전투함들도 소야 쓰가루 오스미 해협을 돌며 일본 열도를 한 바퀴 에워쌌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미국 의회조사국과 일본 방위성 자료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합동 작전을 상시로 벌입니다. 2019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두 나라의 핵 탑재 가능 폭격기가 참여하는 장거리 연합 비행이 열 차례 넘게 있었고 그 경로는 동해를 거쳐 일본 시코쿠 앞바다까지 늘어났습니다. 2021년 10월 첫 연합 해상 항해로 두 나라 해군은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두 나라 잠수함이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처음으로 연합 순찰을 해냈습니다. 물 위와 하늘에서 벌이던 짝짓기가 물속으로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세 겹의 손 어선과 해경과 군함

이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필리핀 배를 덮친 것이 왜 군함이 아니고 어선과 해경이었는지 그 이유가 이 장의 핵심입니다. 분석가들은 이 방식을 양배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목표로 삼은 바다를 양배추 잎처럼 겹겹이 에워싸는 방식입니다. 안쪽에는 어선이나

상선으로 위장한 해상민병대가 섭니다. 겉으로는 민간이니 상대가 함부로 총을 겨누기 어렵습니다. 이들이 목표 수역을 몸으로 채우고 상대 배의 길을 막습니다. 그 바깥에는 중국 해경이 법 집행이라는 명분을 들고 들어와 물대포와 레이저와 흥기로 밀어붙입니다. 바깥 수평선 너머에는 인민해방군 해군의 군함이 조용히 떠 있습니다. 상대국이 참다못해 자기 해군을 부르려는 순간 그 군함이 나서겠다는 위압만으로 상대의 군사적 대응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 세 겹이 사납게 드러난 곳이 남중국해였습니다. 2024년 세컨드 토마스 암초 보급 임무에서 해상민병대 배들이 필리핀 배의 길을 막는 사이 중국 해경이 뱃머리를 들이받고 물대포를 쏘으며 해적처럼 배에 올라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폭력이 가능했던 것은 가까이에 떠 있던 중국 해군 함정의 압도적인 존재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경 3호 규정이 얹혀 이 모든 강압을 합법적 법 집행으로 포장했습니다. 어선과 해경과 군함 그리고 법. 네 겹이 하나의 손처럼 움직입니다.

같은 손이 대만을 향해서는 더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대만은 바깥세상과의 통신 대부분을 스물네 가닥의 해저 케이블에 기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선을 군함으로 끊는 대신 상업용으로 위장한 그림자 함대를 씁니다. 2025년 2월 25일 토고 선적으로 위장한 중국 소유 화물선 흥타이 58호가 대만 해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배회하다가 닻을 끌어 평후와 마주를 잇는 세 번째 해저 케이블을 끊은 혐의로 나포됐습니다. 이런 방식의 케이블 절단은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만 최소 스물일곱 차례 일어났습니다. 닻 하나 끌었을 뿐이라는 그럴듯한 변명 뒤에서 평시든 전시든 대만의 신경망을 조용히 끊는 작업입니다. 대만을 둘러싸는 훈련 때도 이 손발 나눔은 그대로입니다. 해군과 공군이 섬 바깥을 에워싸 미군의 접근을 막는 동안 중국 해경 편대는 타이베이 지룽 가오슝 같은 핵심 항구의 코앞까지 들어가 수출입을 틀어막는 검문과 격리 훈련을 이끕니다.

전쟁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 민간 위장의 손은 병참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대담 기록을 보면 중국 해군은 대규모 상륙에 필요한 정규 전차상륙함과 중형상륙함이 모자랍니다. 그 빈자리를 군민융합 정책이 메웁니다. 분석가들은 상업용 위성 사진으로 중국 남부의 싱 조션소 한 곳에서만 민간 골재 운반선을 개조한 상륙정 여든 척가량을 확인했습니다. 뱃머리의 경사판을 해변에 내려 전차와 트럭을 바로 부릴 수 있는 배들입니다. 이런 얇은 흘수의 상업용 선박은 대략 1800척에 이르고 이들이 나르는 수송량은 정규 상륙함 전체의 여섯 배에 달한다고 봅니다. 이 배를 모는 사람은 민간 선장과 선원이지만 상당수는 해상민병대이거나 전시에 징발될 인원입니다. 정규 해군의 첫 강습

부대가 해변을 때린 직후 이 민간인들이 상륙정과 로로선을 몰고 후속 전차와 물자를 대만 해변에 쏟아붓는 구조입니다.

바다는 넓어졌는데 규범은 좁아졌습니다

이제 사실에서 판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료가 직접 말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의 해석임을 밝혀 둡니다. 2016년 판정은 법의 정의를 세웠는지 모르나 10년이 지난 바다 위 현실 앞에서는 힘을 잃은 규범이 됐습니다. 중국은 판결문을 비웃듯 3천 미터 활주로와 폭격기를 들여놓고 청산가리 살포 혐의와 칼부림 같은 원초적 폭력부터 6G 인공지능 전자전이라는 최첨단 수단까지 함께 써서 남중국해를 자국 통제 수역으로 편입해 왔습니다.

이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은 영유권 다툼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중국해의 요새와 전자기 킬존 동중국해의 항공모함 통로와 무인기 편대는 대만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미군과 동맹의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는 거대한 반접근 지역거부의 그물로 읽힙니다. 요나구니와 이리오모테 사이를 항공모함으로 지나고 미야코 해협에 무인기를 날리고 측량선으로 해저를 재는 일은 그 길목을 미리 익혀 두는 작업입니다. 러시아와의 잦은 동해 연합 비행과 잠수함 순찰은 미국과 한미일의 힘을 한반도와 일본 북쪽으로 흩어 놓아 대만 방어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이때 한반도가 대만 문제와 한 그물로 엮인다는 점만 짚어 두고 그 파급의 구체적 셈법은 근거를 더 모아 따로 다뤄야 할 몫으로 남겨 둡니다.

중국이 왜 이토록 복잡하게 어선과 해경과 군함을 섞어 쓰는지 보면 그 목적은 상대의 대응 매뉴얼을 꼬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대만의 처지에서 자기 바다에 들어온 것이 무장하지 않은 어선이거나 법을 집행한다는 해경이라면 먼저 함포를 쏘는 순간 과잉 방어이자 선제 공격국으로 낙인찍힙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영해와 해저 케이블을 속수무책으로 잠식당합니다. 중국은 맨 뒤에 군함이라는 무언의 위압을 띄워 두고 앞에서는 해경의 물대포와 위장 선박의 알박기를 일상으로 만듦으로써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도 상대의 주권과 의지를 서서히 조여 왔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장의 자료는 대부분 일본 미국 대만의 정부와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협을 정밀하게 기록한 자료인 만큼 중국 쪽의 시각과 반론은 이 안에 거의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 적은 사실들은 그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되 그 일의 옳고 그름을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문서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것은 확인된 것으로 혐의는 혐의로 저의 해석은 해석으로 선을 그어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다는 넓어졌고 그 바다를 규율하던 규범은 좁아졌습니다. 그 사이의 빈 공간에서 지금도 흰 선체의

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다투는 나라가 더 있습니다

필리핀 이야기 곁에 베트남이 서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안보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베트남 어민을 붙잡아 가둡니다. 조업하던 배에서 사람을 끌어내 구금하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베트남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프래틀리 군도 안에서 자국이 점유한 암초의 항만을 넓혔습니다. 중국이 파이어리 크로스과 미스치프를 요새로 바꾸는 사이 베트남도 자기 발판에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한쪽만 밀어붙이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같은 물 위에서 부두를 늘리고 서로의 배를 노려봅니다. 지역의 군비 경쟁과 충돌이 나란히 돌아올랐습니다. 남중국해를 중국과 필리핀 둘만의 문제로 좁혀 읽으면 이 바다에 걸린 나라의 수를 놓치게 됩니다.

중러가 그리는 세 방향의 그림자

동중국해 이야기에서 러시아를 한 겹 더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앞에서는 폭격기 연합 비행과 잠수함 순찰의 사실만 적었습니다. 그 사실들이 지도 위에서 어떤 모양을 그리는지 짚어 두려 합니다. 두 나라의 폭격기는 2019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열 차례 넘게 함께 날았습니다. 핵을 실을 수 있는 H-6N과 Tu-95MS가 섞였고 그 항로는 동해를 지나 일본 시코쿠 앞바다까지 늘어났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두 나라 해군이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동중국해와 필리핀해 일대에서 연합 대잠수함 훈련과 방공 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두 나라 잠수함이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처음으로 나란히 순찰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한 짝짓기가 물 위를 지나 물속으로 내려간 흐름입니다.

분석가들이 이 그림에서 읽는 것은 세 방향의 압박입니다. 북쪽으로는 동해와 일본 북부 동쪽으로는 서태평양 남쪽으로는 남중국해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미일 동맹이 지키려는 그물의 세 귀퉁이를 한꺼번에 흔드는 배치입니다. 한반도가 이 계산에 걸립니다. 러시아와의 잦은 동해 연합 비행과 잠수함 순찰은 미국과 한미일의 전력을 한반도와 일본 북쪽으로 흩어 놓습니다. 북한을 지켜보는 데 눈과 배를 묶어 두면 대만 쪽으로 돌릴 여력이 줄어듭니다. 일본 방위성 자료도 이 연합 활동을 두 방향의 싸움을 강요하려는 계산으로 읽습니다. 한반도가 대만 문제와 한 그물에 엮인다는 뜻입니다. 그 셈법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근거를 더 모아 따로 다룰 몫으로 남겨 둡니다.

문이 되는 좁은 물길들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좁은 물길을 지나야 합니다.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의 미야코 해협이 그 문입니다. 대만을 둘러싸는 큰 훈련이 열릴 때마다 중국 해공군은 이 해협을 관통해 힘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2024년 10월 합동의 검 2024B 2025년 4월 해협천동 2025A가 그런 무대였습니다. 문을 지키는 쪽에서 보면 이 좁은 길을 막는 일이 넓은 바다를 지키는 것보다 값집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대만과 가까운 루손 해협에 특수부대를 넣고 대함 미사일을 세운 까닭도 여기에 닿습니다. 배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에 배를 가라앉힐 무기를 놓아두면 중국 함대는 그 길을 편히 쓰지 못합니다. 자료는 배치된 무기를 대함 미사일과 대함 타격용 드론으로 적었고 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가 그 작전에 들어갔다고 밝힙니다. 무기의 정확한 이름과 사거리까지는 이 자료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같은 좁은 물길을 중국은 오래 재어 왔습니다. 동다오급 정보수집함은 2015년과 2016년부터 센카쿠 남쪽 접속수역 바깥을 오가고 기타다이토지마 북쪽을 지나며 전파를 끊었습니다. 슈팡급 측량선은 2021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열 차례 넘게 야쿠시마 쿠치노에라부지마 쿠치노시마 근처를 항해하며 바닷속 지형을 잰습니다. 산둥함은 2023년 4월과 9월 10월에서 11월로 이어지는 기간에 잇따라 태평양으로 나가 함재기 이착륙을 익혔습니다. 싸움이 벌어질 바다를 미리 손금 보듯 외워 두는 일입니다.

바다 밑을 더 파고들기

물속 이야기를 한 겹 더 붙입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깊은 바다에 수중 드론을 내려보내고 그것이 잇따라 나포되는 일은 해저 지도를 그리는 작업으로 읽힙니다. 겨냥하는 것은 미 해군 핵잠수함의 길목입니다. 잠수함은 소리를 숨겨야 사는 무기입니다. 바닥 지형과 물의 온도 소리가 꺾이는 층을 미리 알아 두면 상대 잠수함이 언제 어디로 들어오는지 좁혀 잡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드론이 발견된 해역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쪽이라고 적었을 뿐 몇 건인지 어느 잠수함을 겨냥했는지까지 숫자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나포된 드론과 깔리는 센서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땃 하나로 끊는 신경

대만의 해저 케이블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스물네 가닥의 선이 대만과 바깥세상을 잇습니다. 홍타이 58호가 2025년 2월 25일 땃을 끌어 평후와 마쭈를 잇는 세 번째 케이블을 끊은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런 방식의 절단은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만 스물일곱 차례 일어났습니다. 자료가 이름과 날짜까지 밝힌 사건은 홍타이 58호 하나이고 나머지는 횡수로만 잡혀 있습니다. 개별 사건을 지어내지 않고 그 스물일곱이라는 숫자의 무게만 짚습니다. 이 방식이 무서운 까닭은 사고처럼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닳을 끌었을 뿐이라는 변명 뒤에서 선이 끊깁니다. 조사가 도는 동안 복구가 늦어지고 대만은 그만큼 목소리를 잃습니다. 평시에 이런 절단이 쌓이면 어디까지가 사고이고 어디부터가 공격인지 경계가 흐려집니다. 싸움이 나는 날 이 선을 한꺼번에 끊으면 섬은 바깥과 말이 끊긴 채 고립됩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굴복

이 모든 손놀림이 노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상대가 먼저 총을 쏘게 만들거나 아무것도 못 하게 묶어 두는 일입니다. 앞에 선 것이 무장 없는 어선이거나 법을 집행한다는 해경이면 먼저 함포를 쏜 쪽이 과잉 방어이자 선제 공격국으로 몰립니다. 참고 있으면 영해와 케이블을 야금야금 빼앗깁니다. 분석가들은 이 방식을 두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상대의 의지를 질식시키는 모델이라 부릅니다. 청산가리를 뿌렸다는 2026년 4월의 고발도 이 틀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아직 혐의 단계입니다.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필리핀 배에 올라 날뿔이를 휘두른 2024년의 사건도 배를 가라앉히는 대신 사람을 겁줘 물러나게 하려는 손짓이었습니

다. 그렇다면 중국은 정말 이 바다를 발판 삼아 대만을 칠 것인가. 다음 장에서는 침공을 말하는 목소리와 그 손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을 함께 살핍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같은 지도의 다른 바다가 아닌 편입니다. 중국이 주변국의 대응 의지를 어떻게 조금씩 시험하는지 보여 주는 실험장입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인공섬과 해경과 민병대가 앞에 섭니다.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 주변의 항해 정보수집함의 통과 종려 폭격기의 연합 비행이 겹칩니다. 방식은 달라도 목적은 비슷합니다. 상대가 어느 선에서 물러나는지 어느 선에서 동맹을 부르는지 매일 재는 일입니다.

국제법의 문장과 해상의 현실 사이도 벌어졌습니다. 남중국해 중재 판정은 중국의 9단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다 위에서는 중국 해경선과 인공섬 활주로와 항만 시설이 현실을 만들어 왔습니다. 법이 졌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닌 편입니다. 법은 기준을 세웁니다. 다만 기준을 지키게 할 힘이 따라오지 않으면 상대는 그 빈틈을 물리적 사실로 채웁니다. 물대포 총돌 레이저 날뿔이 해저 케이블 절단 혐의는 모두 그 빈틈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동중국해에서 러시아가 붙으면 압박은 더 넓어집니다. 중러 폭격기와 함정과 잠수함이 함께 움직일 때 일본과 미국은 북쪽과 동쪽과 남쪽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한반도도 이 그림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동해의 연합 활동은 한미일의 감시 자산을 북쪽에 묶어 두고 대만해협으로 돌릴 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작전 계획이 아니고 배치가 만드는 압력입니다. 바다는 하나의 전선으로만 닫히지 않습니다. 여러 좁은 물길과 여러 동맹의 의지가 한꺼번에 시험받는 공간입니다.

11장 침공 신중론과 억제 요인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한 저택에서 시진핑 주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미국 측 관계자들이 전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눈길을 끄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꺼내자 시 주석은 자신이 2027년이나 2035년에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세워 두었다는 바깥의 관측을 직접 부인했다고 합니다. 회담장 밖에서는 중국이 곧 대만 해변으로 상륙정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경고가 매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회담장 안에서는 그 주인공이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한 구조입니다.

이 장면 하나에 이 장의 질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망설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위협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겁을 먹고 당장 전쟁이 난다고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시 주석의 부인을 근거로 마음을 놓아도 될까요. 이 장은 그 두 극단 사이를 걷습니다. 위험을 낮춰 보지도 않고 특정한 날짜에 못 박아 단정하지도 않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근거는 미국 유럽 스페인 에스토니아의 연구기관과 학술지가 2026년 초에 내놓은 분석들입니다.

공격할 수 있다는 쪽의 말부터 들어 봅시다.

자주 인용되는 숫자가 2027년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이 발표한 2026년 연례 위협 평가와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군에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이 지시가 무슨 뜻이냐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능력을 갖추라는 명령과 그 해에 쳐들어가겠다는 결심은 다른 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자주 침공 예정일처럼 읽힙니다.

말의 온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외교 학자 옌쉐통은 영문 기고를 통해 중국은 국내총생산 성장에 집중하고 있어 대만 통일 시간표를 짧아 가능성 작다며 서방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그것은 학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곧바로 일축했고 대만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025년 4월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두고 극악무도한 전쟁의 창조자라고 부르며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라는 공식을 반복했습니다. 유사시 전쟁의 책임을 라이 총통에게 미리 떠넘기는 밑그림을 그린 구조입니다.

말만 거칠어진 게 아닌 편입니다. 배와 비행기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자문기구의 연례 보고서와 대만 침공 관련 분석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세계 최초의 드론 항공모함이 될 076형 강습상륙함을 건조해 진수시켰습니다. 얕은 바닥에서도 병력을 부릴 수 있는 수이차오급 상륙 바지선도 대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냉전 시대의 구형 J-6

전투기 약 300대를 무인기로 개조해 대만의 방공망을 어지럽히고 미사일을 소진시키는 총알받이 무리로 실전 배치했습니다. 병력을 잃더라도 상륙을 밀어붙일 물리적 수단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면전을 벌이지 않더라도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중국 군용기의 횡수는 2020년 9월 한 달 69회에서 2024년 한 해 전체로는 3075회까지 늘었습니다.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는 횡수는 2020년 22회에서 2024년 1472회로 뛰었습니다. 4년 사이 6591퍼센트라는 증가율이 나옵니다. 평시와 전시의 경계가 이렇게 흐려지면 어느 날의 근접 비행 하나가 뜻하지 않은 확전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자기 군사력을 과신한 나머지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상황을 끝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분석가들은 지적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위험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같은 자료들이 곧바로 반대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쪽의 핵심 근거는 실제로 해 보면 참담하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돌린 위게임 이름하여 다음 전쟁의 첫 전투가 자주 인용됩니다. 미국이 대만 방어에 개입하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상륙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인민해방군은 대만 해변에 3만 7천 명을 올려놓는 데 그쳤고 7천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항공기 155대와 함정 138척을 잃었습니다. 보급이 끊긴 상륙 병력은 결국 모두 항복했습니다. 민간 상업용 상륙정 80여 척을 끌어와 수송량을 여섯 배로 부풀렸지만 포탄이 쏟아지는 바다에서 장갑도 없는 민간 배가 병력을 무사히 내려놓기는 어려웠습니다.

돈 문제도 큼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전 세계 경제가 약 10조 달러의 손실을 입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구서에서 큰 몫을 떠안는 쪽이 중국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국의 성장은 수출과 바깥의 수요에 깊이 매여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작은 충돌이라도 벌어지면 국제 금융 시장은 곧바로 자본을 빼내고 제재를 걸 것입니다. 독일마셜펀드의 보고서는 이를 중국의 확전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군사력을 쓰는 순간 자기 경제를 먹여 살리는 수출 시장을 스스로 끊어 버리는 앞뒤가 막힌 자충수라는 것입니다.

집안 사정도 발목을 잡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첫 번째 과제는 예나 지금이나 체제를 지키는 일 이른바 안정 유지입니다. 전쟁이 길어지거나 본토가 얻어맞으면 대규모 소요가 일어나 당의 통제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 군부는 안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반부패를 명분으로 최소 101명의 최고위 장성이 숙청됐고 그 안에는 실전을 아는

장유사와 류전리 같은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핵심 지휘관 보직의 21퍼센트만 채워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다만 이 숙청의 원인이 부패인지 권력 다툼인지 침공을 말리려는 신중론 때문인지 아니면 반역의 조짐 때문인지는 자료로 갈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판단을 보류합니다. 확실한 것은 지휘부에 이 정도 구멍이 난 상태에서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복잡한 상륙 작전을 매끄럽게 해내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2027년입니다. 미 중앙정보국장 윌리엄 번스와 국가정보국장실의 2026년 연례 위협 평가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시 주석이 2027년까지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그 해에 침공하기로 결정했거나 고정된 시간표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 주석 본인이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그런 계획을 부인한 것도 앞서 본 그대로입니다. 능력의 시한과 침공의 날짜는 붙여 쓰면 안 되는 두 개의 말입니다.

이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전쟁이 정말 벌어진다면 승부는 어디서 갈릴까요. 화려한 첫날의 미사일 교전이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지루한 지속 능력에서 갈린다는 것이 여러 대담과 보고서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미국의 약점부터 봅시다. 미국이 중국 같은 대등한 상대와 고강도 전쟁을 벌이면 현대전에 꼭 필요한 30여 종의 핵심 탄약 재고가 한 달 남짓 만에 바닥납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을 상정한 훈련에서는 미 육군이 며칠 만에 사드 요격 미사일 전체 재고의 4분의 1 이상을 써 버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만 침공이 나면 미군은 첫 일주일 동안 중국 함대를 막기 위해 장거리 대함 미사일과 재즈-ER을 수천 발 단위로 쏟아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들은 한 발에 수백만 달러가 넘고 사드 요격체나 SM-3 같은 무기는 만드는 데만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전쟁 중에 다시 채워 넣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약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기 연료를 돌려쓰면 1년 가까이 군수를 버틸 수 있다는 계산도 있지만 진짜 아킬레스건은 바다를 건너는 일입니다. 정규 상륙함이 모자라니 군민융합을 발동해 한 조선소에서만 민간 상업용 상륙정 80여 척을 개조해 정규 해군의 여섯 배에 이르는 수송량을 서류상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장갑도 없는 민간 배와 민간 선원이 포탄이 빗발치는 해안에서 병력을 내려놓고 살아남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 배들이 가라앉으면 후속 보급은 그대로 끊깁니다.

대만은 또 다른 시계에 쫓깁니다. 식량은 자체적으로 여섯 달쯤 버틸 수 있지만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는 2주에서 3주면 완전히 바닥납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경제와 방위 산업이 멈추고 군수 체계 전체가 마비됩니다. 상륙정이 해변에 닿기도 전에 섬 안에서 전기가 나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봉쇄라는 말이 왜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핵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 자문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1년 만에 20퍼센트나 늘어 600개를 넘어섰습니다. H-6N 폭격기와 신형 미사일을 앞세워 육상 해상 공중을 아우르는 핵 3원 체제도 갖췄습니다. 이때 위험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대만 전쟁 중에 미국이 중국의 접근 거부 방어망을 뚫으려고 본토의 미사일 기지를 때리면 중국 지도부가 이를 핵 공격의 신호로 오인해 실제 핵무기 사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의 문턱까지 미끄러지는 경로입니다.

이 핵 불안은 한반도로도 넘어옵니다. 동북아의 핵 위협이 커지자 한국 안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믿어도 되느냐는 의구심이 커졌고 자체 핵무장 여론도 힘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는 거부하는 대신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내놓고 핵협의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군의 재래식 지원과 미국의 핵 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를 눈에 보이게 함으로써 한국의 불안을 달래려는 장치입니다. 두 나라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놓고도 협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계산이 서울의 계산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동맹의 역할 분담도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미군의 군함과 미사일 드론을 현지에서 고치고 정비하는 역내 군수 거점으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지 않고 물류를 돌리려는 구상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만 유사시 한국의 첫 임무는 병력을 대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을 억눌러 한반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미군 무기의 후방 수리 탄약 판매 비전투원 후송 같은 후방 지원이 현실적인 몫으로 논의됩니다. 미군은 이미 군산 기지에 MQ-9 리퍼 드론을 앞당겨 배치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호주는 더 앞줄에 섭니다. 일본은 국방비를 크게 늘리고 지휘통제 체계를 미군과 합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과의 발리카탄 훈련을 통해 루손 해협 쪽에 대함 미사일과 타격 드론을 두었고 오키나와에서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 국방부는 레플리케이터 구상을 걸었습니다. 수만 대의 자율 무인 수상정과 드론으로 대만 해협을 무인 지옥도로 만들어 중국의 민간 징발 상륙 선단을 바다에 수장시키겠다는 억제 전략입니다. 값비싼 군함 한 척 대신 값싼 무인기 수만 대로 상대의 셈법을 흔들겠다는 발상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로 꿰 수 있을까요. 이때 이 장의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위협을 낮춰 보지 않으면서도 일정표로 단정하지 않는 법 말입니다.

핵심은 의도와 역량을 갈라서 보는 데 있습니다. 2027년이라는 숫자는 능력의 시한이지 공격의 날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짚습니다. 스코벨과 허가 워싱턴 계간지에 쓴 글은 이때 날카롭습니다. 중국을 절반만 맞게 읽으면 전부를 틀리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장기적인 군사력 증강을 무조건 전면 침공 준비로 간주하고 2027년을 공격일로 가정하면 공포에 쫓긴 과잉 대응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동아시아 방위비에 수십억 달러를 서둘러 엮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쫓기듯 무장하고 외교를 끊으면 중국은 미국과 대만이 독립을 향해 달려간다고 느끼고 원치 않던 전쟁을 스스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겁먹은 예언이 스스로 실현되는 예언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위협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닌 편입니다. 날짜를 못 박지 않았을 뿐 중국은 대만을 매일 조금씩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륙전보다 무서운 것이 일상이 된 회색지대 압박입니다. 2025년 2월 25일 토고 선적의 중국 화물선 홍타이 58호는 대만 해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닻을 끌어 대만 본섬과 마주 평후를 잇는 해저 통신 케이블을 고의로 끊었습니다. 이런 통신망 절단은 대만에 하루 55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60억 원의 손실을 안깁니다. 군함 한 척 보내지 않고도 섬의 신경을 자르는 방식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겨냥한 공격은 더 은밀합니다. 2024년 대만 정부를 향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하루 평균 240만 건에 달했습니다. 2025년 대만 국가안전국은 대만을 겨누는 4만 5천여 개의 가짜 계정과 230만 건이 넘는 인공지능 증폭 가짜 뉴스를 찾아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버릴 체스 말로 본다는 선전을 흘려 대만 안의 미국 의구심을 부풀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불만이 쌓일 때마다 대규모 포위 훈련이 이어집니다. 2024년 5월과 10월의 합동의 검 2025년 봄의 해협천동에 이어 관리들은 중국이 이런 훈련을 빙자해 병력을 세워 둔 뒤 몇 시간 만에 실제 공격으로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답은 2027년이라는 유령 같은 날짜에 맞춰 전통적 군비를 소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료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다른 쪽입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의 회색지대 도발에 곧바로 맞서는 것입니다. 중국의 은밀한 행동을 국제사회에 공개해 폭로하고 규칙을 반복해서 어기는 배의 항구 접근을 막는 비례적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그것을 열린 문으로 착각하고 밀고 들어옵니다. 다른 하나는 회복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대만은 한광 41호 군사 연습의 위게임을 2주로 늘리고 실탄 기동을 열흘로 두 배 늘렸으며 각본 없는 기습 전환 시나리오를 넣었습니다. 2027년까지 대만산 드론 5만 대를 갖추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가짜 뉴스와 싸우는 힘은 시민사회에서 나옵니다. 대만의 가짜뉴스 대응 플랫폼 마이고펜은 40만 명 넘는 구독자를 모았고 더블싱크 랩 같은 단체들은 중국의 인지전을 막아내는 팩트체크

그물을 찢습니다. 대중이 마음으로 먼저 행복하는 것을 막는 방어선입니다. 스페인 전략연구소의 분석이 국내 안정을 전략적 브레이크라고 부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침공을 막는 힘은 미사일에만 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회와 무너지지 않는 여론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온 우리는 처음의 두 극단에서 모두 비켜서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침공할 물리적 능력을 맹렬히 키우고 있고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는 식으로 레드라인을 넘으면 공격할 위험은 늘 있습니다. 동시에 상륙 함대의 궤멸적 피해 10조 달러 규모의 경제 붕괴 핵 확산의 위험 그리고 안에서 흔들리는 지휘부와 사회가 그 방아쇠를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 둘을 겹쳐 보면 중국이 이유 없는 전면 침공을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고 대신 전쟁 문턱 아래의 강압 곧 케이블 절단과 사이버 인지전과 해경 봉쇄로 대만의 저항 의지를 꺾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종합한 판단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닌 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태도는 하나로 모입니다. 위협을 알보지 않되 달력의 특정 날짜에 못 박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의 시한과 침공의 날짜를 같은 말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겁에 질려 스스로 전쟁을 앞당기지도 않고 방심해서 매일의 압박을 놓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대만 해협을 읽는 일은 결국 두 개의 잘못된 확신 사이에서 확인된 사실과 유보된 판단의 경계를 매일 다시 긋는 일입니다.

침공을 둘러싼 오해는 대개 한 해의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2027년입니다. 정책 담당자들은 이 해를 '데이비슨의 창'이라 부르며 확고한 마감일처럼 읽곤 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은 다릅니다. 『Chinese Reluctance to Invade Taiwan』 보고서는 2027년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에 맞춰 성공적인 침공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한 시한으로 못박습니다. 준비를 마치라는 명령입니다. 그 해에 방아쇠를 당기겠다는 결정과는 다른 말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의 2026년 연례 위협 평가도 중국이 고정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숫자를 잘못 읽으면 뒤따르는 일이 있습니다. 『Why Getting China Half Right Risks Getting It All Wrong』에서 스코벨과 허는 중국을 반만 맞게 읽으면 전부를 틀린다고 경고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방법은 두 겹으로 듣는 것입니다. 중국이 바깥세상을 향해 내놓는 말과 국내 청중을 향해 흘리는 말을 따로 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밖으로는 성장에 집중한다며 안심시키고 안으로는 '조국 통일은 계속 미룰 수 없다'는 관념을 매체로 주입합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 사소한 위기를 전쟁으로 오판하고 잠결에 걸어 들어가듯 확산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침공을 말할 때 우리는 대개 해변을 떠올립니다. 상륙정 화염 점령입니다. 한 대담 기록은 이 쓸림을 숫자로 짚습니다. 대만 유사시 논의의 85퍼센트가 해변 상륙에 15퍼센트가 전면 봉쇄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국이 내일이라도 꺼낼 수 있는 때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격리'입니다. 전면 봉쇄와 달리 무력의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서 해경과 위장 상선으로 대만을 드나드는 배를 골라 세우는 방식입니다. 간접 통제라 부르기도 합니다. 총성 없이 섬의 출입문에 손을 얹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두 모델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하나는 '텐진 모델'입니다. 대규모 상륙으로 섬을 힘으로 눌러 앉히는 전면전 각본입니다. 다른 하나는 '베이핑 모델'입니다. 총성 없이 섬을 접수한 옛 방식에서 딴 이름으로 무혈입성을 뜻합니다. 케이블을 끊고 사이버로 흔들고 항구를 조여 대만이 스스로 저항 의지를 내려놓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료가 짚는 판단은 이렇습니다. 궤멸적 피해가 뻔한 텐진 모델보다 피 말리는 베이핑 모델이 중국에게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겹쳐 읽은 판단이며 확정된 사실은 아닌 편입니다.

압박은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2024년 5월 '합동의 검 2024A'가 대만을 에워쌌습니다. 10월에는 '합동의 검 2024B'가 핵심 도시 여섯 곳을 옥쥘했습니다. 2025년 3월과 4월에는 '해협천둥 2025A'가 이어졌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정의 사명 2025'가 등장했습니다. 야간 공습과 지도부 참수 작전을 시연한 훈련입니다. 대만과 미국 관리들이 두려워하는 지점은 훈련과 실전의 경계입니다. 병력을 훈련 명목으로 세워 둔 뒤 몇 시간 만에 실제 공격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허설과 개막이 같은 무대에서 벌어집니다.

중국은 2025년 국방 예산을 7.2퍼센트 올리며 이 속도를 뒷받침합니다. 막는 쪽의 그림도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레플리케이터'를 걸었습니다. 값싼 자율 무인정과 드론 수만 대를 대만 해협에 쏟아부어 '무인 지옥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원리는 셈법 바꾸기에 있습니다. 군함 한 척은 비싸고 느리게 만들어집니다. 무인정 한 대는 싸고 빠르게 찍어냅니다. 중국이 민간에서 징발한 상륙 선단이 해협을 건너는 첫 순간 값싼 벌떼가 제1진 병력을 바다에 가라앉히겠다는 계산입니다. 상대가 감당할 손실을 미리 부풀려 상륙 자체를 단념하게 만드는 거부예의 억제입니다.

동맹의 배치도 앞줄로 나옵니다. 미국은 필리핀과의 '발리카탄' 훈련에서 루손 해협 쪽에 대함 미사일과 타격 드론을 두었습니다. 그 축에 NMESIS 곧 해군 원정 대함미사일 체계가 있습니다. 해협의 길목을 지상에서 잠그는 무기입니다. 오키나와 틀에서는 호주에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걸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방비를 크게 늘리고

자위대의 지휘통제를 미군과 잇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요격 길목의 봉쇄 후방의 지속. 역할이 나뉘어 겹쳐집니다.

회색지대의 무기는 군함이 없어도 됩니다. 2025년 2월 25일 토고 선적의 중국 화물선 홍타이 58호가 대만 해경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닻을 끌어 대만 본섬과 마주 평후를 잇는 제3해저 통신 케이블을 끊었습니다. 대만은 외부 통신의 99퍼센트를 24개 해저 케이블에 기댁니다. 이 신경을 건드리면 하루 5560만 달러 우리 돈 760억 원가량이 사라집니다. 배 한 척 띄우지 않고 섬의 신경을 자르는 방식입니다. 이런 배들을 두고 위장 상선 그림자 함대라 부릅니다.

이 계산은 서울로 이어집니다.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이 핵 불안을 달래는 장치라면 재래식 영역에서는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역내 군수 거점'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자비에 브런슨은 한국을 미군의 군함과 미사일 드론을 현지에서 고치고 정비하는 거점으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태평양을 왕복하지 않고 물류를 돌리려는 구상입니다. 이 구상에는 한국 조선소가 들어옵니다. 대만 해협의 승부가 부서진 함정을 얼마나 빨리 고쳐 다시 띄우느냐에 걸린다면 수리할 손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도크가 그 손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그리는 한국의 첫 임무는 병력을 대만으로 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을 눌러 한반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미군 무기의 후방 수리 탄약 판매 비전투원 후송이 현실적인 몫으로 논의됩니다. 이것을 전략적 유연성이라 부릅니다. 한 곳에 묶이지 않고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몫을 맡는 태도입니다.

지속 능력을 말할 때 잊히곤 하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입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을 상정한 이 훈련에서 미 육군은 며칠 만에 사드 요격 미사일 재고의 4분의 1 이상을 써 버렸습니다. 실전도 아닌 상정에서 그렇습니다. 대만 시나리오의 규모가 다릅니다. 첫 주에만 장거리 대함 미사일과 재즈-ER을 대량으로 쏟아부어야 합니다. 한 발에 2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입니다. 사드 요격체나 SM-3 같은 무기는 만드는 데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전쟁 중에 다시 채우기가 어렵다는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 쪽 사정은 다릅니다. 자국 연료를 돌려쓰면 360일 넘게 군수를 버틸 수 있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버티는 힘은 안쪽에 있고 약한 고리는 바다를 건너는 길에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유보할 판단을 나눠 둡니다. 확인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중국은 상륙 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대만이 독립 선언처럼 선을 넘으면 공격 위험은 늘 살아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궤멸적 상륙 피해와 세계 경제를 흔드는 비용 핵 확산의 위험이 방아쇠를 쥔니다. 이 무게를 겹쳐 보면 당장 더 그럴듯한 길은 전면 상륙보다 격리와 회색지대 압박입니다. 겹쳐 읽은 판단이며 못박은 예측은 아닌 편입니다. 우리가 짚 태도는 짧게

정리됩니다. 능력의 시한이 침공의 날짜는 아닌 편입니다. 위협은 낮춰 보지 않습니다. 날짜는 못박지 않습니다.

침공 신중론은 중국이 선하다는 믿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에서 나옵니다. 대만을 무력으로 얻으려면 중국은 해협을 건너고 항구를 잡고 도시를 통제하고 반도체 공장과 전력망과 통신망을 다루며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견뎌야 합니다. 첫날의 미사일이 아무리 강해도 그 뒤의 며칠과 몇 주를 버티지 못하면 승리가 아닌 편입니다. 워게임이 보여 준 상륙선단의 손실 경제 보고서가 말한 10조 달러 규모의 충격 사회 안정의 위험은 모두 같은 결론을 향합니다. 전면 침공은 성공해도 너무 비싼 선택입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인 위험은 전쟁 문턱 아래에 있습니다. 격리 봉쇄 케이블 절단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 포위 훈련이 섞이는 길입니다. 충성이 없거나 짧게 끝나도 효과는 깊습니다. 대만 사람들에게 미국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심고 항구와 전력과 통신을 조금씩 조이면 사회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지칩니다. 이 길은 상륙전보다 싸고 부인하기 쉽고 국제사회가 대응할 시간을 흐리게 만듭니다. 중국이 당장 선택할 가능성이 큰 압박은 이쪽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확정 예측이 아니고 여러 자료를 겹쳐 읽은 판단입니다.

2027년을 둘러싼 오해도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능력을 갖추라는 시한은 위협의 문턱을 낮춥니다. 하지만 날짜표는 아닌 편입니다. 시한을 공격일로 바꾸어 읽으면 겁이 정책을 끌고 갑니다. 반대로 시한이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준비를 늦추면 매일의 회색지대 압박을 놓칩니다. 대만해협의 문제는 하나의 날을 맞히는 예언이 아닌 편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상태를 얼마나 오래 견디고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침공 신중론이 주는 교훈은 방심이 아닌 편입니다. 비싼 전면전보다 값싼 압박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대비의 초점은 예언이 아니라 버티는 절차에 놓여야 합니다.

12장 미중 경쟁과 지역 질서: 동맹 권위주의 연대 한반도

한 장의 지도가 회의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4월 22일 주한미군 사령관 자비에 브런슨은 동북아시아 지도를 평소와 다르게 걸었습니다. 북쪽이 위로 가는 익숙한 방향이 아니고 동쪽이 위로 오도록 90도 눕혔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돌리면 한반도가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중국 대륙의 심장부를 향해 뻗은 칼처럼 보입니다. 브런슨은 그 모양을 두고 "아시아의 심장에 박힌 단검"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그는 한국을 대만 유사시의 '역내 군수 거점' 영어 약자로 RSH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만해협에서 싸움이 벌어져 미군 함정과 미사일 체계 무인기가 부서지면 그것을 미국 본토까지 끌고 가지 말고 한국의 기지에서 곧바로 고치자는 구상입니다.

이 발언에 베이징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과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한국을 도구로 만든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지도를 한 번 돌렸을 뿐인데 왜 이런 소동이 벌어질까요. 그 답 안에 이 장에서 다룰 세 가지 그림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망을 다시 짜는 방식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이란이 서로를 어디까지 돕고 어디서 등을 돌리는가 그리고 대만에서 불이 나면 그 불길이 한반도로 어떻게 번지는가입니다.

동맹의 역할을 나누는 미국

브런슨의 지도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미국의 셈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최전선에 직접 서서 분쟁을 눌렀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그 부담을 동맹국에게 나눠 지우고 자신은 무인 전력 같은 비대칭 무기와 후방 지원 쪽으로 물러나려 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설명한 자료와 대중국 전쟁 대비 태세를 점검한 CSIS 보고서를 겹쳐 읽으면 미국이 한 나라의 힘으로 모든 전선을 감당하던 시절을 스스로 접고 있다는 흐름이 보입니다. 미국이 그린 새 밑그림에서 한국은 후방 군수와 대북 억제를 맡고 일본과 필리핀은 제1도련선에서 중국 해군의 진출을 직접 가로막으며 호주는 장거리 타격 무기를 함께 만듭니다.

호주와의 관계에서 이 분업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미 의회조사국의 미국-호주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두 나라는 2025년 6월에 '정밀 타격 미사일'을 함께 생산하고 정비하며 이어서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처음으로 맺었습니다. 향후 반년 안에 국방 산업 목표와 핵심 광물 확보에 30억 달러 넘는 공동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무기를 팔던 관계에서 무기를 같이 만드는 관계로 옮겨간 구조입니다. 일본 쪽에서는 정권 지형의 변화가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총선 결과를 다룬 의회조사국 자료와 미국-일본 관계

보고서는 미일 동맹의 앞날을 좌우할 국내 정치의 요동을 짚습니다. 유럽이 이 판에 어떻게 얹히지는는 유럽의회와 미국 이익을 다룬 자료가 보여줍니다. 인도-태평양의 긴장이 대서양 건너까지 연결된 하나의 안보 회로 안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마주한 세 갈래 길

이 분업의 그림에서 한국의 자리를 날카롭게 그린 자료는 CSIS 한국석좌가 주최한 토론 영상 '대만 분쟁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토론에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오키나와와 일본 남부 기지만으로는 전투기 항속거리가 모자라서 주한미군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워게임의 가정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있는 전투기 대대 네 개 가운데 두 개를 대만 전선으로 빼갑니다. 절반이 빠져나가면 한국 영공의 방어에 큰 구멍이 뚫립니다. 같은 워게임은 미국이 대만 방어에 나설 경우 개전 첫 주에 전진 배치한 항공모함 두 척을 잃고 미군 전사자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숫자가 미국이 동맹국에게 부담을 나누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피를 덜 흘리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앞에는 세 갈래 길이 놓입니다. 첫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군이 항모 두 척과 병력 1만 명을 잃는 순간에 한국이 개입을 거부한다면 한미동맹은 그 자리에서 깨집니다. 두 번째 길은 한국 해군과 공군이 직접 중국 본토의 항구를 때리는 전투 임무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국이 한국의 기지를 되받아치면서 전선이 한반도로 넓어집니다. 남는 것은 세 번째 길입니다. 과거 한국전쟁 때 일본이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하는 것과 같은 후방 지역 지원입니다. 탄약을 팔고 부서진 미군 함정과 항공기를 고치고 정보를 건네고 대만에 있던 민간인을 빼내는 후송 작전을 돕는 일입니다. 브런슨이 말한 역내 군수 거점이 바로 이 세 번째 길의 다른 이름입니다.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이 갈림길에서 겉과 속을 다르게 가져가는 쪽을 골랐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의 한미동맹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대만 문제에 관해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합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를 함께 의식한 태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안보의 빈자리는 꼼꼼히 메우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정을 11차가 끝나기도 전인 2024년 11월에 서둘러 매듭지어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을 8.3퍼센트 오른 11억 9천만 달러로 정했습니다. 이후 인상률은 물가에 연동하되 한 해 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걸어 동맹의 예측 가능성을 지켰습니다. 국방비는 국내총생산의 3.5퍼센트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핵과 잠수함을 둘러싼 움직임도 같은 결입니다. 한국 안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오르자 미국은 핵협의그룹을 새로 만들어 미국의 핵 작전과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함께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10월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돕겠다고 밝혔고 2026년 6월부터 서울에서 핵연료 공급 경로를 포함한 구체적인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으로는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을 쫓는 데 한계가 있다며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속도를 냅니다. 대통령은 임기 안인 2030년까지 전환을 끝내려 하고 브런슨 사령관은 2029 회계연도 2분기까지 이를 이루기 위한 로드맵이 만들어졌다고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전환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 말고도 대만처럼 더 넓은 지역의 위협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얻습니다. 미국이 이미 2025년에 군산 공군기지에 MQ-9 리퍼 무인기를 앞으로 당겨 배치한 것도 주한미군 자산을 여러 임무에 쓰겠다는 신호입니다. 이 모든 대비를 하나로 꿰면 한국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얼굴을 유지하면서 대만 위기의 파급을 스스로 흡수할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권위주의 연대 실재와 과장 사이

미중 경쟁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권위주의 축'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하나의 진영처럼 움직인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얼마나 사실이고 얼마나 부풀려진 것일까요. 자료를 뜯어보면 두 얼굴이 함께 나옵니다.

먼저 실제의 얼굴입니다. 네 나라는 미국 주도 질서를 흔들고 각자의 세력권을 넓히려는 목표 아래 실질적으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의 아시아 내 러시아 군사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와 태평양 일대에서 H-6N과 Tu-95MS 폭격기를 띄워 여러 차례 장거리 연합 비행을 했고 2025년 8월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연합 잠수함 순찰까지 했습니다. 무기와 자금이 오가는 통로도 두텁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의 연례 보고서가 제시한 수치들을 보면 나토는 중국을 러시아 전쟁의 '결정적 조력자'로 규정했고 러시아가 들여오는 반도체의 70퍼센트 이상 민군 겸용 스마트카드의 96퍼센트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은 이란 석유 수출의 약 90퍼센트를 사들이며 이란의 자금줄이 되어 주고 북한 공식 무역의 98퍼센트 넘는 몫이 중국을 거칩니다.

하지만 같은 자료들은 이 연대가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이나 나토 같은 굳건한 동맹이라는 인식은 부풀려졌다고 짚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신뢰와 충성이 아니고 그때그때의 이익과 편의 위에 서 있습니다. 또렷한 증거가 2025년 6월에 나왔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때렸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을 위해 군사적으로 나서지도 의미 있는 지원을 하지도 않고

지켜만 봤습니다. 중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자국 선박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익이 걸린 지점에서는 언제든지 발을 뺄다는 뜻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중국이 불편해한다는 사실은 이 연대의 성격을 더 잘 보여줍니다. CSIS 한국석좌의 토론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도움이 되었는가'에 따르면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자 중국은 심각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겠다며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148발을 건네고 쿠르스크 지역에 병력 1만 4천 명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은 철저히 빠졌습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방공 체계와 원자력 잠수함 부품을 넘기자 중국은 모스크바가 한반도에서 북한의 후견인 노릇을 하며 자신의 오랜 영향력을 갉아먹을까 걱정합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에는 다중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정밀하게 맞출 만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이 연대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위험의 핵심은 완벽한 합동 작전이 아니고 서로에게 부품과 무기와 자금과 포탄을 끊임없이 수혈해 침략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터져 미국의 힘과 관심이 아시아로 쏠릴 때 이렇게 힘을 비축한 러시아나 이란이나 북한이 유럽과 중동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도발을 일으키면 미국의 자원은 여러 곳으로 찢깁니다. 여러 전선이 한꺼번에 달아오르는 이 위험을 전략적 동시성이라 부릅니다. 피의 동맹은 아니지만 무기와 자금이 흐르는 병참 네트워크로는 실체가 뚜렷합니다.

한반도로 번지는 불길 그리고 북한이라는 변수

이제 처음의 지도로 돌아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그 여파가 한반도에 어떻게 닿을까요. 자료가 그리는 파급은 구조적이고 피하기 어렵습니다.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이 임무를 바꾸고 전투기 대대 절반이 대만으로 빠지고 한국은 부서진 미군 장비를 고치는 후방 거점이 되며 그 대가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각오해야 합니다. 방위비는 오르고 방공망은 얇아집니다. 한국의 정책 담당자가 먼저 붙들어야 할 문제는 이 파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이때 흔히 나오는 또 하나의 공포가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는 틈을 노려 북한이 제2의 한국전쟁을 벌인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장면은 근거를 더 다져야 할 자리로 남겨 둡니다. 자료들은 북한의 전면 남침을 주된 위협이 아니고 낮은 가능성의 변수로 봅니다. 앞의 토론 영상에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진이 북한 관영매체 성명 60여 개를 뜯어본 결과 북한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 자산이 한국을 빠져나가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해외의 막강한 미군 타격 자산이 한국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도 함께 뜻합니다. 남침이라는 큰 도박은 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통째로 거는 자살 행위에 가깝고 북한은 중국의 대만 승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뜻이 없습니다. 방금 본 권위주의 연대 안의 깊은 불신을 떠올리면 중국이 대만을 친다고 김정은이 곧바로 남침 지시를 내릴 것이라는 가정은 부풀려진 공포에 가깝습니다.

낮은 가능성이 없는 가능성은 아닌 편입니다. 북한이 고를 법한 것은 전면전이 아니고 회색지대 도발입니다. 2010년에 46명이 전사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 도발을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인천공항을 직접 때리지는 않되 공항 근처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행위 북방한계선 일대의 국지 총돌 유도 대규모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투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도발의 목적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직접 돕는 것이 아닌 편입니다. 대만으로 향해야 할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레이더 정보 감시 자산 패트리엇과 사드 요격 미사일을 한반도에 붙잡아 두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발을 묶어 시선을 흘뜨리는 보조 작전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준비해야 할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2030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통해 한국군이 스스로 북한을 억제할 힘을 서둘러 갖추는 일입니다. 한국이 한반도 방어를 온전히 떠맡을 수 있다는 태세를 확실히 보일 때 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을 미리 막고 미국이 대만해협에 집중할 공간을 열어 줄 수 있습니다.

브런슨이 지도를 돌려 세운 그 단검의 이미지는 한반도가 미중 경쟁의 구경꾼이 아니고 지렛대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말해 줍니다. 미국의 동맹망은 이제 한 나라의 압도적 힘이 아니고 여러 나라의 역할 분담 위에 얹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의 큰 약점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다영역 거부 능력이 아니고 동맹국 내부의 정치적 마비일지 모릅니다. 대만 입법원이 예산을 두고 다투는 사이 그리고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셈을 저울질하는 사이 억제의 그물에는 미세한 틈이 생깁니다. 자료가 말해 주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틈이 언제 얼마나 벌어질지는 워싱턴과 서울과 베이징의 선택이 아직 쓰지 않은 문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짐을 나눠 지우려는 계산 뒤에는 기술적 승부수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름은 레플리케이터 구상입니다. 미 국방부의 이 계획을 다룬 자료와 CSIS 위게임을 분석한 영상 대만 침공을 꺼리는 중국의 속내를 짚은 보고서를 겹쳐 읽으면 그림이 또렷해집니다. 미국은 대만해협을 수만 대의 자율 무인 수상정과 드론으로 채워 바다를 건너오는 중국의 상륙 함대를 물속과 물 위에서 동시에 두들기려 합니다. 분석가들은 이 구상에 무인 지옥도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사람을 실은 군함을 최전선에 세우는 대신 값싸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무인 무기로 중국의 발을 묶겠다는 생각입니다. 미군의 피를 아끼면서 거부의 벽을 세우는 이

방식이 한국과 일본과 필리핀에 역할을 나눠 주는 전략의 밑바탕입니다.

최전선의 물리적 요격은 필리핀과 일본이 맡습니다. 대만 국방보고서와 미국 측 정세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방위협력확대협정을 통해 필리핀 안에 아홉 곳의 군사 기지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2026년의 미국-필리핀 연합훈련 발리카탄에서는 미 육군 특수부대와 해병대가 대만과 코앞으로 마주 보는 루손 해협의 바타네스 제도에 대함 타격용 무인 미사일 체계 NMESIS를 펼쳤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같은 자리에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해군이 루손 해협을 지나 제1도련선을 뚫으려 할 때 그 길목을 미사일로 잠가 버리겠다는 실전 시연이었습니다. 바다를 내주지 않겠다는 해양 거부 그 열개가 눈에 보이는 장면입니다. 한국이 후방에서 무기를 고치고 일본과 필리핀이 앞바다에서 길목을 막고 호주가 장거리 무기를 함께 찍어 내는 이 분업의 모양이 이렇게 지도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대만 안쪽으로 눈을 돌리면 사정이 복잡합니다. 미국은 2025년 12월 대만에 111억 달러어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기록을 통틀어 큰 규모의 패키지입니다.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면서도 대만군의 실전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예전에 공개하던 규모의 열 배가 넘는 약 500명의 군사 교관을 대만 본섬에 보내 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만 내부의 정치입니다. 대만 입법원은 비대칭 전력을 갖추기 위한 특별 국방 예산을 놓고 여러 달째 멈춰서 있습니다. 집권 민진당과 내각은 미래의 미국산 무기 구매용 202억 달러와 대만 안에서 만드는 드론 같은 무기 생산용 95억 달러를 더해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특별 예산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이를 약 120억 달러로 깎은 안을 고집하고 국민당 안에서도 강경파는 약 250억 달러 절충안을 들고나와 집안싸움을 벌입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파파로 제독과 미국재대만협회의 그린 처장이 예산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압박하지만 이 교착 탓에 대만 방어의 핵심인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의 대금 지급마저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앞서 약속하고도 아직 넘기지 못한 무기가 수백억 달러어치 쌓여 있어 대만이 가시를 촘촘히 세우는 속도가 중국의 군비 팽창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권위주의 연대의 실체를 무기와 우주 쪽에서 다시 뜯어봅니다. 러시아는 전쟁 전까지 기술 유출을 꺼렸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다급해지자 중국에 Su-35 다목적 전투기와 S-400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팔았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연례 보고서는 러시아가 중국 해군의 차세대 탄도미사일 잠수함인 096형의 원자로를 손보도록 민감한 잠수함 기술을 넘기고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이 부분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제기된 가능성입니다. 하늘 위에서도 손발을 맞춥니다. 2022년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위성항법 체계인 베이두와 글로나스를 서로 연동하는 협정에 서명했고 이란은 2021년 베이두 접근 권한을 얻었습니다.

북한도 미사일 시험에 글로나스를 쓴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사시 실시간으로 위치와 전장 정보를 나눌 통로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3월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 세 나라가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해역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벌여 무력을 함께 과시했습니다.

무기와 자금이 오가는 통로도 두텁습니다. 다만 그 통로의 구체적인 비율 수치는 이 장에 배정된 자료로 곧바로 확인되지 않으니 정도의 문제로만 짚어 두겠습니다. 러시아가 사들이는 반도체 대부분이 중국을 거치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는 러시아 드론의 전자부품에서도 중국산 비중이 큼니다. 중국은 이란 석유 수출의 큰 몫을 매입해 테헤란의 자금줄이 되어 주고 북한 공식 무역도 거의 전부가 중국을 거쳐 흐릅니다. 신뢰로 묶인 사이는 아니지만 부품과 무기와 돈이 끊임없이 흐르는 병참의 관계로는 실체가 분명합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낡았지만 단단한 문서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1961년에 맺은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입니다. 중국은 이 조약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자신과 미군 사이의 완충 지대로 붙들어 둡니다. 2024년 10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함께 미국 주도의 규탄 성명에 거부권을 던졌습니다. 제재를 빠져나가는 뒷문도 열어 줍니다. 미국 재무부 제재 명단을 보면 중국 기업 랴오닝 중국무역산업은 북한 국방성 산하 무기 거래 기관인 53국에 컴퓨터와 그래픽 카드와 네트워크 장비를 대 주며 북한 정권의 해외 정보기술 벌이와 사이버 작전을 도왔고 이와 얽힌 위장 기업 서른다섯 곳이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형제라 부르되 속으로는 돈과 장비가 오가는 거래의 관계입니다.

이 연대가 험겁다는 증거는 러시아 안쪽에서도 나옵니다.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흘러나온 러시아 군사 기밀문서를 보면 러시아 당국자들은 중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자국을 앞선다는 사실을 깊이 걱정했고 중국과의 전쟁을 가정해 전술핵무기를 언제 쓸지 그 기준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몸을 붙이긴 했어도 러시아는 자신이 중국의 아랫급 동업자로 떨어지는 것을 지금도 경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부쩍 가까워지자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평양에 보내 흔들리는 영향력을 붙잡으려 했고 외교부 대변인 린젠은 북러 협력을 두고 주권 국가들 사이의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같은 진영으로 묶이면서도 서로의 뒤통수를 살피는 관계 그 실제 모습입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에는 여러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정밀하게 맞출 만큼의 신뢰가 없습니다.

이 균열이 왜 한국에게 중요하냐면 북한이 중국의 손짓 하나에 곧바로 남침 단추를 누르리라는 공포를 한 겹 걷어 내 주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포탄을 대면서 중국을 철저히 따돌린 일 그 대가로 러시아가 평양의 후견인 자리를 넘보자 중국이 불편해한 일은 세 나라의

손발이 그만큼 어긋난다는 표시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친다고 김정은이 자기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전면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가정은 이 어긋남을 떠올리면 부풀려진 그림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하나로 이으면 한국이 마주한 문제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인민해방군의 함정 숫자나 미사일 사거리 그 자체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밀어내며 만들어 내는 구조적 압력을 어떻게 견디고 관리하느냐입니다. 동맹의 역할 분담 권위주의 네 나라의 험거운 연대 북한이라는 변수는 각각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압력이 되어 한반도에 엹힙니다. 미국이 무인 지옥도로 대만해협을 채우고 일본과 필리핀이 앞바다를 막고 대만이 예산 싸움으로 발이 묶이고 러시아와 이란과 북한이 자기 이익을 따라 이합집산하는 그 사이에서 한국은 대만 위기의 파급을 스스로 흡수할 힘을 조용히 쌓아 두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자리는 이 그림에서 늘 뒤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간에 가깝습니다. 대만해협에서 미군이 움직이면 주한미군의 임무와 장비와 정비 체계가 함께 흔들립니다. 한국이 직접 대만으로 병력을 보내지 않더라도 한국의 항구 조선소 정비창 탄약 거래 비전투원 후송 체계는 동맹망 안에서 계산됩니다. 중국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 위기는 군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보복과 외교 압박과 북한 변수까지 묶인 복합 위기가 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은 앞줄에서 길목을 막고 호주는 장거리 무기와 잠수함 축을 받치며 한국은 북한 억제와 후방 군수를 맡는 그림입니다. 이 역할 분담은 효율적입니다. 태평양을 건너 장비를 고치러 가지 않고 한국에서 수리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효율은 정치적 결심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한국 안에서 중국 보복을 두려워하는 목소리와 동맹의 의무를 앞세우는 목소리가 맞서면 억제의 그물은 느슨해집니다. 대만 내부 예산 교착도 같은 문제입니다. 무기 체계보다 먼저 정치가 멈추면 방어는 제 속도를 잃습니다.

권위주의 네트워크도 한 덩어리로 보면 틀립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서로를 좋아해서 묶인 것이 아닌 편입니다. 필요한 것을 거래하고 미국의 힘을 흠뜨리는 데 이해가 맞아 움직입니다. 러시아는 중국 기술과 시장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가까워지며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고 중국은 북한을 완충 지대로 붙잡으려 합니다. 이란은 석유와 무기와 제재 회피의 통로를 찾습니다. 신뢰는 알지만 거래는 깊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는 완벽한 동맹보다 병참망에 가깝습니다. 전쟁을 함께 시작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전쟁을 오래 버티게 도울 수 있습니다.

한반도 변수도 공포와 현실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친다고 북한이 곧바로 전면 남침을 한다는 그림은 과장되어 있습니다.金正은이 중국의 승리를 위해 자기 정권의 생존을 걸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지 도발은 다릅니다. 북방한계선 충돌 무인기 침투 공항 주변 위협 같은 낮은 강도의 도발은 한미 감시 자산과 요격 자산을 한반도에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직접 지원보다 이런 분산 효과가 더 값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준비는 구호보다 실무에 가까워야 합니다. 북한을 스스로 억제할 전력과 지휘권 전환의 실제 능력 해군과 공군 장비를 고치는 정비 기반 탄약과 미사일 재고 사이버와 항만 방호 계획이 모두 필요합니다. 어느 쪽 편에 서느냐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기가 오면 필요한 것은 말보다 작동하는 절차입니다. 대만해협의 불길이 한반도까지 번지는 방식은 드라마처럼 한순간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비 요청 하나 방공망 공백 하나 북한의 작은 도발 하나가 겹치며 들어올 가능성이 큼니다. 이 원고의 마지막 장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을 읽는 일은 결국 우리 주변의 동맹과 위기 관리 능력을 다시 점검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장을 한국 이야기로 닫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을 멀리 있는 군대로만 보면 우리 쪽 준비가 느슨해집니다. 대만해협에서 중국군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아도 그 압박은 이미 한국의 선택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국 조선소의 정비 능력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가능성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가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한국은 대만 문제의 관객이 아닌 편입니다. 위기의 파급을 받아내야 하는 동맹망의 한 축입니다.

한국의 과제는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지지 않습니다. 평시에 이미 정비 계약 탄약 재고 항만 보안 사이버 방어 비전투원 후송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을 억제할 힘도 스스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만해협의 위기가 한반도의 빈틈으로 번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는 큰 선언보다 작은 절차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조직, 현대화, 전쟁 준비의 실제

ISBN |

저 자 | 김경진

펴낸이 | 김경진

펴낸곳 | 김경진 변호사 출판사

출판사등록 | 2025. 3. 10. (제2025-000015호)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91, 백일빌딩 304호

전 화 | 02-6338-1905

이메일 | kimkj008@gmail.com

가격 : 20,000원

© 김경진 2026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참고) 이 책의 일부 내용과 편집 과정에는 인공지능 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잘 읽으셨으면 그리고 새로운 가치있는 지식을 얻으셨다고 판단되시면
농협 302-1096-0948-81 (예금주 김경진) 에 자발적 후원 부탁드립니다.